한국전력공사 공인협력업체 한국전기연구소 품질인정업체
심야전력 기기제조 설치전문점
▶용도 : 사찰, 주택,식당,병원,목욕탕,숙박업소, 관공서,모든 공공장소에 설치
그랑쌀레이 051)743-3376

현대불교

'98 자양강장제 부문 고객만족도 1위
원비-디®

회장: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 / 논설고문:고은 / 편집국장:최정희 / 인쇄인:김규석 / 등록번호: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722-4162 FAX:737-0698 / 광고국:737-0692 / 구독신청 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3년(서기 1999년) 7월 21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231 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스님들의 도박

지난 해 교계는 물론 세인들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했던 사건을 접했다. 일부 스님들의 억대 도박사건은 마침 경제난과 수해가 겹쳐 일파만파로 확대됐다.

'스님들이 억대 도박을 했다.' 이 사건 보도만으로 불교신도 몇만명은 등을 돌렸을 것이다. 불교를 믿어 볼까 했던 사람들은 아예 다른 종교로 눈을 돌렸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포교를 해야 할 스님들이 오히려 '해불행위(?)'를 자행했다고 경악했다.

한편에서는 곪았던 것이 이제야 터졌다며 응당의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아 고해에서 허덕이는 중생을 제도해야 할 스님이 억대의 도박을 했다는 것은 스스로 수행자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진배없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았다.

중생제도할 수행자 오히려 타락하다니

당시 교계는 긴급 토론회, 참회 등 재발방지에 나섰지만 아직도 도박을 하고 있다는 후문은 여기저기서 들려 오고 있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한 스님은 "억대의 도박꾼은 아니지만 지역스님들 가운데 몇몇이 모여 화투와 포커를 하고 있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털어놨다. 도박에서 손을 떼지 못하는 스님들은 승복을 입을 자격이 있는지 자문해 볼 일이다.

또 일부스님들의 음주 흡연도 예삿일이 아니다. 심지어는 모 종단의 경우 종단의 대소사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내놓고 흡연을 하고 있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갈수록 점점 승속의 구별이 없어지고 있다.

재가불자들도 문제다. 스님들과 함께 음주하고 흡연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계율을 어겼을 때 그 죄과를 덮어두지 말라"고 했다. 상처는 밝은 곳에 드러내지 않고는 절대로 그 뿌리를 도려낼 수 없다. 스님들의 도박 음주 흡연을 보고도 어물쩡 얼버무리며 묵과하는 것도 계율을 어기는 것임을 모든 불자는 명심해야 한다.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알림 교계뉴스 매일 속보제공
인터넷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사찰환경 대책위 결성

조계종, 석남사등 10여사찰 환경분쟁 적극 대처

본사주지회의, 정부에 대책촉구 결의문

사찰환경 수호를 위한 범불교 대책위원회(사찰환경대책위)가 결성됐다.

조계종총무원(원장 고산)은 15일 종무회의를 열어 사찰환경 대책위를 구성키로 하고, 이 위원회를 통해 현재 석남사 등 전국 10여개 사찰에서 진행되는 환경분쟁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사회부장 성조스님과 해인사 주지 보광스님,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장 여연스님을 공동대표로 위촉한 사찰환경대책위는 △건축법 8조4항 폐지에 따른 대체입법 추진 △사찰환경 침해 대응 △사찰환경 보존에 대한 여론작업을 벌인다.

사찰환경대책위원으로는 총무원 기획실장, 해당분쟁사찰 주지스님, 사찰환경보존위원, 성보보존위원(위원장 양산 문화부장)들과 불교환경교육원 등 재가단체가 참여한다.

사찰환경대책위는 석남사와 직지사 등을 현장조사 및 해당 자치단체 항의방문, 서명운동, 문화관광부와 국회 상대의 청원운동 등을 펼칠 예정이다. 또 사찰환경보존위원회가 준비하는 건축법 개정에 따른 사찰환경 보호대책과 사찰 오폐수 처리, 친환경적인 사찰 만들기 공청회를 공동으로 주최한다는 계획이다.

교구본사주지회의(의장 고산 총무원장)는 15일 사찰 수행환경 침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결의문을 채택, 정부에 대해 건축법 개정에 따른 사찰환경 보존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은 결의문을 통해 "다가올 문화의 세기의 성패는 고귀한 문화유산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육성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사찰환경 파괴하는 건축행위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정부와 국회에 대해 △건축법 개정에 따른 사찰환경 보존대책 마련 △사찰환경보존을 위한 대체입법으로 전통사찰보존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불교 도농공동체 매장 봉은사(주지 원혜)와 수원포교당(주지 성관)은 13일 '도농공동체 매장' 개장식을 가졌다. '생명살리기, 생활협동조합'과 '여래살림'으로 이름지어진 두 매장은 오이 호박 배추 등 각종 유기물과 라면 및 각종 과자류에 이르기까지 500여종의 가공품을 판매한다. 사진은 봉은사 생활협동조합. 사진=고영배 기자

전사법 개정안 합의

조계종-문화부 9월 국회 상정키로

조계종총무원과 문화관광부는 14일 건축법 8조4항의 폐지로 사찰 수행환경 및 자연환경 파괴가 진행됨에 따라 전통사찰보존법(전사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제6조2항에 '전통사찰 보존구역 인근에 건축물의 신축 또는 변경 허가를 하는 것이 전통사찰 보존 및 수행환경 보호 취지 등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해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조계종과 문화관광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전사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정성운 기자

조계종 행자교육원 운영위 신설

한글교재사용 · 수계식 가족참여 허용

조계종은 승가 기초교육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해 행자교육원 운영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교육원(원장 일면)은 14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은해사 승가대학원장 무비, 교재편찬위원 무관, 화엄학림 원장 도법스님과 각 율원 관계자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교육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행자교육원 운영위원회 내규'를 확정했다.

교육원 관계자 3인(교육원장, 교육부장, 교육국장), 율원장 4인(또는 5인), 행자교육 관계자 10인(비구 · 비구니 동수), 본사 교무국장 2인 등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행자교육원 운영위원회(위원장은 교육원장)는 교육원회의에 견의할 행자교육원 관련 종법령안, 행자교육원 운영 및 교과과정, 교수사 및 입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상설행자교육 도량지정을 위한 추천 등을 심의하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밖에도 행자교육시 의식문을 제외하고 가능한 한글교재를 사용토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행자교육원 회향 및 수계식에 부모들까지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경 기자

관음종 종정에 혜웅스님 추대



대한불교 관음종 새 종정에 혜웅스님(천안 보현사 조실)이 추대됐다. 관음종은 8일 인천 홍륜사에서 종정추대회의를 개최하고 만장일치로 원로원장 혜웅스님을 제5세 종정에 추대했다. 혜웅스님은 1928년 충남 천안生으로 55년 강원도 강선사에 입산하여 59년 태허스님을 은사로 득도. 관음종 호법원장을 거쳐 지난 89년 원로원장에 취임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종정취임법회는 10월중에 개최된다.

이경숙 기자

본말사 불교TV주식 총무원에 양도 결의

조계종 본사주지회의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의장 고산 총무원장)는 15일 총무원1층 불교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불교TV 정상화를 위해 본말사 소유 주식(68만4천여주, 전체 주식 대비 16.07%)을 중앙교원에 양도 △사미 · 사미니 의제 정착에 협조등을 결의했다.

한편 총무원은 내년 1월부터 3개월 동안 승려분한신고를 시행한다며 교구본사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제2회 부다피아 어린이 캠프

자연과 함께 부처님과 함께

7월22일~24일, 에버랜드 · 사찰서 2박3일

현대불교신문은 불교 앞날의 주인공이 될 새싹불자를 키우기 위해 작년에 이어 제 2회 어린이 여름캠프를 엽니다. 사찰과 에버랜드의 자연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익히면서 건강하고 맑은 신심을 길러주게 될 부다피아캠프는 어린이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에버랜드 롱나무집에서 생활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피부로 느끼는 등 멋지고 신나는 부다피아캠프에 많은 어린이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일 정 : 1999년 7월22일(목)~24일(토), 2박3일(사찰1박 에버랜드롱나무집 1박)
◇장 소 : 용주사 신륵사 와우정사 경주사 백련사 에버랜드
◇대 상 : 초등학교 1~6학년(선착순 5백명)
◇참 가 비 : 5만5천원
◇문 의 : 현대불교신문 전화(02)723-1776
◇은행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 김원우)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 진행 : 선재이벤트
후원 : 조계종 포교원 · 진각종 통리원 ·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 불교조각원 · (사)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

구산선문 참선 기행

7월 : 동리산문(태안사) · 화엄사 · 천은사

7월에는 적인선사 혜철(785~861)에 의해 개창된 동리산문의 중심도량 태안사를 찾아갑니다. 천년의 세월 속에서도 청정 수도승들이 고귀한 습결로 선법을 전해와 현재에도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태안사에서는 옛누각인 능파각을 비롯해 적인선사조륜청정탑(보물 제273호)과 광자대사부도(보물 제274호) 등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각황전 앞 석등(국보 제12호)과 사자자삼층석탑(국보 제35호)으로 유명한 화엄사에서는 불교의 으뜸 사상으로 꼽히는 화엄 사상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지리산의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천은사도 참배합니다.

◇출발 : 7월 24일(토) 밤11시 · 조계사 앞(무박2일)
◇회비 : 4만5천원(조식 중식 포함)
◇안내 : 황호균(전남대 박물관 학예연구사)
◇접수처 :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입금계좌 :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구산선문 관련자료 부다피아(www.buddhapia.com)에서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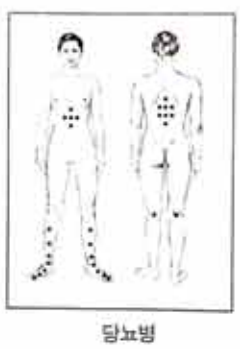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
협찬 : 일양약품 · 대한불교제과인회

여름 불서와 함께 여름속으로 8면
특집 무더위 식히는 사찰음식 19면

"이 광고를 한 번 보는 것 만으로 당신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갑기(고빨)


변 비


당뇨병


오십견

• 7월 18일(일) 오전 11 00 강산 여재원 0523)383-0583
• 7월 19일(월) 오전 11 00 부산 인목 자비회 051)412-3229
• 7월 20일(화) 오전 11 00 인천 보은 정사 032)526-4747
• 7월 20일(화) 오후 5 00 서울 영풍 문고 02)399-5600
• 7월 21일(수) 오전 11 00 서울 청암 오피스텔 505호 0212215-0328
• 7월 21일(수) 오후 7 00 서울 정신 세계원 02)747-7033
• 7월 22일(목) 오후 3 00 대구 삼각동 보리원 053)955-0806
남산 스님 공개 강좌


천 식

* 남산 스님의 『기적의 파스 요법』에는 164가지 질환에 대한 처방이 있습니다.

20만 독자가 효능을 확인한 『남산 스님의 파스 요법』에 이어 『기적의 파스 요법』 출간!!

1,000원만 가지면 전문가의 도움없이 누구나 간편하게 고통없이 병을 이길 수 있다.
남산 스님 파스 요법의 신비한 비법을 공개 합니다.
• 콧물 감기 3분이면 뚝!
• 숙취로 인한 심한 두통 30분이면 말끔!
• 오래된 위장병 15일이면 싹!
• 불면증 20분이면

삼풍 사고 현장에서 氣로써 생존자 3명을 찾아낸
심명탁 교수의 숨쉬는 이야기

머리를 UP - GRADE 시켜라
영어 수학보다 중요한 것은 영어 수학을 받아들이는 머리입니다

스스로 진단하고 스스로 건강법을 찾는 DIY건강법
생긴 대로 병이 온다

몸을 UP-GRADE 시켜라
금전보다 명예보다 소중한 것이 건강.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명상 판잡국 TEL 739-2520, 722-5970 영업국 TEL 733-4277~8 FAX 733-4279
ID:PUBMS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유니텔, netsgo) email PUBMS@chollian.net pubms@netsgo.com

사 설

부끄러운 정재횡령

13일 조계사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 주지 현근스님을 비롯 15명이 거액의 사찰공금을 횡령하였다고 밝혔다. 이미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이들을 서울 지검에 고소하였다고 하니 정확한 내막은 검찰의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으나, 들리는 바에 의하면 회계장부에 기록되지 않고 증발된 액수가 무려 2백억원 이상이나 된다고 하니 참으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근래 들어 종단 내에 비슷한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얼마 전엔 불국사가 경주시내에 불교회관을 지을 돈 13억원을 전 재무가 가지고 잠적하였다고 언론에 보도되었고, 대구지방의 모 본사에서도 맞고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가 하면 서울의 자양복지관 관장과 부산의 공창복지관 재무담당스님도 공금횡령과 관련되어 해임 당한 일이 있었다고 들린다.

전에도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 종단 내에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불교방송국 공금횡령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스님들을 바라보는 세인들의 눈총이 전에 없이 따가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조계사에서 발생한 공금횡령사건을 놓고 볼 때 그와 같은 거액의 비리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총무원과 중앙종회는 본사와 주요사찰에 대하여 매년 회계감사나 업무감사를 하면서 어떻게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지난번 조계종사태가 벌어졌을 때 종단내부의 싸움을 결국 밥그릇 싸움이란 인식이 불자들 사이에 확산되면서 급기야 일부에서는 시주 안하기 운동을 벌이기도 하였으니, 이번 조계사 전 주지의 거액횡령사건에 대하여 조계사 신도는 물론 전국의 불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자못 궁금하고 걱정스럽다.

종단내의 공금횡령사건은 비리에 관련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종단 정재의 손실이요 불교계 전체의 사회적 위상과도 관계되기 때문에 단순한 비리사건으로만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미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스님들 개개인이 초심으로 돌아가 출가 본연의 뜻을 잃지 않도록 해야겠지만 종단적 차원에서도 사찰운영방식에 이제까지와 다른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여 제도적으로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원적인 제동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별한 단서가 없는 한 신도들의 보시는 공금이요 교단에 속한 공공 재산이므로 사찰운영도 더이상 주지 개인이나 몇몇 사람들의 독단이나 전횡에 맡기지 말고 공개적인 운영으로 투명성을 확보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동안 금전과 관계한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찰운영의 공개를 놓고 공청회를 열기도 하였지만 더이상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일부의 사찰에서는 이미 사찰운영을 신도들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스님들은 본연의 임무인 수행과 교화사업에만 힘쓰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하며, 모 종단에서는 출가자들이 금전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서도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스님들이 사찰운영에 직접 매달리고 있는 곳보다 사찰운영에 신도들을 참여시키고 재정을 공개하는 곳이 더 효과적으로 사찰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도들의 참여는 미래지향적이고 반전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물론 사찰운영을 전적으로 신도들에게 맡겼을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없지는 않겠지만 도입해 보지도 않고 사고를 미리 걱정하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고 생각된다.

백양사 납골당 건립

교구본사 최초 영각당 9월10일 개원

2천여기 수용…"장묘문화 대중화 기대"

국립공원 내에 있는 교구본사에 최초로 한국형 납골당이 세워져 불교장묘문화 개선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성 백양사(주지 다정)는 대웅전 맞은편에 1층 명부전과 그 지하 1층 50평에 납골묘 2천기를 안치할 수 있는 영각당을 건립하여, 9월 10일 문을 연다.

이로서 국립공원내 교구본사로는 최초로 경내에 설치된 백양사 한국형 납골당은 전통장례문화와 불교와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장례문화의 모범사례가 될 전망이다.

정부지원으로 6억여원을 들여 97년 11월부터 조성하고 있는 납골당은 이미 1층 명부전이 완공되었고 지하 1층 영각당 내부공사도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영각당은 개인단과 부부단, 가족단 3가지 형태의 납골묘를 설치하고 자동항온 항습장치, 탈취및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자동방화 방재시스템등의 첨단시설을 갖춰 영혼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엄숙하고 아늑하게 꾸미게 된다.

또 고인의 생전비디오와 사진, 기록물을 담은 CD를 제작하여 타임캡슐 형태로 영구히 보관하여 가족과 후손이 찾아올 때마다 열람하여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갖추기로 했다.

백양사 영각당은 명부전 지하에 자리잡아 매일 은은한 독경소리와 종소리가 어우러져 편안한 안식처로 자리잡을 예정이다.

특히 영각당은 납골묘의 설치뿐 아니라 장례준비 및 전문직원 파견, 봉안 사후인사까지 담당하는 장례종합서비스를 실시하여 장례비용을 대폭 낮춘다는 방침이다. 개인단 납골묘는 1기당 3백50만원으로 영구 보존할 수 있다. (0685)392~7502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고산스님은 조폐공사 이석복감사로부터 고승기념메달을 기증받았다.

고승메달 1세트 고산스님 기증받아

조계종총무원장 고산스님은 14일 한국조폐공사 이석복 감사로부터 '근세 100년 고승기념메달' 1세트를 기증받고 환담했다. 고산스님은 "큰스님들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좋은 불사"라며 많은 불자들이 소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조폐공사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제작한 고승기념메달 1차분 세트는 용성 청담 만공 고암 만해 경봉 한암 성철스님 등 여덟분으로 구성, 5백세트 한정으로 보급되고 있다. (구입문의 02-737-8881, 722-4162)

정성운 기자

동국학원 이사 후보 녹원스님등 12명 선정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오현)는 12일 회의를 열고 오는 11월로 임기가 만료되거나 자격상실된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 6명에 대한 이사후보 12명을 선정했다.

12명은 현 이사장 녹원스님을 비롯 보광(해인사 주지) 현해(월정사 주지) 벽파(현 이사) 영배(종회사무처장) 장윤(전등사 주지) 현각(동국대 불교대학장) 성관(수원포교당 주지) 정휴(종회 종헌종법특위 위원장) 월서(재심호계원장) 범종(전 해종특위 위원장)스님 등이다.

관리위원회는 또 중앙승가학원 이사후보로 일면(교육원장) 정련(포교원장) 도후(신흥사 주지)스님등 14명을 선정했다.

정성운 기자

종교청년 평화캠프

종교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웃종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제2회 '종교청년 평화캠프'가 8월 17일부터 사흘 동안 의정부 다락원 캠프장에서 열린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가 주최하는 이 행사에는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유교 천도교의 대학생과 청소년 교육기관의 단체장 및 임원 등 6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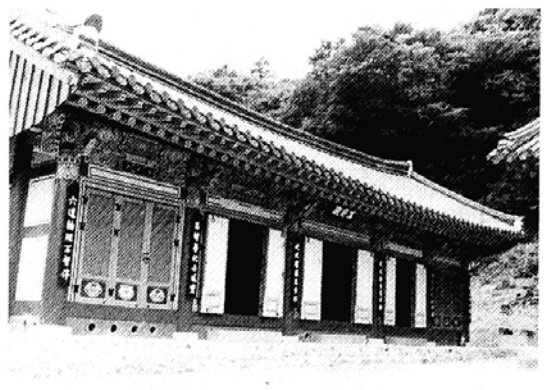
정성운 기자

선교방송 영신여객 도선사 '안타기운동'

공공이용물인 서울 영신여객 6번, 6-1번 버스의 선교방송과 관련 도선사(주지 광복)가 '영신여객 안타기 운동'을 벌이는 등 대응책을 마련했다.

12일 조계종 종교편향 대책위원회(위원장 원혜·현진)와 영신여객 관련 대책회의를 가진 도선사는 초하루법회인 13일 진정서와 현수막을 게시하는등 홍보작업에 들어갔으며, '공공이용물의 선교행위 중단을 위한 영신여객 버스 안타기 운동'을 벌이기로 하고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김재경 기자



◇납골묘를 안치할 백양사 영각당 위에 들어선 명부전.

"원로의원 직접 선출하자"

조계종 원로회의 논의…사무처장에 원타스님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탄성)는 15일 총무원4층 회의실에서 10차 회의를 열고 원로회의법 개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원로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원로의원의 자격 가운데 연령하한선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그러나 상한선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원로의원 선출방법은 현행 중앙종회 추천을 받아 원로회의에서 선출하는 방식을 원로회의에서 직접 선출토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원로회의는 또 분기마다 회의를 열기로 했다. 원로회의는 이날 사무처장에 원타스님(해인사 총무·사진)을 임명했다. 원타스님은 성철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74년 사미계, 75년 고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정성운 기자

"김포학사 공사비마련 토지매각"

조계종 종회 중앙승가대특위, 본회의에 건의키로

조계종 중앙종회 중앙승가대학 김포학사 특위(위원장 종하)는 22일 종회 사무처에서 회의를 열고 김포학사 공사비 재원마련 목적으로 조계사, 개운사, 흥천사 소유의 지방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본회의에 동의 요청을 하기로 결의했다. 특위는 또 종단 소유의 유휴토지에 대해 조사를 벌여 매각하는 방안도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특위는 학교법인 승가학원 법인사무처와 김포학사 건립현황(계약이행 여부 및 설계·감리 문제 등)에 대해 실사키로 결정했으며 김포학사 공사대금과 관련 학교법인 승가학원과 (주)풍림산업에 당초 계약서대로 성실히 이행토록 촉구하기로 하고, 김포학사 이전에 따른 전반적인 '중앙승가대 운영 계획'을 승가학원으로부터 보고받을 방침이다.

김재경 기자

신도자격 의견분분

조계종신도법 공청회

조계종은 10일 총무원 회관 1층에서 포교원(원장 정련)과 종회 포교분과위원회(위원장 지홍) 공동주최로 포교와 신도관련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지홍스님의 신도관련법 제개정 기본안에 대한 설명과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화암스님의 포교원 설문조사결과 설명에 이어 토론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신도등록과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시한다면서도 신도입문자격과 교무금 제도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재경 기자

고산스님 "중신회선거 철저 중립"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오는 8월23일 열리는 중앙신도회장 선거와 관련 "중신회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여법하게 선거가 치뤄져야 하며, 총무원의 특정후보에 대한 지원이나 간섭은 일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산스님은 14일 최근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 총회에서 중신회 회장후보로 추대된 손현수 대현그룹 회장과의 면담에서 "총무원장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누구든지 불교에 대한 신심과 원력을 가진 분이면 공정하게 선거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현수 회장은 "신심과 지도력, 재정능력 등을 겸비한 사심없는 신도가 중신회 회장이 되어야 한다"며 "누가 회장이 되더라도 총무원과의 협조관계 속에서 불교 발전을 위해 정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번화가 될라

직장인을 위한 2년제 야간

대원불교대학

통신·출강 신입생 모집

1972년에 설립된 본 불교대학은 불교의 생활화·현대화·대중화를 위한 불교지도자와 포교사 양성을 위한 야간 2년제 전문과정임.
<27년간 2천여동문 졸업·40기생 모집중>

1. 강의시간 9월 1일 입학·주5일 수업(월,화,수,목,금) 19:00~20:30

2. 교육과목 20개 과목외 범패의식 (법현스님) 특강(동·하계 스쿨링때 범패의식 교육)

1학년	1학기 (16주)	◇불교경전의 이해 ◇초기불교의 이해	◇불교의 종교학적 이해 ◇불교상용 의식	◇유식사상
	2학기 (12주)	◇화엄사상 ◇구사론(아비달마)	◇중국불교의 이해 ◇불교상용의식 실습	◇비교종교
2학년	1학기 (18주)	◇부파불교의 이해 ◇대승기신론	◇밀교학의 이해 ◇우리말 불교의식	◇반야사상
	2학기 (12주)	◇한국불교의 이해 ◇선사상	◇대승불교의 이해 ◇우리말 불교의식 실습	◇천태사상

3. 교 수 진 권탄준박사, 최종석박사, 최봉수박사, 허경구박사, 김경집박사, 김종명박사 김호기박사, 권오성법사, 법현스님(동국대), 정성준박사, 김은희박사

초빙강사 월운스님(동국대 역경원장), 무진장스님(전 조계종 포교원장), 권기종(동국대 사회교육원장), 강건기(전북불교대 학장)

4. 모집 및 전형

모집과목 및 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전형방법
●불교학 출강 00명	●체계적 불교교육을 원하는자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서류전형
●불교학 통신 00명	●대중불교 지도자 자질보유자	●주민등록등본1부 (사진 3매)	합격자 개별통지

5. 원서교부 및 접수 8월 28일까지 (본대학 서무과) ※수시접수가능

원서교부
▶ 서울 불교 문화센터 (불교방송국) (02)703-0108
▶ 대구 적선사불교서점 (053)255-8875
▶ 제천 묘장암 (0443)653-3249
▶ 목포 축성암 (0693)461-1212
▶ 원주 법웅사 (0371)742-2701
▶ 진해 삼밀사 (0553-542-6531
▶ 하동 도림사거사림 (0595)882-4585

6. 특전사항
◇ 법사고시 경유 법사호 수여
◇ 포교당 개원시 종교법인의 보호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 포교실습 지망자 법회처 제공
◇ 자원봉사자 장학혜택 부여

대원불교대학 140-19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02)754-1613, 776-7156, 773-9171, FAX : 756-7258

"학인 30명 정원-졸업고사 필요"

조계종 강원발전 공청회서 의견일치

교수확보·사미(니)의제 시행 시급

"교육·수행체계 일관성 있게 추진"

기본교육기관 학인 30명 이상·교수 5명 이상 확보, 졸업고사 실시, 사미·사미니 의제 완전 시행, 이같은 조건이 승가교육 백년대계의 기초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지난 97년 6월 개정된 '승가대학령'이 따라 2년간의 시행 유예기간을 거쳐 실시예정이었던 기본교육기관 학인(30명 이상) 및 교수(5명이상) 정원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사미·사미니 의제 완전 시행, 졸업고사 실시 등을 통해 면학풍토 조성, 승풍 진작을 위한 조계종 승가교육의 백년대계를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중앙종회 교육분과위원회(위원장 지하)는 12일 총무원 회관 1층 법당에서 승가대학(강원) 발전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승가 기본교육제도의 틀이 흔들려서는 안되며, 기왕에 논의된 사안들을 종단 집행부 차원에서 철저히 추진하도록 힘을 모으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또한 전통강원의 발전을 위해서는 강원 교육과정에 기본교육적 기능과 함께 수행적 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오는 26일 열리는 중앙종회에 교육관련 종법 개정안을 상정해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공청회는 별원화 이후 5년간 승가교육 체계의 제도적인 틀을 다지기 위해 노력해 온 교육원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각종 교육제도가 교육현장에서는 시행되지 않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점검, 개선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강원 관계자 및 학인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대중공의적 성격도 가미한 공청회였다.

이날 공청회에서 화엄학림 강사 원철스님은 '승가대학의 현황과 발전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종단 백년대계인 교육문제는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승가대학령 개정에 있어 교단과 문중, 개인의 아해관계가 상출될 때는 교단의 논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반면 송광사 강주 지운스님은 '전통을 중심으로 본 승가대학 발전대안'이란 주제발표에서 "출가정신 속에서 강원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발심과 신심을 일으키고 바로잡는 강의와 지혜를 증장시키는 수행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해 교육종책의 전통 강원교육과의 조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종회 교육분과위원회 간사인 향적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종회의원 현응, 교육원 교육부장 계성, 화엄학림 운영위원장 도법, 화엄사 주지 종걸, 해인사 강주 지오, 쌍계사 총무 법광, 전국전통강원학인연합 대표 덕암스님 등 8명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주요 토론내용이다.

■ 도법스님=종단 교육문제의 해결을 위해 교구 전체 예산중 일부분을 교육예산으로 확보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승가 교육개혁이 헛구호로 끝나지 않도록 교육관련 종법 개정에 종회의원들이 노력해야 한다.

■ 계성스님=강원 학인들의 면학 분위기가 좋지 않고 교수를 우습게 아는 풍토가 만연되어 있다. 사미니 강원 전부와 백양사 범어사 불국사 등 일부 사미 강원에서 시행중인 사미·사미니 의제를 강력하게 시행해 승풍을 진작시켜야 한다.

■ 종걸스님=장학금·강사료가 강원발전의 전부가 아니다. 대중공양, 예불, 기도를 함께 하는 가운데 참다운 교육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 지오스님=강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질적인 성장을 위해 졸업자격고시를 실시해야 한다. 불교사, 외국어 등 외전 과목을 늘리는 등 교육방법도 개선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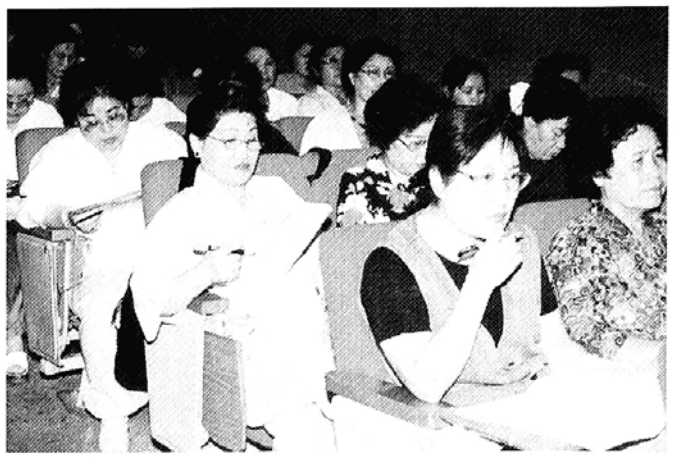
■ 현응스님=중앙승가대, 동국대와의 관계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문답식 논강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학인 정원이 30명선은 유지돼야 한다.

■ 법광스님=강원 학인이 20명 정도라도 교구본사 지원이 충분할 경우 질좋은 교육을 할 수 있다. 하한선을 10명으로 두고 자연도태 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조계종 승가대학(강원) 발전을 위한 공청회에서 교육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상출될때는 교단의 논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사 재정보고회에 참석한 신도단체 임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보고를 듣고 있다.

정재 공개운영 시발점

조계사 상반기 재정 보고회 '관심'

前주지 등 250억 횡령혐의 고소

조계사(주지대행 지홍)가 13일 문화교육관에서 신행단체 임원총회를 열어 상반기 재정운용에 대한 보고회를 가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는 올 상반기 6개월 동안의 재정결산 및 불사보고를 하고, 전 주지 현근스님 등 15명을 횡령혐의로 사법당국에 고소한 것에 대해 신도들의 이해를 구했다.

종무소측의 보고서에 따르면, 공인회계사에 의뢰해 87~98년까지의 재정자료를 감사했다. 감사결과 전 주지 현근스님 개인명의의 통장 2개와 조계사 명의 통장 2개 등 4개의 조계사 신협 정기예탁금 통장과 장부와의 차액이 2백53억여원이며, 최소한 이 액수의 공금을 현근스님 등이 횡령한 혐의가 짙다고 밝혔다.

조계사가 재정현황을 공개하기까지는 만불전 건립과 관련한 신도들의 항의가 크게 작용했다. 만불전 건립을 위해 전 주지스님이 92년부터 지난해까지 35억원에 이르는 시주금을 모았으나, 만불전 건립은 진행되지 않았다. 몇몇 신도들이 종무소에 시주금의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이는 출·재가 사이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종무소는 상황파악에 나섰고, 최소한 2백53억원의 사찰공금이 증발했음을 발견했다. 만불전 시주금의 상당액과 96년 현대로부터 받은 대웅전 보수비 41억원의 행방도 묘연했다.

이같은 사실을 신도들에게 밝혀 이해를 구하는 방법을 택했다. 시주금 증발 책임을 현재의 소임자가 뒤집어 쓸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사찰재정공개의 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도도 작용했다. 종무소의 한 소임자는 "자칫 지난 해 조계종사태로 불교의 위신이 추락했는데, 이번에는 횡령사건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지 모른다는 우려로 망설이기도 했다. 그러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그간의 고민을 털어놨다.

몇 신도의 불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반응이 좋았다. 김보현심 신도회장은 "신도들도 조계사 살림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변화를 위한 토대로 삼아 사찰재정 공개의 전형을 만드는 것으로 회향하자"고 말했다.

조계사는 이후 살림내역을 신도들에게 밝히는 것은 물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결산공고 등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매년 주요사찰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감사의 투명성 확보, 종헌과 사찰운영위원회법에 의무조항으로 규정된 사찰운영위원회 구성을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사찰환경보존국 상설 환경분쟁 해결"

사찰환경위 조계종에 제안

사찰 수행환경 파괴를 예방하고 분쟁을 유리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무원산하에 상설전문기구를 설치하고 전통사찰보호구역의 범위확대를 위한 대체입법의 추진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계종 총무원산하 사찰환경보존위원회(위원장 성조스님)는 7월10일부터 1박2일간 해인사 홍제암에서 사찰환경보존위원회 2차 정기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해인사 직지사 율주 석남사 선산 원각사 율산 청룡암등에서 환경분쟁이 진행되고 있으나 종단에 전담부서가 없는데다 환경운동도 열악하다고 진단, 이의 해결을 위한 종단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는 지방의 경우 주지스님들이 임기나 강원의 학기가 끝나면 환경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데다 전문성이 떨어져 환경분쟁에 늘 뒷북만 칠 수밖에 없고 환경문제에 대한 노하우도 축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가야산골프장 및 59호선 도로건설반대 해인총림대책위는 총무원법 개정시안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개정시안에 따르면 사회부내에 과장 1명과 전문가 2명 이상을 두는 사찰환경보존국을 따로 신설해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모임은 또 건축법 8조4항 폐지에 따른 사찰환경침해에 대비해 총무원에서는 사회부와 기획실, 문화부 인원들로 대책팀을 구성, 전통사찰보호구역의 범위확대를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모임에서는 사회부 환경분야 하반기 세부계획도 발표돼 주목을 받았다. 세부계획에 따르면 년1회 사찰환경보존지침서를 발간하고 사찰환경보존위원회를 법률분과와 분쟁조사과, 정책분과와 교육분과등의 4개분과로 나누어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8~9월중으로 환경친화적 사찰의 모델개발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날 모임에는 석남사주지 영운스님, 해인사교무국장 성일스님, 해인골프장 대책위 법보스님, 이영경 동국대교수, 이병인 밀양산업대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윤호 기자(yhlee@buddhapia.com)

목어

불자다운 휴가

금년에는 휴가를 떠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전에 없이 많다고 한다. 하지만 공휴일만 되면 예나 다름없이 산 좋고 물 좋은 곳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먹고사는 일에 쪼들리다 모처럼 시간을 내어 산 좋고 물 좋은 곳을 찾는 것을 누가 뭐라 하랴마는 사람들이 왔다간 곳마다 흔적이 너무 오래 남으니 문제다.

금수강산이란 말은 사전에서나 찾을 수 있는 말이요, 지금의 우리 국토는 육지고 바다고 가릴 것 없이 버려진 쓰레기로 오물강산이 되고 있다. 산이고 강이고 사람들의 발길이 닿기만 하면 그날부터 버리고 간 쓰레기로 몸살을 앓기 시작한다.

'나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작은 생각들이 결국 지금 우리가 살고 또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이 좁은 국토를 망쳐놓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에 빚을 지게 마련이라지만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만큼 많은 빚을 진 이들도 역사에 없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무시당한 자연은 복수하는 법이라 하니 그 역시 인과응보임에 틀림없고 보면 이 강산을 더럽힌 그 과보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두려움이 앞선다. 지금 우리가 받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의 후손들이 당할 것이니 못난 조상둔 덕에 모진 재앙을 당한다고 욕할 것이 뻔하다.

부처님은 〈잡보상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무 밑 그늘에서 잠시 쉬었거든 가지나 잎사귀 꽃과 열매를 헐지 말라. 은혜를 입고 악으로 갚는 이에겐 좋은 결과란 있을 수 없고 은혜를 등진 사람에게 선은 생기지도 않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 그대로가 청정한 불국토라고 하였고 중생세계 그대로가 부처의 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봄자가 강산을 더럽히는 것은 불국토를 더럽히는 것이요, 부처님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나 다를 것이 없다. 절에 가서 열심히 불공을 하였더라도 부처님 몸을 더럽히고 부처님 땅을 더럽혔다면 무슨 공덕이 생기겠는가.

금년 휴가를 떠나는 불자들은 더이상 국토에 빚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요, 불국토를 더럽히는 어리석은 짓은 이제 그만해야 할 것이다.

성열(강남포교원장·본지 논설위원)

행복 지수를 높여가는 출판사 현암사 서울 마포구 아현3동 627-5 전화 365-5051~6 팩스 313-2729 하이텔 ID hyunam 천리안 lawhyun E-mail lawhyun@chollian.net 홈페이지 http://www.sophie.co.kr *전화주시면 도서목록을 보내드리고 회원으로 등록해 드립니다

영혼을 울리는 샘물 같은 고전

장자 오강남 풀이 / 값 12,000원
『장자』의 심오한 세계를 간결하고 명쾌하게 해설한 풀이서.

莊子 안동림 역주 / 값 25,000원
인간이 숙명적으로 짊어진 부자유의 질곡에서 해탈을 추구하는 장자철학. 전편 완역, 상세한 주석!

도덕경 노자 원전·오강남 풀이 / 값 9,800원
시처럼 잠언처럼 들려주는 81편의 짤막한 글 속에 진정으로 자기를 완성하는 道의 길, 진리의 길을 담고 있다.

퇴계선집 이황 지음·윤사순 역주 / 값 15,000원
성리학의 최고봉인 퇴계의 인간과 사상의 전모를 밝히는 국학서.
『自省錄』, 『論四端七情書』, 『聖學十圖』 수록!

명심보감 안병묵 외 해설 / 값 9,800원
병에 따라 약을 처방하여 주듯이 생활의 정곡을 찌르는 말을 조목조목 담고 있는 修身書!

벽암록 신간
안동림 역주 / 값 18,000원
역대 고승들의 기상천외한 일화를 화두로 한 선문(禪門) 최고의 책!
불립문자(不立文字)의 세계관을 장대한 스케일과 풍부한 문학적 상징을 통해 여실히 보여 준다.
유려한 번역, 상세한 주석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채근담 홍자성 지음·조지훈 역주 / 값 9,800원
자연과 마음, 수신과 성찰, 세상 사는 법도에 관한 금과옥조의 지혜를 담은 책.

唐詩 이원섭 역해 / 값12,000원
당 비파의 울림처럼 우리 가슴을 애틋하게 적시는 唐詩의 운율과 뜻을 우아하고 유려한 우리말로 재현한 詩書의 완벽한 고전!

불교대전 만해 한용운 편찬 / 이원섭 역주 / 값 19,500원
만해 한용운 선생이 편찬한 불교 경전의 정수! 바닷가의 모래알만큼이나 방대하고 어려운 대장경에서 깨달음이 투철한 눈으로엄선하고 주제별로 정리하여 불교를 일목요연하게 꿰뚫어 보게 한 역작!

불교성전 석해운 옮김 / 값 9,800원 부처님의 생애, 가르침, 정진(精進), 법우(法友) 등 네 장으로 나누어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을 읽을 수 있게 한 성전.

불교 개론 마쓰야 후미오 지음 / 이원섭 옮김 / 값 6,500원 불교의 본질에 대한 명쾌한 이론서.

반야 유마경의 지혜 이시다 미즈마로 지음 / 이원섭 옮김 / 값 5,000원
공(空) 사상, 실천 이념, 사회와 인간 구제 등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한 방안을 제시.

화엄경의 세계 다마키 고시로 지음 / 이원섭 옮김 / 값 6,500원
대승불교의 웅대한 세계관과 석존의 깨달음에 이르는 안내서.

야함경 이야기 마쓰야 후미오 지음 / 이원섭 옮김 / 값 6,500원
붓다가 여러 사람과 나눈 문답과 실천적 가르침.

미란타 왕문경 이시카미 젠오 지음 / 이원섭 옮김 / 값 5,000원
그리스 왕 미란타와 승려 나가세나의 대화 기록.

열반경의 세계 다무라 요시로 지음·이원섭 옮김 / 값 5,000원
붓다의 죽음을 중심으로 그 경과를 서술하고 죽음 너머 영원의 문제를 밝힌 책.

법구경 김달진 옮김 / 값 9,800원 네 가지 苦에서의 해탈과 인류 구제를 부르짖던 붓다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모아 놓은 경전.

부처님 말씀 성열 엮음 / 값 15,000원 중생이 생활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에 관해 명쾌한 답을 내려준 아함경 이야기.

붓다 무사고지 사네아츠 지음·박경훈 옮김 / 값 9,800원 가비라 성(城)의 왕자에서 보리수 아래 고행을 거쳐 해탈, 열반, 극락에 이르기까지 붓다의 행적과 말씀을 기록한 전기. 우리와 함께 호흡하는 인간 붓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다.

"세계일화사상 널리 알릴터"

만공장학기금 추진 성해스님



근세 선불교의 중흥조 경허스님으로부터 법을 부촉받은 만공스님을 기리는 장학기금 마련을 위해 특별 전국순회 전시회 개최등 백방으로 뛰고 있는 (재)선학원 원장 성해스님. 스님은 최근 전시회 준비차 일본을 다녀오기도 했다.

"요즘 우리 사회의 혼란상은 다시 만공스님의 기백과 정신이 절실한 때라고 봅니다. 일제때도 초개와 같은 지조로 호통치던 그 삶과 사상을 젊은 이들에게 가르치고 심어주기 위해 만공장학기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만공장학기금 마련 성해스님 선서화전은 오는 11월10일부터 19일까지 백상기념관에서 열리며, 스님의 개인전으로서는 12회째가 된다.

이번 전시회에는 30년 가까운 스님의 선서화가 대작 소작으로 80여점이 선보이며, 부산 대구 등 전국순회전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작품은 '세계일화(世界一華)' 등 만공스님 법어와 게송을 담은 내용으로 대중적인 쓰임새를 강조한 것이 주류.

"만공스님은 선학원에 계시면서 해월 한암스님과 한국불교 선종을 창종하고 공동 종정을 역임하신 분으로, 20세기를 빛낸 큰스님"이라며, "선학원 원장으로서나 문중으로서 장학기금을 통해 생애를 널리 펴고자 한다"는 스님은 때마침 한국조폐공사가 만든 만공스님 기념메달도 뜻깊은 불사로 많은 불자들이 소장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밝혔다.

만공스님 장학금은 선방수좌의 정진에 보탬이 되도록 하며, 일반 대학생을 선발해 전달될 예정이다.

위영란 기자(yryui@buddhapia.com)

교차로

대원불교대학생 수계법회



월운 동국대 역경원장은 25일 오전 10시30분 대원불교 회관에서 대원불교 대학생, 신도를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호국월문사 법당 낙성증명



밀운 육군 제5797부대 법당건립추진위원장(봉선사 주지)은 21일 오후 2시 육군 7포병여단 호국월문사 군법당 낙성법회에 증명법사로 참석한다.(0346)577-8322

中 절강대학 학술회 참석



보광 동국대학교 대외협력처장 스님은 7일부터 14일까지 중국 절강대학 한국연구소 초청으로 97년 황해 땟목 탐사 성공 2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했다.

한국 차문화 연수회



용운 초의문화재단 이사장 스님은 24일부터 27일까지 충남 부여 삼정유스호스텔에서 제11차 한국 차문화 연수회를 개최한다. (02)732-2317

자양복지관 새 관장에



지홍 조계사 부주지는 최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서울 자양사회복지관 새 관장에 임명됐다.

베를린 보문사 불사차 귀국



병오 독일 베를린 보문사(통도사 독일 포교원) 주지는 5일 보문사의 확장이전 불사를 마무리짓기 위해 5일 귀국, 8월초에 재출국할 예정이다.

거제시민·공무원 특강



박완일 한국사회교육연구원 회장은 23일 오후3시 거제시 교육센터에서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강한다. 또 24일 오전11시에는 광주 향림사 법회에서 '모든 것은 변한다'는 주제로 강의한다.

법사회 법사원 하계수련



목정배 대한불교법사회 이사장(동국대 교수)은 법사회 및 법사원 불교대학 하계 수련대회를 23일부터 2일간 경남 밀양 표충사에서 실시한다. (02)499-1671

북경·상해서 정기연주회



박범훈 국립국악관현악단장은 14일 베이징과 16일 상하이에서 '아시아 오케스트라 제6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청소년 순결지키기 서약식



이근우 청담종합고등학교장은 16일 청소년들의 올바른 윤리의식 고취를 위해 '청소년 순결지키기 서약식'을 개최했다.

'자랑스런 한국인상' 대상



설산 한국불교사회봉사회 회장 스님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중앙포럼신문사와 21세기 시민포럼 연합이 주최하는 '자랑스런 한국인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설산스님은 평소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회봉사활동 등 자비행을 실천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추전서당 여름 한학강좌



김화수 추전서당 원장은 여름 방학기간동안 주역 및 명심보감, 사서삼경, 동감 등 한학강좌를 개설한다. 강의는 매주 월, 수, 금 오후 2·7시에 진행된다. (02)735-3050

'마음의 문' 등 낙성식



박찬수 목아불교박물관장은 개관 6주년을 기념, 17일 큰 말씀의 집, 마음의 문, 맞이문 낙성식을 거행했다. 행사후에는 불교방송 후원기금 마련을 위한 '이근찬 자선콘서트'도 개최했다.

이달의 PD상 수상



박상필 불교방송 PD는 16일 방송회관 21층 튜울립홀에서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제4회 이달의 PD상'을 수상했다.

인 사

동국대

서울캠퍼스 교무처장=신재호 전자공학과 교수

용주사 전통강원연합 학술회 내용

"간화선 재가자에도 적용돼야"



◇원융스님



◇쵸펠스님

전국전통강원학인연합(의장 덕암)은 16일 용주사 효행교육원에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율산 학성선원 조실 우룡스님의 법문으로 시작된 이날 학술발표회는 원융스님(해인총림 유나·사진 왼쪽)의 '간화선 수행에 대하여', 쵸펠스님(티벳)의 '티벳불교의 수행종류', 교육원 교육부장 계성스님의 '조계종 교육종책'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원융스님은 "우리 풍토에 가장 적합한 간화선 참선법은 참선납승 뿐만 아니라 일반 불자에게도 적용되는 보편적 참선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융스님은 송나라 말 대혜스님 당시의 법문이 대부분 사대부 재가신도들과의 관계에서 나왔듯이 간화선의 성립은 재가인들과의 관계속에서 성립되었기에 스님들의 전유물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통적 조사선이라는 이름아래 참선납자들에게만 국한된 고답적이고 권위적이며 폐쇄적 수행법으로 시행되어 온 간화선. 이제는 일상 일과를 수행하는 가운데 '화두를 가볍게 굴리라'는 〈서장〉의 가르침처럼 불자라면 누구나 자기의 본참공안을 결택받아서 항상 참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융스님은 "모든 사람이 간화선 수행을 통해 자기의 자성을 사무쳐 보아서 안신입명처(安身立命處)에 도달하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본분사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쵸펠스님은 "대승불교에서 발심과 육바라밀 방편만을 사용하는 바라밀승과 다양한 방편을 사용하는 금강승은 도달해야 하는 부처의 경지는 똑같으며, 단지 길을 가는 수행방법이 다를 뿐"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강승의 경우는 입문 전에 발심과 보리심에 대한 경험을 쌓고 스승의 말씀과 계율을 바탕으로 항상 본존의 법륜에 대해 일심으로 명상하여 부처의 색신을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바라밀승은 한번의 생만으로는 부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고 수많은 생을 통해서만 부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으며, 탄트라에 의지해 준비된 수행자는 이번 생에 바로 부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금강승의 특징이라 한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예술원상에 이형기·백성희씨





대한민국예술원(회장 조병화)은 12일 제44회 대한민국예술원상 수상자로 동국대 명예교수이자 시인인 이형기씨(66·사진 왼쪽), 연극영화 무용부문에 연기자인 백성희씨(74)를 각각 선정했다.

이씨는 〈절벽〉〈죽지 않는 도시〉 등 다수의 시집을 발표했고 93년에 소설 〈소가모니〉를 펴냈다. 백씨는 〈무영탑〉〈봉선화〉〈원술랑〉 등 400여편의 작품에 출연했으며 국립극단장을 역임했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만원이 주어지며, 시상식은 9월6일 예술원서 열린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언론통해 불법홍보"

부산 울산경남언론인회장 주홍식씨



"불교언론계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틀이 되었으면 합니다." 9일 창립법회를 가진 부산·울산·경남불교언론인협의회 주홍식(56·부산MBC 기획심의팀 국장) 회장의 말이다. 주회장은 "불교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우리민족 정신세계에 올바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로 언론을 통한 불법 알리기를 첫째 과제로 삼고 있다고 피력했다.

부산·울산·경남불교언론인협의회는 조만간 운영위원회를 갖고 부회장 및 기타임원을 선출하고 진주, 마산 등 경남지역의 언론인 흡수를 위한 현지법회도 마련할 예정이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500리길 걸으며 관음정진



Focus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뜨거운 햇볕, 30도를 넘는 삼복더위에도 아랑곳없이 오로지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자신을 관(觀)하며 걷는다. 천태종 금강불교대학 재학생 3백여명은 지난 12일 서울 관문사에서 시작해 5박6일 동안 장장 200km의 거리를 걸음 하나에 관세음보살, 걸음 둘에 관세음보살을 염하며 걷는 정진대회를 가졌다. 국민 대단결과 IMF경제회복을 염원하며 가진 이 걷기정진대회에는 천태종 교육부장 도원스님과 교육국장 덕혜스님이 목탁을 치며 행진을 이끌었다. 도보행진을 통해 천태수행법의 하나인 상행삼매(常行三昧)를 직접 실천하고자 한 이번 걷기정진대회는 17일 오후 3시 소백산 구인사에서 회향됐다. 이경숙 기자

하와이 대원사서 여름특강

강건기·김철 교수 9월 선무학 세미나도 참석





교수포교사로 유명한 두 교수가 해외사찰 초청으로 해외 포교에 나선다.

강건기(전북대·사진 왼쪽)와 김철(원광대)교수는 7월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하와이 대원사(주지 도현)에서 불교강의를 실시한다.

미주불교 포교를 위해 대원사가 마련한 하계불교강좌는 4주간 매주 2회 4시간의 강의와 별도의 특강으로 이뤄진다. 강건기교수는 '교리와 본질' '현대사회와 불교' '불교의 특성' '불교의 신행'을, 김철교수는 '현대인의 성향과 선' '현대인의 선호흡' '현대인의 건강과 선무도' '현대인과 선미의식' 등을 각각 맡아 강의한다.

강건기 김철교수는 대원사에 머무는 동안 동양학의 메카인 하와이대학의 현지교수들과도 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토론을 갖고 9월경 열리는 선무학회 국제세미나에서 함께 주제발표한다.

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이제는 집에서도 온 가족이 손쉽게 법회를!

가정법회

모든 불자들을 위한 가정법회 안내서

삼귀의 · 반야심경 봉독 · 5계 수지문 낭독 · 찬불가 · 성구 및 해설 · 발원문 · 사홍서원



신행활동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삶의 지침이 되고 교훈이 될만한 내용을 아함부경전에서 가려뽑은 성구와 그 의미를 드러내주는 해설.
축원이나 감사는 물론 각종 행사나 절기 등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작성된 발원문.
온 가족이 날짜나 요일을 정해놓고 혹은 특별한 날에 가정법회를 진행한다면 훌륭한 불자가정은 물론 삶의 지혜와 교훈,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학종 편저/신국판/350쪽/값 10,000원

중국과 대만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선학총서 첫 번째 권

불교와 유학

불교와 유교, 동아시아 사상계의 가장 큰 충돌, 그리고 중국화된 불교와 불교화된 유교!



불교와 유학은 장구한 역사 속에서 상호간의 투쟁, 배척, 흡수, 융합 등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 책은 바로 이 양자의 관계를 정확한 관점과 명쾌한 논리로 설명하고 있다.
즉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와 중국에서 발원한 유학이 갖는 각각의 특징, 불교의 중국화 과정에 유학이 미친 영향, 역으로 중국의 유학에 불교가 끼친 영향, 그리고 이러한 영향들의 결과 및 의의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賴永海 저 · 김진무 역/신국판/363쪽/값 12,000원

알기쉬운

한문해석법

현대 한문해석법의 완성과 반야심경에 대한 최초의 문법적 분석



불교경전 번역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

이 책은 한문의 기초부터 한시는 물론 희사에 이르기까지 한문해석을 위한 한문 문장의 구조와 문법을 총정리한 초보자를 위한 한문입문서이다. 특히 반야심경을 현대의 한문해석법에 문법적으로 적용하여 국내 최초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장분석과 해석을 시도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심재동 저/신국판/383쪽/값 12,000원

初發心自警文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게 꾸민 초심자를 위한 안내서

번역 및 자해난은 물론 원문에 토를 달고, 원문 해석의 순서와 방점을 붙여 누구나 쉽게 읽고 해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혜공 편역/신국판/136쪽/값 4,500원

1999년도 불교서적 종합목록

현재 유통되고 있는 불교서적을 총망라한 국내 유일의 종합정보지.

전 서적에 대한 내용별 분류를 시도하였으며 전체목록 색인란과 출판사별 색인란을 두어 목록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가까운 불교서점에 가시거나 운주사로 연락주시면 (우편발송비 2,000원 동봉)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번지 타운힐빌딩 ☎전화 : 3672-7181~5 팩스 : 3672-7186

"청소년 교화 앞장"

부산시 교사불자회 1돌



부산시교사불자회(회장 양원식) 1주년 기념법회가 10일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지도법사 혜총 감로사 주지, 류진수 부산불교신도회장과 회원등 3백여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 양원식 회장은 "교육 일선에 있는 교사불자들이 청소년 교화와 포교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하는 모임으로 재출발하자"고 말했다. 또 이 자리에서 교사들은 '미래의 동양이 될 청소년들이 보리심을 발할 수 있도록 포교일선에 앞장서고 정법수호를 위해 노력하자'는 내용의 실천강령을 다짐했다.

초청법사 박완일 교수는 "회원 각자가 부처님의 원력으로 교육현장에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산시 교사불자회는 해운대 오션타워 7층 여여선원내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소식지 〈교불회보〉를 발간하고 있다. 부산=천미희 기자

한일병원불자회 창립

한일병원불자회는 23일 오후7시 병원 내 강당에서 창립법회를 갖는다. 이날 법회에는 의사 간호사 등 불자 의료진과 행정직 사무원을 비롯 한전반야회, 각 병원불자회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02)3456-5784 홍기성

전문포교사 직장직능불자회 이끈다



◇전문포교사의 활동은 각 분야별 불교회를 특성화 · 전문화시키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사진은 조계종 포교사단 전문화교육 장면.

26개팀중 10개팀 활동나서
불자회 창립 · 연대모임 유도

조계종 포교사단이 전문화 조직화되고 있는 가운데 직장직능포교 전문화교육을 받은 포교사들이 직장직능 불교신행단체 활성화를 위한 첨병으로 나설 전망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6개팀 3백여 명으로 구성된 포교사단 중 포교 4분야에 속하는 직장직능포교팀은 군포교 7개팀, 경찰포교 1개팀, 교도소 포교 1개팀, 직장포교 1개 팀으로 전문적이고 세분화돼 있을 뿐만 아니라 10개 팀에 걸쳐 다수의 포교사들이 포진, 전문 포교역량을 높여가고 있다.

이미 지난해 활동을 시작한 경찰포교팀(팀장 김진흥)은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북부경찰서, 구로경찰서, 마포경찰서, 강남경찰서, 관악경찰서 등 서울지역 7개 경찰서 불자회를 결성하거나 지원하고 있는 등 두각을 보이고 있다.

직장포교팀은 20여 년 전 구청내 첫 불자회를 창립해 이목을 집중시켰던 조정봉씨(서울시 노숙자대책반)를 팀장으로 서울시청 불심회를 비롯한 서울 시 · 구청 불자회를 연합하고 지원, 포교영역을 넓혀갈 계획이다. 군 포교팀과 교도소 포교팀도 다각적인 활동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동안 포교원 주최로 열린 월례강좌와 분야별 워크숍을 통해 전문화 교육을 받은 직장직능포교팀은 포교사들이 그동안 직장직능불교신행단체의 지도법사로서 천편일률적이고 소극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불자회 창립을 돕거나 연대모임을 결성하는 촉매제 역할을 담당, 직장직능법회 활성화는 물론 직장직능불자회 조직구도를 직접 그려나갈 예정이다.

또 독립적으로 활동하던 포교사들이 직능별로 팀워크(team work)를 구성, 정보를 교류하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동안 개별적인 활동에 익숙해 있던 포교사들이 팀의 일원으로서 팀 활동에 얼마나 솔선수범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경찰포교팀 현재명 포교사는 "포교사를 필요로 하는 포교현장에 전문 능력과 도덕적 품성을 갖춘 포교사들이 배치돼 직장직능불자회를 지원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전국 금융단 조계사서 철야정진



전국금융단불교회(회장 김윤하) 수련회가 10일~11일 양일간 조계사에서 열렸다. 전국 9개 은행과 농 · 수협, 증권거래소, 금융결제원, 금융감독원 불자회가 참여한 이번 수련회는 입재식에 이어 화암스님(조계종 포교연구실장)의 천수경 강의, 108배 정진, 〈신묘장구대다라니〉 108 독송, 예불, 수계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사진〉.

김윤하 회장은 "IMF국면이 어느 정도 수습되긴 했지만 금융가엔 아직도 세월이 수상한 실정이다"며 "도심의 한복판에서 진행되는 철야정진을 통해 불자금융인들이 심신을 여유롭게 하고 신심을 다져 업무에 충실하고 동료들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계사 지홍스님(조계사 부주지)은 연비를 하기에 앞서 "불자가 지녀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계가 불살생(不殺生), 불투도(不偸盜), 불사음(不邪淫), 불망어(不妄語), 불음주(不飮酒) 계다"고 말하고 "계를 받아 지니는 것 못지 않게 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그 의미가 크고 복덕의 씨앗이 된다"며 끊임없는 정진을 당부했다. (02)398-64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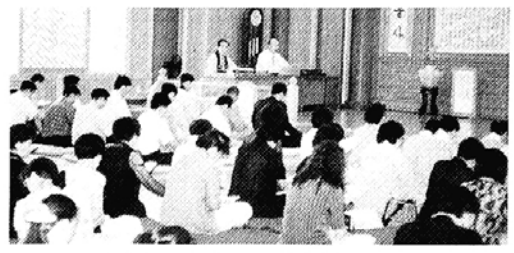
도필선 기자



한국은행불자회 사경법회

"주옥같은 경전내용을 몸소 써서 지니는 공덕을 느껴보시지 않으시렵니까?"

한국은행불자회(회장 안구용)가 9일 본관 시청각실에서 1시간여동안 점심 식사시간을 이용해 사경법회를 가졌다. 20여명의 회원들은 〈반야심경〉을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써내려 가며 바쁜 업무에 지친 심신을 가다듬었다. 사진=고영배 기자



진각종 해탈절 기념불사 봉행

진각종(통리원장 성초)은 우란분절을 맞아 15일 오전 10시 탑주심인당을 비롯한 전국의 각 심인당에서 해탈절 기념불사를 봉행했다.

신교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해탈절 불사는 〈우란분경〉의 가르침에 따라 각자의 정성으로 우란분을 지어 부모님과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하면서 자기수행의 자세를 바로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경봉장학회 장학금 2500만원 전달

극락암(주지 명정)은 10일 경봉스님 열반 17주기를 맞아 경봉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경봉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89년 설립된 경봉장학회는 보광선원, 극락선원, 해외유학 스님, 통도사 승가대, 동국대 등 37명의 학인 스님들에게 2천5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날 행사는 원로의원 종산스님, 통도사 부방장 초우스님, 종회 사무처장 영배스님을 비롯한 스님과 신도 2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성료됐다.



'아침을 여는 집' 실상사서 실직자 수련

경불련 산하 노숙자 수용시설 '아침을 여는 집'은 7일~10일까지 실상사에서 실직자를 위한 '참 나를 찾아서'라는 수행프로그램을 열었다. 10여 명의 실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3박4일간 고된 농사일과 농약과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생명 농업'을 배우며 그동안 등떨어져 있던 삶의 의미를 일깨웠다. '삶의 길, 생명의 길'을 주제로 한 도법스님(실상사 주지)의 법문도 있었다.



삼화불교대학 하기방학 수련회

삼화불교대학(학장 혜인스님)은 14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 안성 서광사에서 삼화가족을 위한 하기방학 수련대회를 가졌다. 3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수련대회에는 '21세기를 준비하는 젊은 불자의 자세'에 대한 강의와 〈금강경〉 사경, 참선정진, 캠프화이어 등으로 진행됐다. 혜인스님은 "원생들에게 심신을 다스리고 신심을 다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탐방 동아대학병원 연불회

사찰서 무료진료 '자비행'



◇동아대학병원 연불회가 지난 5월 화엄사에서 법회를 갖는 모습.

1993년 창립…회원 80명
매월 환자들과 함께 법회

병원불자회로서는 드물게 사찰과 연계 무료진료봉사를 벌이는 모임이 있다. 동아대학병원 연불회(부회장 박옥규)는 8월15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스님, 직원은 물론 그곳을 찾은 신도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벌인다. 단발성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사로 계획중이다.

93년 4월 창립때만 해도 이런 대규모 봉사는 생각지도 못했다. 그러나 회원이 한명 두명 늘어나면서 현재 80여명의 회원들은 부처님 법을 실천하는데 힘을 모아가며 큰 일도 서슴지 않는다. 자비를 실천하는 일이라면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원만히 진행될 것임을 믿기에 걱정이 없다.

연불회는 격월 사찰순례 법회와 참선모임, 불교교리 무료교육실시, 여름수련회 등을 통해 신행을 다져오고 있다. 사찰 순례법회는 일반인들의 동참의 장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매월 법사를 초청, 병원 5층 대강당에서 환자와 보호자, 회원을 대상으로 법회를 열어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연불회는 앞으로 회원 배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번 사찰과의 연계 의료봉사활동에 직원들의 동참을 유도, 자연스럽게 회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연불회는 개인적인 신행에 충실하면서도 조직활동에 약한 불자들의 특성을 탈피, 보다 조직적인 결속력으로 대중들에게 다가설 방침이다.

신현필 총무간사는 "병원은 생과 사가 공존하는 곳으로 불법이 더욱 절실한 곳"이라며 "병고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연불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불회는 8월 사찰 의료봉사를 앞두고 의료 기기와 의약품 및 봉사인력 확보 등을 위해 눈코 뜰 새가 없어 더위도 잊을 정도다.

부산=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스님, 영가는 어떻게 천도합니까?"

우룡큰스님의

영 가 천 도

4×6판 / 160면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 · 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우룡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백중 · 49재 법보시용으로 가장 적합합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해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우룡큰스님 법문집

불교신행의 주춧돌

불교! 어떻게 믿고 실천해야 합니까?

일평생을 수행과 중생교화를 위해 살아오신
우룡큰스님의 불교신행 지침서.
신행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피하고 올바른
정진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과
신행방법 등을
자상한 문체와 일화들로 알기 쉽게 엮었습니다.

Ⅰ. 지성(至誠)으로 살자
Ⅱ. 불자의 살림살이
Ⅲ. 불자의 축원
Ⅳ. 불자의 기도
Ⅴ. 일체고액을 벗어나는 길
Ⅵ. 불교신행의 주춧돌

신국판 / 240면 / 값 5,000원

전화 : 587-6612 · 팩스 : 586-9078

월간 『법공양』을 보셨습니까?



월간 『법공양』은 불자들의 바른 신행생활을 위해 매월 1회 발간하는 64쪽의 조그마한 잡지입니다.

불자들의 신심을 북돋우어 주는 큰스님들의 비중있는 법문과 신행생활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김현준 원장의 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1년 구독회비는 1만원이며 법보시를 원하는 분을 운영위원으로도 모시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월간 『법공양』을 보지 못하셨다면 지금 신청하십시오. 이 한 권의 잡지가 틀림없이 신행생활의 기초를 다져주고 기쁨을 선사할 것입니다.

회원가입 및 문의 : ☎ (02) 587~6613

불교신행연구원

이렇게 들었다

수행의 자세

"깊은 샘물이 맑게 트인것처럼"

황량한 도시를 떠나 깊은 산사를 찾은 불자들이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를 화두 삼아 가부좌를 틀고 앉는다. 무념, 무상, 무아의 세계를 찾아가는 짧지만 긴 여행. 여름수련회가 전국의 주요 사찰에서 일제히 열리고 있다.

최근 들어 매년 여름이면 펼쳐지는 여름수련회는 시간에 쫓기고, 물질에 쫓기며 존재이유를 잃어버린 현대인들이 1년에 꼭 한번은 거쳐가는 자기탐구의 시간이다. 올 여름에도 여름수련회에서 자신의 진면목을 찾아갈 많은 사람들이 수련회에 임하는 동안 명심해야 할 수행의 자세를 경전을 통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저 뱃사공은 배를 손보고 활장이는 뿔을 다루며 교묘한 목수는 나무를 다루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몸을 다룬다. 마치 저 깊은 샘물이 속속들이 맑게 트인 것처럼 법을 듣는 마음 그와 같으면 지혜로운 사람은 기뻐하나니. 〈출요경 수품〉

▨지혜의 완성이란 무엇인가? 수보리야, 구도자는 전지자의 지혜에 회향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온갖 대상에게 집착하지 않고 그들의 본성(本性)이 무엇인가를 관찰한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이 가르친다. 그것은 그가 무소득(無所得)의 마음에 의한 바이다. 이를 구도자의 지혜의 완성이라고 일컫는다. 〈반야경〉

▨나는 차라리 지(智)를 지키다 죽을지언정 지가 없는 자로서 살지는 않겠다. 이것은 마치 의용인(義勇人)이 차라리 승리를 결단하기 위하여 죽을지언정 겁약자의 삶을 구하여 남에게 멸시를 당하게 되는 자는 되지 않는 것과 같다. 〈대장엄경〉

▨평상시의 마음도 특별한 경우를 만나면 흐트러진다. 특별한 경우에도 평상시의 마음을 가지도록 배워야 한다. 〈중아함경〉

▨배우는 이의 경지는 여래의 경지와 다른 것이다. 왜냐하면 배우는 이의 경지는 다섯 가지 덮개를 끊고 머무르는 것이고, 여래의 경지는 다섯가지 덮개를 끊고 다시는 자라나지 않게 뿌리까지 끊는 것이다. 〈가마경〉

▨거친 선정을 닦는 것은 거치른 말(馬)이 할일과 하지 않을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곡식만을 생각하는 것과 같다. 그런 사람은 탐욕의 번뇌에 따라 선정을 구한다. 〈잡아함경〉

▨홀로 앉아 선정을 버리지 말고 모든 일에 늘 이치와 법도를 지켜서 행동하며 살아가는데 있어 우환을 똑똑히 알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경집〉

▨앉아 있다고 해서 좌선이 될 수 없다. 삼계에 있으면서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좌선이라 한다. 무심한 가운데 행동하는 것을 좌선이라 한다.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에 드는 것을 좌선이라 한다. 〈유마경〉

▨출가자들은 탐욕을 버리고 악한 법을 여의며 각(覺)과 관(觀)으로써 욕계의 악을 떠나는 데서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초선(初禪)을 얻는다. 〈중아함경〉

▨몸을 절제하고 말을 삼가하고, 그 마음을 거두고, 화내는 마음을 버려야 하니, 도를 행함에는 인욕이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 〈법구경〉

▨항상 자기 몸 제어하기를 달리는 말 붙잡듯 하고, 스스로 자기를 잘 단속하여 괴로움의 근본 끊기를 생각하라. 〈출요경 화품〉

▨집에 있거나 집을 나와 도를 배우거나 바른 행을 행하면, 나는 그를 칭찬할 것이다. 바른 행을 행하는 자라면 어디에 있더라도 법다움을 알기 때문이다. 〈중아함경〉

독자의 소리

독자여러분의 글·사진·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보낼 곳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천리안 : aeum ·하이텔 : 34713

종교채널 의무전송해야

정부 여당이 이번 국회에 상정키로 한 통합방송법안에 케이블TV 종교채널을 의무 전송에서 제외키로 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정부가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케이블TV업계의 새 활로를 모색하고자 4~5개의 채널을 묶어 편성하는 채널티어링제를 실시하려는 것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국민의 정서와 삶의 지표를 제시해주는 공익성 높은 프로그램의 제작으로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종교방송이 시청자들에 의해서 선택돼야 한다면 거센 상업 방송의 물결에 종교방송은 도태되고 말 것이다. 또 이번 조치는 국가가 앞장서서 종교가 갖는 순기능을 부정하는 셈이 되기도 한다.

법 개정 관련자들은 신중히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해 상업적인 편협된 판단에서 벗어나 진정 국민의 정서와 건강한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종교채널의 의무 전송을 관철시켜야 한다. 김주홍〈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원불교 종단협 가입 찬성

원불교의 종단협의회 가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종단의 이익과 관련시켜 논의되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사회의 집단간 계층간 지역간 갈등과 반목이 사회발전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원불교의 종단협 가입 추진은 화합과 화해 공존의 모델을 우리 사회에 제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불교의 사회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계기로도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불교쪽에서는 '원불교가 불교냐'는 불자들의 의구심을 풀어주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김장오〈서울 흑석1동〉

고승행장 신문에 소개를

얼마전 20세기를 대표하는 근세고승 여덟분의 기념메달세트를 집으로 모셨다. 모시고 보니 너무나 뿌듯하다. 그러나 근세불교계에 유명한 고승이라는 것만 알지 그 스님들에 대해 자세히 아는 것이 너무나 없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그래서 스님들의 행장을 현대불교신문에서 자세히 소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큰스님들에 대한 책들이 서점에는 많이 나와 있다. 하지만 신문에서 스님의 경력이나 수행에 얽힌 일화 등을 알려준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또 여름휴가철인데 고승들이 머무르셨던 사찰을 가는 길과 함께 그 사찰들과 어떠한 인연을 맺으셨는지 소개해 준다면 더 많은 불자들이 스님의 행적을 따르며 불법을 되새기는 휴가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태호〈경기도 성남시〉

죽자 詩

스님에게

"마하반야바라밀"
대도에 들어선 임
무명을 밝히는 임
생명의 실상!
우주의 진리!
외로운 구도의 길
부처님 진리의 길
평생을 다 바치고
평생을 다 버리고
홀로서 가는 임
임께서 가는 길
삼배를 올리옵니다.

"마하반야바라밀"
세상 낙(樂) 다 버리고
대도에 들어선 그 날 그 서원.
봄 언덕에 수액을 빨아올리는 나무처럼
저 언덕, 피안을 향해 정진 정진의 스님.
동진시절 부모품을 떠나
파노라마처럼 스쳐가는 속세의 인연
대추나무에 연걸리듯 얽히고 설킨 연줄
툭-두 끊어버리고
구도의 등불 되시사
부처님 법문 드날리사
향기처럼 바람따라
산천에 드날리시네
법계에 드날리시네

정성수〈시인·서울구치소 불심회〉

목탁소리

'불교의 힘' 키우자

21세기를 예언하는 학자들은 하나같이 문화라는 단어에 무게를 싣는데 주저함이 없다. 유민재단의 초청으로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세계화와 문화'를 주제로 강연한 세계적 석학 새뮤얼 헌팅턴교수(미 하버드대)도 "세계화가 가속화될 수록 각 지역 문화의 정체성은 더욱 분명해질 것"이라며 "21세기의 정치·경제·사회는 문화의 틀 속에서 조정·재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세기가 문화의 세기가 되리라는 예상은 누구나 하고있지만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인 〈문명의 충돌〉을 쓴 석학의 말이기에 한층 무게를 담고 다가온다.

그러나 그는 "한국경제 지표가 상승할 때, 기독교 교세 또한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데 주목한다"고 말했다.

오 종 욱 〈취재2부 기자〉

헌팅턴 박사의 이같은 논리가 한국의 역사와 민족의 심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불교에 대해 잘 모르고 한 소리라고 치지도외할 수만은 없다고 본다. 1천6백년 역사를 지닌 불교가 대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최근에 들어서이고 또 새로운 세기를 이끌어갈 준비와 노력을 해오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기 때문이다.

헌팅턴 교수는 또 문명간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와 같이 다종교사회에서는 종교간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신앙계〉 잡지 기고문의 예를 보는 것처럼 타종교인의 불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씻어줄 노력을 교리적으로 수승한 불교가 먼저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한국의 불교계는 '전통성'뿐만 아니라 '힘'도 있어야 한다는 헌팅턴 교수의 지적에 관심을 갖고 21세기 새로운 가치관으로서의 불교의 가능성을 적극 연구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gobaoou@buddhapia.com)

김동일 기독교 장로님께

목.소.리



송위지
한국외국어대 교수

김동일 기독교 장로님께

지난 수년 동안 우리 한국인은 일부 독실한 장로님들 덕분에 아주 많은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한 분은 진짜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장로 대통령으로 국민들이 그에게 나라를 맡겼더니 결국은 나라를 부도내고 지탄을 받고 말았습니다. 한 분 모 보험회사를 운영하는 그 장로님은 무슨 선교회의 후원회장을 지낼 정도로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돈을 몰래 빼돌리는 범죄를 저질렀다가 구속되어서 지내던중 아내를 시켜 소위 고급옷 로비사건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또 있어요. 귀하와 같은 교회에서 안수 집사를 하던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인 어떤 이는 백화점을 운영했는데, 위에다 무거운 것을 올려놓으면 건물이 무너진다는 당연한 상식을 무시하고 돈 버는 것에만 혈안이 되다가 그만 백화점이 무너져서 500명이 넘는 사람이 죽는 참사를 저지르고 지금은 교도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장로님!

나는 장로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장로님 같은 분은 분명 제도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장로님이 '라마다경'이라는, 불자들조차 생소한 경전을 인용한 것도 기가 막히지만 '하시야소래(何時耶蘇來) 오도무유등(吾道無油燈)'을 '언제라도 야소(예수)가 이땅에 오시면 내가 깨달은 도는 기름이 없는 등불'이라고, 아무리 제멋대로 번역했다지만 기독교인 입맛에 맞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그런 글을 그래도 역사깊은 〈신앙계〉라는 잡지에 버젓이 기고했다니 놀랍기만 합니다.

지난 백년동안 장로님이 믿는 종교는 부자 나라들의 후원에 힘입어 우리 나라에서 아주 눈부신 성장을 했다는 것은 다 아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로님께서 나가시는 교회가 양적으로는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었지요. 그런데 장로님이 믿는 종교가 우리 나라에서 그렇게 성장했는데도 이 사회는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죠? 교회가는 사람보다는 진리를 찾아 절로 가는 사람이 여전히 많은 것을 보고는 스스로 깊은 고뇌와 한계를 절감하신 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그 한계를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고 그런 얼토당토않은 글을 쓰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겠지요. 그것이 긍극에 가서는 예수님을 할퀴는 아주 못된 짓이라는 것을 모른 채 말입니다. 장로님의 논리대로라면 예수님의 성스러운 제자인 '베드로 성인'을 베드가 침대니까 '침대로'라고 불러도 된다는 말입니다. 부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십시오. 당신처럼 어리석은 이는 아무리 예수님이라 해도 도저히 구원해 주실 수는 없으십니다.

내 이제부터 당신이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장로님, 용기를 가지고 참진리를 찾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혈병 어린이에 치료비를…

현대불교신문 독자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6월 25일 인천 길병원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입원중인 박종혁군(서울 금천구 안천초등학교 1학년)을 도와주세요. 종혁이는 얼마전 부모의 사업실패로 부모와 헤어져 외할머니와 함께 생활해 오던 중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2차 항암제를 투여받고 있는데 어린나이에도 잘 참고 견디고 있지만 엄청난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치료를 포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종혁이는 자기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아는지 죽으면 할머니와 같이 손잡고 다니던 산길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해 주위의 눈시울을 붉히게 합니다. 치료비가 없어서 어린 생명을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제발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셔서 종혁이를 살려 주십시오. 저는 종혁이를 잘 아는 이웃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현대불교신문을 통해 도움을 청합니다. 연락처는 인천 길병원 1023호(032-460-3114)입니다. 부디 불자여러분께서 자비심을 내시어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무상심〈경기도 안양시 석수 3동〉

전통식품지정업체

0598-945-0075~7
심부농신
경남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63

새로운차, 꼭 드셔야 할 차
귀한분께 권해드리고 싶은...

황토삼백초


신비의 황토삼백초

황토삼백초와 함께 몸도, 마음도 맑아진다.
- 황토삼백초차,신농차-



신비의 약용식물 황토삼백초

예로부터 본초강목, 증약대사전, 동의보감 등에 놀라운 효능이 전해 왔지만 희귀식물로 특정지역에서만 자생되어 일반인에게 거의 공개되지 않았던 소중한 약용식물 황토삼백초' 이제 손쉽게 만나 실 수 있습니다.
국내최초로 심부농산 김봉서 선생이 거창의 청정지역 황토에서 무농약, 유기농으로 대량재배·가공식 고급차로 개발하였습니다.

몸과 정신의 기를 맑게 정화시켜주는 황토삼백초차, 신농차

- 강력한 이뇨작용으로 몸속의 노폐물을 제거해주며 해독작용. • 은몸이 정화되어 면역력 증강 작용
- 피를 맑게하고 맑은 피를 온몸에 잘 순환시켜주며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작용
- 위장기능을 튼튼히 하여 속을 편하게 하고 피부에 탄력을 주는 작용



이런분들이 드시면 좋습니다.

- 차를 자주 드시는 분 • 매사에 의욕이 없거나 늘상 피곤 하시는 분
- 소화가 안되고 속이 거북하거나, 편치 않은 분
- 머리가 개운치 않고 항시 무겁운 분 • 피부미용과 여성질환으로 고생 하시는 분 • 변비축변에 시달리시는 분 • 식수공해가 염려되시는 분 • 몸이 계속적으로 안좋으신 분

특 징

- 뇌세포 증식 및 기억력 증진과 치매에 관여하는 콜린과 페닐에타노이드 배당체가 들어 있습니다.
- 장기능을 활성화 해주는 천연 올리고당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 피를 맑게하고 막힌 혈관을 열어주어 피의 순환을 돕고, 손상된 혈관 치유에 도움을 주고, 과산화지질 조직세포 생성 억제로 항암, 노화 방지에 영향을 미치고, 해독과 이뇨작용에 좋은 프리본계 물질과 수용성 탄닌, 루친등의 물질등이 들어 있습니다.
- 희귀미네랄인 게르마늄과 천연이피노산인 아스파탄산, 글루타민산, 트레오닌등이 들어 있습니다.



이용법

- 온가족이 일상차나 숭늉처럼 드시거나 손님접대용으로 편히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선물용으로 이용하면 좋습니다.
- 참고문헌 : 조규형 편저 "삼백초건강법"



불교신도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위한

전국 불교지도자 하계 수련대회 공고

불국정토 구현을 위한 재가 불교지도자들의 노력은 많지만
오늘의 시대에 부흥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교신도운동의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와 전국불교지도자
여러분을 모시고 하계수련대회를 함께 공고하오니 지도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일 시 : 1999년 8월 10일(화) 15:00 ~ 11일(수) 11:00 (1박2일)
◐ 장 소 : 대전 유스호스텔 (전화 042-822-9591)
◐ 참 가 비 : 삼만원(₩30,000) 참가비는 미리 접수해야 함.
◐ 참가대상 : - 일반신행단체 및 직능단체 지도자
- 본회 시도·시군지부 임원 및 회원
- 일반포교사 및 본회출신 전법사
- 기타 희망자
◐ 접 수 처 : 사무국 TEL 732-7272~4 FAX732-7275

행사내용

●제 1부 세미나
⊙ 대주제 : 불교신도운동의 새로운 방향모색 주제발표자 : 정병조 교수(동국대학교 전 부총장)
⊙ 발 제 : 신도운동과 자율 발 표 자 : 황진수 교수(교수불자회 사무총장)
⊙ 발 제 : 신도운동과 조직 발 표 자 : 장기표(新문명 정책 연구원장)
⊙ 발 제 : 신도운동과 포교 발 표 자 : 한정섭 법사(금강선원 이사장)

●제2부 대토론회
⊙ 특 강 : 불교 교양대학을 통한 포교활동의실례 · 발표자 : 이하우 학장(부산불교교육대학)
⊙ 토론방법 : 세미나 주제에 의한 참가자 전원 5분 발언 대토론.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신도회**

회 장 선 진 규

"에밀레종 다시 걸어야 신비의 소리 나온다"

배명진교수, 도플러 효과 연구서 주장
경주박물관측 "맥놀이현상 이상없다"

국립경주박물관의 성덕대왕신종(일명 에밀레종·국보29호)이 잘못 걸려있어 끊어질 듯 이어지는 맥놀이 현상 즉, 신비의 소리가 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숭실대 배명진교수(전자공학부)는 "맥놀이 현상은 종의 좌우 흔들림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현재의 성덕대왕신종은 보관에만 치중했을 뿐, 맥놀이 현상을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1년여동안 성덕대왕신종의 맥놀이 현상의 원인을 연구해온 배교수는 "맥놀이 현상은 1500년경 갈릴레이가 발견한 '진자의 등시성'과 1842년 밝혀진 '도플러 효과'에서 이 현상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며 "신라인들이 두 효과를 성덕대왕신종 주조에 응용했다는 것은 당시의 높은 과학수준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진자의 등시성 현상이란 실에 매달린 추가 한 번 왕복하는데 걸리는 주기는 추의 무게나 움직이는 진폭에 관계없이 그 길이에만 관계하는 것으로 흔히 시계추가 이 원리를 이용한다. 또 도플러 효과란 불자동차처럼 소리를 내는 물체가 듣는 이에게 가까워질수록 서서히 크게 들리다가 지나치면 소리가 급격히 작아지는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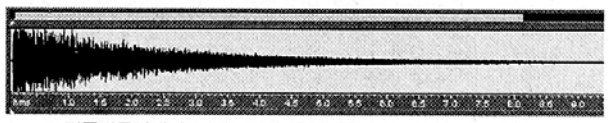
즉 매단 종을 치게 되면 종은 시계추 처럼 좌우로 흔들리고(진자의 등시성 현상), 듣는 위치에 따라 맥놀이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데 이는 멀리서 지나치는 불자동차의 끊어질 듯 이어지는 소리(도플러 효과)와 같다는 것이다.

배교수는 "11분의 1로 축소한 성덕대왕신종 모형종으로 시험한 결과, 맥놀이 주기는 종을 좌우로 흔드는 주기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진자의 등시성 현상과 도플러 효과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또 "신종 본래 음을 듣기 위해서는 타종시 종의 흔들림이 가장 중요하다는게 밝혀진 만큼 지금의 성덕대왕신종을 다시 걸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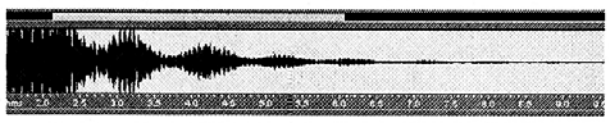
배교수는 93년 경주박물관에서 녹음한 종소리를 성분분석기로 조사한 결과, 끊어질 듯 이어지는 맥놀이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동일한 조건에 종의 좌·우 흔들림을 추가했을 때, 맥놀이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립경주박물관 강우방관장은 "성덕대왕신종은 1975년 7월 지금의 종각에 건 것으로, 당시 종을 걸 봉 제작에 실패해 원래 에밀레종을 걸었던 봉을 사용해 타종시 흔들림은 이상 없을 것"이라며 "93년 타종할때 세게 치지 않아서 일어난 현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증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경주박물관에서 93년도에 녹음한 종소리를 성분·분석기로 살핀 결과, 종소리의 진폭이 단순하게 감소하고 있다.



◇배명진 교수가 1/11로 축소한 에밀레종을 타종할때 '진자의 등시성' 등을 적용한 결과, 맥놀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가볼만한 불교미술관련 전시

장소	날짜	전시내용	전 화
예술의전당 미술관	8월29일까지	파키스탄 국보급 간다라유물 121점	(02)580-1331
롯데월드 민속관	8월26일까지	티벳스님들이 조성한 만다라 2백여점	(02)411-2000
일민미술관	8월29일까지	금강산 관련 미술품 및 자료 2백여점	(02)721-7772
국립중앙박물관	8월29일까지	금강산을 주제로 한 미술품 및 자료 2백여점	(02)398-5096
국립경주박물관	상설전시	경주지역 출토 불상 및 선사시대 유물등 3천여점	(0561)772-5173
국립전주박물관	상설전시	불교예술품 및 고려자기, 금속공예품 1천여점	(0652)223-5651
호림박물관	상설전시	불교예술품 및 청동기시대 이후 고미술품등 2백여점	(02)858-2500
목아박물관	상설전시	불교 목공예품과 석공예품등 3백여점 순환전시	(0337)885-9952
통도사성보박물관	상설전시	불화 35점, 불상 20점, 불교공예품 1백여점등 총160여점	(0523)382-1001

휴가철 불교미술전 가면 온가족 문화눈높이 '쑥쑥'



◇여름철을 맞아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가족단위로 감상할 수 있는 불교 전시회가 잇달아 열리고 있다. 사진은 강화도 선원사지 유물전시관.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가족과 함께 둘러볼 수 있는 대형 불교 전시회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어 문화에 대한 안목을 높이고 자녀들의 정서함양과 불심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이들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예술의 전당내 미술관에서 8월29일까지 열리고 있는 '간다라미술대전'. 이번 전시에는 파키스탄의 국보급 간다라 유물 121점이 선보여 불교미술의 원형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8월26일까지 서울 롯데월드 민속관에서 열리고 있는 '티벳 만다라전'에는 티벳스님들이 기도와 수행으로 조성한 만다라 2백점 이외에 만다라 그리기에도 직접 동참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금강산 관련 불교 미술품과 함께 공예품 및 희귀 사진 6백여점을 진열한 '아름다운 금강산'<관련기사 11면>을, 일민미술관에서는 조선후기에서 현재까지의 금강산을 다룬 미술품과 관련 자료 등 2백여점을 볼수 있는 '몽유금강전'이 8월29일까지 각각 열리고 있다. 또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는 불화 35점을 비롯 1백여점의 불교 공예품을 만날 수 있다. 목아박물관 호림박물관 등에서도 목공예품과 석공예품 등 불교관련 예술품을 볼 수 있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대주스님 신작발표회 '찬불무대'

불자와 스님이 하나돼 박수치며 노래 불러 여름 밤의 무더위를 식혀준 감동의 무대.

대주스님(백선사주지)의 열린 무대인 '故 손목인선생 유작 및 신작 발표회'가 12일 연강홀에서 홍파 관음종 총무원장, 총지화 총지종 통리원장 등 5백여명의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김동건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연에서 대주스님은 '해탈로 가는길' '염불하는 노승' 등 네 곡을 열창해 관객들로부터 열화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김주일 기자

진천 보탑사 24일 산사음악회 '무더위 식힌다'

우리나라 전통목탑 양식을 고스란히 재현한 진천 보탑사에서 한여름 밤의 무더위를 식혀줄 아름다운 산사음악회가 열린다.

불교TV(사장 허문도)가 후원회 결성을 위해 24일 저녁 7시30분부터 1시간30분 동안 마련한 '충북 진천 보탑사 산사음악회'가 바로 그것. 이광수와 사물놀이패의 판굿으로 시작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니르바나실내악단이 '드보르작의 유모레스트' '엘가의 사랑의 인사' 등을 연주하게 된다.

또 중요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산조 부문 이수자이며 통도사 수원포교원 주지인 자연스님이 장엄한 대금곡인 '허튼소리'와 '평조' 등을 들려준다. 이외에도 정통 성악을 전공하고 11년간 불음포교에 전념해 온 정율스님의 서정적인 가곡 '꽃구름 속에'와 '향심' 등도 펼쳐진다.

이번 행사를 공동 기획한 보탑사주지 지광스님은 "찬란한 문화유산과 대자연을 무대삼아 격조 높은 음악회를 갖게 돼 매우 기쁘다"며 "산사의 작은 음악회는 불교 공연 예술 발전을 위해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신록의 푸른 자연과 산사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번 음악회는 정통클래식과 우리 가락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향기롭고 신명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02)3270-3366

불교합창단연합회 종단협 부설 재창단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고산·조계종 총무원장) 산하 불교합창단연합회가 22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수송회관에서 현판식을 봉행한다.

고산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할 이번 행사에는 임명패 수여식과 회칙 공고, 소프라노 오승희씨의 축가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88년 불교음악을 널리 보급 발전시키고자 창단된 불교합창단연합회는 98년까지 10년동안 꾸준한 활동을 해왔으며 지난 1월 종단협의회 부설 단체로 등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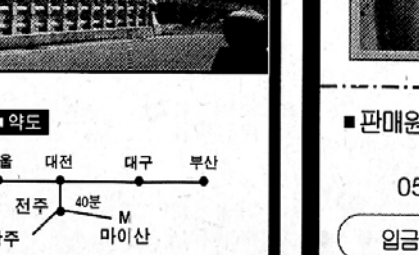
김주일기자

'인간문화재 작품 전시·판매장' 개관

한국관광공사(사장 이득렬)은 14일 국내 무형문화재의 홍보와 관광상품화를 위해 청사 지하 1층에 '인간문화재 작품 전시·판매장'을 개관했다.

전시장에는 김근수(중요무형문화재 77호)씨의 '7첩 반상기', 옥공예 대가인 장주원(중요무형문화재 100호)씨의 옥문걸이·옥도장·옥장신구류, 이인세(중요무형문화재 99호)씨의 '소반', 매듭장 최은순(중요무형문화재 22호)씨의 '노리개' 등 주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와 전통공예자가들의 공예품 530여점이 전시, 판매된다.

한국관광공사는 전시·판매장과 공방, 문화재전수회관 등을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공예와 공연 부문의 무형문화재를 통합한 무형문화재 축제도 계획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500여점의 전통공예품을 갖춘 인간문화재 작품 전시판매장을 14일 개관했다.

경주남산 97년 산불 복구 '뒷짐'

창림사지등 훼손
문화재청-경주시 서로 책임전가

신라인의 불심이 골골마다 숨어있는 문화유산의 보고 경주 남산 산불 피해 복구를 둘러싸고 문화재청과 경주시의 책임상호 전가로 당분간 복구는 어려울 전망이다.

사적 제311호인 경주남산은 97년 2월 산불이 발생, 동남산 23ha와 서남산 47.3ha가 소실됐다. 특히 이 지역은 풍광이 수려해 절과 기도처가 산재해 있던 곳으로 신라 원성왕 7년 이전에 창건됐던 창림사지가 있다. 그런데 화재로 인해 소나무 숲이 소실됐을 뿐만 아니라 사지의 훼손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이 지역 복구를 위해 소나무를 심기로 하고 문화재청에 예산 29억원을 요청했으나, 문화재청은 예산 지원을 미루고 있다. 특히 소나무 묘목의 경우 전국에 묘포장이 단 한군데도 없어, 4~5년후에나 식목이 가능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그만큼 화마를 입은 창림사지에 대한 보호 절차도 늦어지게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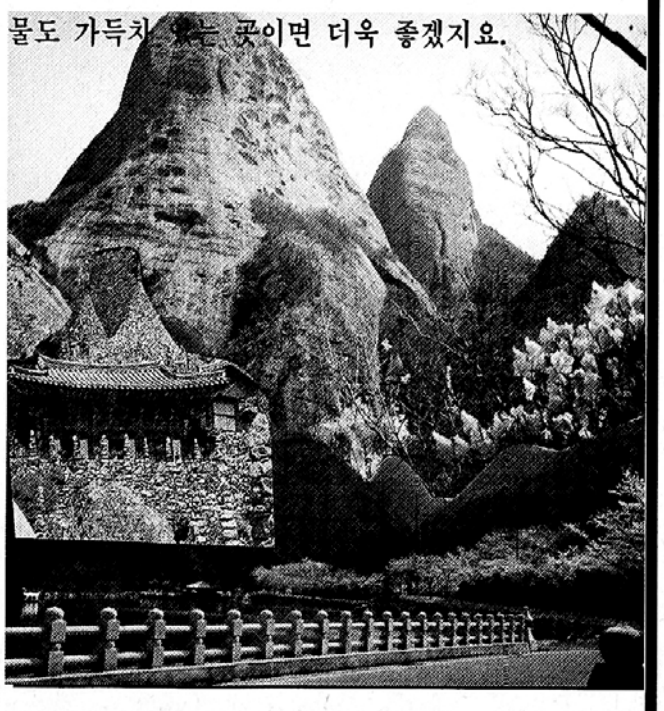
문화재 관계자들은 "남산의 산불 피해 복구가 늦어질수록 문화재 보호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또 남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전망도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오증욱 기자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관광과 방생을 한 곳에서·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탑사
전화(0655)433-2900, 0303
(0655)432-0652, 0072

■약도

신개발품

시·연·쑥·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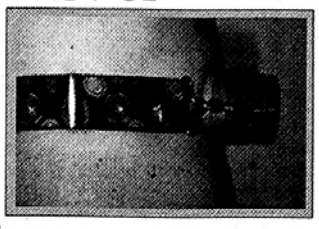
난치병에서 피부미용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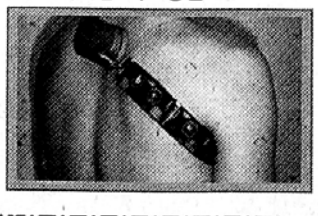
김시연 스님

쑥뜸의 효능은 3,000년간 인정받았습니다.
피부에 전혀 손상없이 가정에서 간단하게 뜰 수 있습니다.
한의사 대체의학 연구원이 상담해 드립니다.

▼복통치료장면



▼어깨결림 치료장면



○ 프랑스의 슈미트 의학박사는 현대의학상 외과수술외에는 쑥뜸법으로 무슨 병이든 전부 치료할 수 있다고 격찬하였다.

○ 독일의 헤리 베르르 수미트 박사는 쑥뜸법은 동양 의학에서는 과거의 유물일지 모르나 서유럽에서는 새로운 의학이며 장래성 있는 의학이다.

○ 일본의 원지명대량 의학박사는 쑥뜸의 새로운 연구는 의학 최종목적인 치료의학과 예방의학의 양면을 동시에 해결케 해준다고 하였다.

·각종질병 쑥뜸의 효능·

만성피로	정력강화	고혈압
견비통	신경통	저혈압
간장병	당뇨병	요통
전립선	조루증	냉증
피부병	생리통	위장병

만병의 원인은
피가 탁하고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오는 것인데 숙뜸을 뜨면
백혈구와 적혈구가 증가하여
피가 맑아지고 혈액순환이
잘되어 병이 치유됩니다.

♣몸 어느 한곳이라도 좋지 않은 분은 本社 제품 곡한번 사용하세요.

♣「시연 쑥뜸기」는 아픈 곳이 곧 치료점입니다.

■판매원 여래치신자연식품회사 ■제조원 : 도훈건강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 1138
053-628-9145 / H.P 011-808-8880

입금계좌: 대구은행 161-07-412768-001 대구여래한방

■가격 : 200,000원(1set)
압축쑥 1개월분(50,000원), 쑥뜸기일체,
안내책자(16,000원)포함



불서와 함께 여름속으로

여름휴가 길에 불서 한권 손에 들고 떠나자. 휴가지에서 심신을 즐겁게 하는 것도 좋지만 푸른 숲 넓은 바다를 책상 삼아 불서를 펼쳐보자. 마음을 맑히고 무더위를 탈출하는 괜찮은 방법일 것이다. 올 여름휴가에는 자칫 피곤을 달고 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감로법문이 듬뿍 담긴 불서의 바다에 푹 빠져보자. 책의 바다에 빠지는 것은 무슨 큰 준비가 필요한 것도 없다. 다만 좋은 불서 한권이면 족하다. 좋은 책은 좋은 도반과 같다. 사찰과 자연속에서 책을 벗삼거나 한적한 집에서 독서삼매경에 빠지기에는 불서가 제격이다. 휴가철에 읽어볼 만한 불서 10권을 신간 중심으로 가려뽑아 소개한다.〈편집자 주〉

휴가철 벗삼아 읽을만한 불서신간 10권

향기로운 삶을 향하여

■산에는 꽃이피네

저자 법정스님은 강원도 산골, 화전민이 살던 주인 없는 오두막을 빌려 홀로 밭을 일구며, 청빈의 도와 맑고 향기로운 삶을 실천하고 있다.

법정스님의 법문을 가려뽑아 엮은 이 책은 무더운 여름날 산사 샘터의 찬물 한모금 마시는 것처럼 시원하다. 두엇보다 이 책은 소책자로도 출간돼 여행중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수시로 읽을 수 있다. 게다가 법정스님의 육성 테잎도 최근 출반돼 여행중 차내에서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어 즐거움을 더해 준다.〈동쪽나라 刊, 법정스님 지음, 값 7천원〉

동·서양 철학과 대화

■승려와 철학자

20세기를 대표하는 프랑스의 저명한 철학자와 태베트 승려가 네팔의 어느 산속에서 만나 삶에 관한 지적인 대화를 나눈다. 열흘간의 대화를 통한 동양불교와 서양철학, 행복과 고통 그리고 삶과 죽음에 관한 진지한 성찰…. 서양 철학자 아버지와 티베트 불교에 귀의한 아들이 나눈 대화를 수록한 대담집. 동양과 서양, 삶과 사상, 휴머니티와 과학을 폭넓게 다루고 있는 이 책은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할만큼 강한 흡입력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제공한다.〈창작시대 刊, 장프랑스아 지음, 값 1만2천원〉

무소유 삶이 주는 자유

■거지성자

낡은 누더기, 작은 손수레, 보자기, 실과 바늘은 독일 뮐른의 거지 페터 노이야르씨가 가진 것의 전부다. 숲속의 나무 밑에서 자고, 하루 한끼만 탁발로 무소유 삶을 살고 있지만 그의 이야기속에는 언제나 동서양의 수많은 종교와 성현들이 등장한다. 나무하나 꺾지 않고 몸에 기생하는 벼룩조차 잡지 않을 만큼 절저한 생명존중을 실천하고 있다. 현대문명의 그늘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깨달음이 무엇인지 일깨워 준다.〈선재 刊, 전재성 지음, 값 7천5백원〉

암자에가면 '길'이 보인다

■길 끝나는 곳에 암자가 있다

'암자 순례기'와 '명상 산문'을 묶은 산문집. 더위에 지쳐 있을 때 시원한 암자를 떠올리는 것은 행복이 아닐 수 없다. 여름 휴가철이 코앞에 다가왔다. 휴가가 주는 의미는 그동안의 노고를 푸는 재충전의 시간이다. 저자거리의 편안함이나 편리함을 접어두고 나뭇잎에 내리는 고독을 친구삼아 자신의 질서를 지키며 수행하는 현장, 호젓한 암자를 찾아가 보자. 번잡한 유원지를 찾아 피곤을 달고 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암자에서 지친 마음을 누이고 마음을 맑혀주는 명상산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를 추스려 보는데 도움을 준다.〈해들누리 刊, 정찬주 지음, 값 8천원〉

'내면의 나' 찾는 소설

■안으로의 여행

오랜세월 인도여행을 마친 후, 계룡산 갑사 토굴에서 쓴 송기원씨의 첫번째 소설. 인도에서의 자기수행담을 소설의 형식으로 객관화한 이 책은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과정을 언어로 보여주고 있다. 중년 남자가 '빈껍질(번뇌덩어리)'만 남은 자신을 벗어나기 위해 히말라야 설산을 떠돌며 참선을 통해 새롭게 탄생하는 줄거리를 담고 있다. 알맹이는 없고 빈 껍데기인 채로 바쁘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설은 '나의 진정한 실체는 무엇인가'를 되새겨보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문이당 刊, 송기원 지음, 값8천원〉

어떻게 살까 '모범답안'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티베트불교 대표 종단인 겔룩파의 성전 〈보리도차제(菩提道次第)〉를 티벳 학승 초겔스님이 우리말로 번역한 이 책은 불교에 대한 마음가짐과 수행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석가세존으로부터 용수와 무착으로 이어진 대승불교의 전통을 설명하고, 초발심에서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증득해 보살의 서원을 완성해 가는 과정을 밝히고 있다. '가르침을 듣는 방법과 가르치는 방법' '깨달음으로 가는 길' 등 총 4장에 걸쳐 진정한 생활불교란 곧 앎을 행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불교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며,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모범답안이 될 것이다.〈여시아문 刊, 초겔스님 편역, 값 4천원〉

시어로 만난 명산고찰

■백사백경

불교문화의 실상을 어디에 가서 확인할 수 있겠는가. 대답은 자명하다. 사찰에 가보라. 특히 고찰이야말로 이 땅의 전통문화, 살아서 숨쉬는 불교문화의 현주소이다. 사찰 특유의 분위기, 고승들의 일화가 입체적으로 담겨 있는 명산고찰 가이드 시집. 사찰과 명산, 문명의 정화와 자연의 진수가 어우러져 만든 247편의 시는 사찰을 찾는 사람들에게 미의 극치를 안겨준다.〈불광 刊, 박희진 지음, 값 7천5백원〉

문화재와 사찰설화

■절따라 전설따라

사찰연기설화 현대적 조명에 남다른 열의를 쏟고 있는 김승호 동국대 강사가 흥미롭고 서사성이 강한 36곳 사찰의 연기를 담았다. 이 책에 수록된 각각의 설화는 쉽게 읽히고 흥미를 촉발할 수 있게끔 원형담에 상상과 윤색을 덧붙힌 문화유산으로 읽는 사찰 연기설화이다. 문화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다는 것이 특징. 전각이나 불상은 물론 절 자체도 하나의 문화재로 볼 수 있으므로 문화적 가치와 정신적 배경을 설명해 가면서 그와 관련된 연기담을 들려주고 있어 암자를 찾는데 도움을 준다.〈대원정사 刊, 김승호 지음, 값7천5백원〉

온가족 불교예절 동화

■스님은 황금을 메고 어디로 갔을까

자녀들에게 권할 만한 책이다. "절에서는 왜 향을 피우는지요" "절에 웬 도깨비집(천왕문)이 있나요" 절을 찾는 어린이들이 흔히 품을 수 있는 의문들이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은 물론 '절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불교는 어떤 종교인지' 등 기초적인 예절과 상식을 동화에 담았다. 이 동화책의 줄거리는 주인공인 세모와 그의 친구들이 사찰에 다녀오는 과정에서 스님들을 만나면서 차츰 불교에 대해 알아가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또 간추린 불교 예절 상식 50문 50답이 수록, 절을 찾는 어린이들에게 예절 길잡이 역할도 한다.〈다림 刊, 김영만 지음, 값 6천원〉

주머니속 한권의 선서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참선은 여름휴가를 알차게 보내는 방법중에 하나다. 모든 생각을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참선하기에 앞서 관련 선서한권 정도 읽어보는 것도 의미 있다. 도서출판 여시아문에서 주머니속 대장경시리즈로 펴낸 '한글세대를 위한 선불교 강의 〈무문관 혹은 …〉'는 선수행 지침서. 〈무문관〉은 대단될 수 없는 물음을 향한 선의 전형적 접근이다. 이 문 아닌 문을 노크하여 선의 역사와 이념 방법과 한계를 읽어 보자. 휴가기간동안 각 사찰에서 열리는 참선수련회에 참가하는 불자들이 배낭속에 넣어갈 만한 책이다.〈여시아문 刊, 한형조 엮음, 값 6천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소설로 읽는 인도정신 한국인 정서와 상통"

인도문학 시리즈 펴내는 문이당 발행인 임성규씨



"인도는 먼 나라가 아니다. 우리속에 인도가 살아 숨쉬며, 인도정신은 이미 우리의 정신속에 녹아 흐르고 있다"

문이당 발행인 임성규씨(48)가 국내 출판계로서는 유일하게 인도문학 시리즈를 펴내는 이유다.

임성규씨가 인도소설에 눈을 돌리게 된 계기는 1973년 1월 김주영, 한승원, 이문구씨 등 11명의 작가와 함께 인도문학답사를 하면서부터다. 이 답사에서 임씨는 불교와 동양사상의 뿌리인 인도의 문학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 매료됐다. '제3세계의 문학'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임씨는 그후 틈나는 대로 인도를 찾아 인도소설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물론 불자라는 그의 정서와도 맞아 떨어졌다.

임성규씨는 "주제가 확연하다. 신변잡기가 아닌 삶과 죽음 등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다소 난해한 느낌이 들지만 조금만 주의 깊게 읽어나가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인도소설을 평했다.

문이당에서 번역 출간된 인도문학선 시리즈는 모두 5권. 93년 사랑하는 도시를 발견하기 위해 600여년의 시공과 역사 속을 여행하며 성자들, 시인들, 왕과 왕자들 등을 만나 현재 인도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재조명한 〈델리 1·2〉(루쉬완트 싱 지음)을 비롯 〈봄베이의 연인〉(쇼바데 지음), 〈작은 것들의 신〉(아룬다티 로이 지음), 〈나한야테〉(마야트레이 데비 지음), 〈두번째 생각〉(쇼바데 지음)이 바로 그것. 임씨가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는 책은 〈작은 것들의 신〉. 임씨가 극찬하는 것은 언어의 묘미. 때문에 원문의 느낌을 그대로 번역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놀라운 비유가 돋보이는 이 책은 영국 최고 권위의 문학상인 부커상을 수상했다.

문이당은 비크람세스의 〈음악은 흐른다〉 등 인도소설을 곧이어 출간할 예정이다.

최근 송기원씨가 인도에서의 수행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소설화한 〈안으로의 여행〉이 문이당에서 출간된 것도 임씨의 인도문학에 대한 남다른 노력의 산물이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산에는 꽃이피네(소)	법 정	동쪽나라
2	승려와 철학자	장프랑수아	문 예 촌
3	티베트에서 온…	주 민 황	정 우 사
4	거지성자	전 재 성	선 재
5	길끝나는 곳에 암자가 있다	전 재 성	해들누리
6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불교다라니
7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한 형 조	여시아문
8	선문촬요	이 철 교	민 족 사
9	화엄의 길 생명의 길	도 법	선우도량
10	역주 수능엄경	일 귀	불 일

구입문의:(02)737-0695

하루에 한번만 켜주시면 경내에(가정에) 온종일 부처님의 경전말씀이 은은하게 울려퍼집니다.

인켈 inkel 이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이 불경대전집CD는 인켈이 세계최초로 개발한 데이터압축기술로 제작되어 일반 CD 30~40장 분량이 수록되므로 인켈 압축 CD플레이에서만 재생됩니다.

▶ 이 한 장에 56가지 경전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총27시간 07분)
1. 천수경(14분 05초) 2. 장엄염불(20분24초) 3. 아미타경(13분38초)
4. 화엄경 약찬게(16분 18초) 5. 반야심경(2분 49초) 6. 고왕경(5분41초)
7. 목탁성(5분 19초) 8. 법성게(2분 49초) 9. 무상게(4분 51초)
10. 관음정진(10분02초) 11. 금강경(33분15초) 12. 반회심곡(13분07초)
13. 천수경(18분24초) … 35. 우리말아미타경(27분51초)
36. 우리말 반야심경(4분00초) … 55. 회심곡(9분05초)
56. 탑돌이(8분05초)까지 불자님이 가장 많이 찾고 접하는 56가지 경전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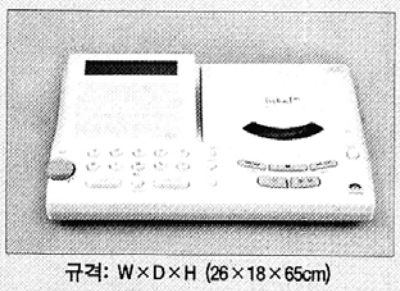
♣ 듣고 싶은 경전번호만 누르면 말씀이 바로 시작됩니다.
예)반야심경 5번 천수경13번
① 번천수경부터 56. 번 탑돌이까지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가격: 불경대전집 + 압축CD플레이어 = 280,000원
※스피커는 별매입니다.

♣ 듣고싶은 경전만 반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 56가지 경전을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 경내나 가정에 있는 오디오에 연결하시면 더욱 웅장한 소리로 경전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품의 품질 및 A/S는 인켈에서 보증합니다.

인켈 압축CD플레이어
GOOD DESIGN 통상산업부선정



규격: W×D×H (26×18×65cm)

인켈에서 세계특허를 획득한 첨단오디오로 일반 CD와 FM방송도 들을 수 있습니다.

● 불교방송 ●
서울·경기 F.M 101.9MHz
부산 89.9MHz 광주 89.7 MHz
대구 94.5 MHz 청주 96.7 MHz

※모든 기능을 원터치로 쉽고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구입 문의 080-900-0101 032-343-2267

■주문방법 : 전화 및 팩스 등으로 구매하실 상품의 가격을 확인 후 입금하시면 상품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신용카드 할부가능)
■배달방법 : 입금 확인후 택배/오토바이/고속/직배 등을 이용하여 5일이내 가정까지 배달하여 드립니다.

■ 보급처 : 법운정사 홍법회

"근본불교는 교학연구 토대"

종교학회 불교분과 '아함불교 바로알기' 워크숍

원시-초기-근본불교등 명칭통일 논의
제과학 이론접목 응용연구 절실

한국종교학회 불교분과(위원장 해주스님)가 10일~11일 양일간 남원 실상사에서 개최한 하계 워크숍에 70여명의 불교계 학자와 학생들이 참석해 아함불교에 대한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기조발제에 대해 모든 참석자들이 난상토론을 벌이는 콜로키움(Colloquium)으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의 전체 주제는 '아함불교 바로알기'.

첫날 기조발제를 맡은 이중표 교수(전남대)는 "지금까지 불교연구가 개인적으로 행해진 결과 같은 분야에 대해서도 이해가 상충되고 개념이나 사상체계에 대한 통일이 없어 불교연구를 위한 토론에 공통의 지반이 절실히 요청된다. 불교는 근본불교에서 대승불교에 이르기까지 사상적으로 상호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전공분야가 다르다 할지라도 상호교류를 통해 다른 분야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근본불교는 불교의 뿌리이므로 어떤 분야이든 연구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첫 번째 콜로키움은 박경준 교수(동국대)의 사회로 원시 초기 근본불교등 혼용되고 있는 명칭통일문제가 제기됐으나 결과를 맺지 못한 채 논의로만 끝났다. 또 한역 아함부와 팔리 니까야 등 근본경전 바로읽기에 대한 조준호 박사(델리대)의 강연이 열렸다. 두 번째 콜로키움은 이효걸 교수(안동대)의 사회로 세계적인 초기불교와 응용불교 연구상황이 논의됐다. 최근 초기불교 윤리 연구동향을 1990년대 이후 미국학계를 중심으로 진단한 안옥선 박사(조선대 강사)는 "최근 서양학계의 연구 특징은 서양 윤리학 이론과 개념을 접목시키면서 응용적 혹은 문제해결식의 연구를 지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는 사회정의와 소외문제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과 생명윤리 문제 등을 안고 있고 불교의 궁극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해결을 도외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콜로키움에서 권오민 교수(경남대)는 〈아함경〉을 비롯한 모든 부처님 말씀은 역사문화적 산물이기에 각각의 우열을 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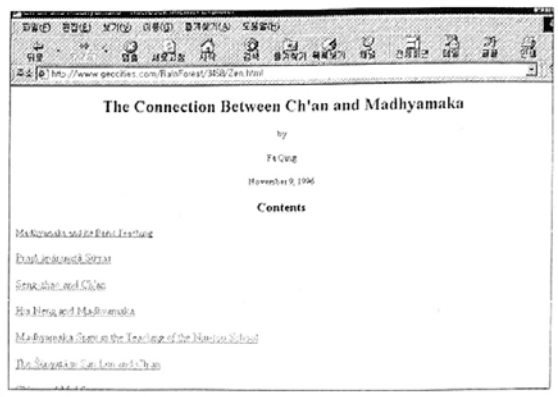
윤원철 교수(서울대)의 사회로 진행된 세 번째 콜로키움에는 학담스님(대승사 주지)의 아함불교에 대한 강연회와 이중표 교수 등 전공자들이 권하는 아함불교 공부 방법론, 참고서적 안내 등이 이뤄졌다.

입제식부터 회향식까지 워크숍에 쭉 참여한 도법스님(실상사 주지)은 "불교를 공부하면서도 정말 문제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잡아내지 못해 이번 콜로키움이 혼란스러워진 듯하다"고 평가하고 "부처님은 생로병사라는 문제의식을 느꼈을 때 그것을 해결하려는 자기 자신에 대해 시선을 두고 있었다. 불교학자들도 불교 그 자체에 시선을 두지 말고 불교 공부하는 자기자신의 사고방식, 문제의식에 시선을 둬야 한다. 그렇지 않고 중생들의 사유방식 틀로 불교 보려하기에 갈등과 모순 구조로 가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콜로키움을 마치고 가진 평가회에서는 일부 교수들의 논지 싸움으로 원래 토론의 목적에서 빗나갔고 국지적인 논의에 치우쳐 아함불교를 전반적으로 알 수 있게 한다는 의도에서 벗어났다는등 첫 워크숍으로서 진행 미숙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와 함께 교리공부와 수행체계를 같이 접목시켜야 된다는 주장이 나와 학문으로 불교를 볼 것인가 불교를 수행과 결부시켜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또 열반은 고의 소멸인가 생존의 소멸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뤄져 이후 논란거리로 제시됐다.

해주스님은 "아함불교라는 것의 전체 틀을 바라보고 개괄적인 소개를 해주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처음 치루는 워크숍이어서 시행착오가 있었다"며 "동계 워크숍은 이번 워크숍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무리없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 '불교세계' 사이버에서 제공하는 선불교 관련 정보화면.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중국·대만불교

선불교를 개창한 중국불교의 오늘을 보고 싶다면, 인터넷에서 중국·대만계 불교사이트를 검색하면 된다. 현재 중국 선불교의 모습은 중국이 아닌 미국과 유럽 그리고 대만에서 그 맥을 찾을 수 있다.

▲선불교교우회(Chan Buddhist Fellowship)는 유럽에서 중국·대만불교를 알리는 단체로, 첸(Chan)이란 선(禪)의 중국식 발음표기.

이 사이트를 개설한 존 크룩씨는 성엄스님(대만)의 법제자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중국불교개관' '수행관' '권장도서' '전자잡지'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선불교교우회가 제공한 정보 중에서 법문, 선시, 선불교교우회의 활동과 관련사진 등이 실려있는 전자잡지인 〈선광장(New Chan Forum)〉과 중국 선불교의 법계도 등이 불자네티즌의 호기심을 충분히 충족시킬 정보이다. 또 뉴욕·켈리포니아·대만 등지에서 중국불교의 포교에 노력하는 선(禪)센터와의 링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미국불교회(The Buddhist Association)는 중국불교학에 관심을 가졌던 중국계 미국인의 모임인 리하이 불교클럽에 기원을 두고 1987년에 설립된 퀜실베니아 지역의 중국불교계 학술·신행 단체.

이 사이트는 퀜실베니아의 장엄사를 본부로 활동하고 있는 미국불교회의 회의, 포럼, 법회 등의 자료와 전자뉴스레터를 제공한다. 또 한문장경을 연구하는 모임인 불교전뇌자신고공덕회(佛教電腦資訊庫功德會·The Electronic Buddhadharma Society)의 학술자료도 제공한다. 이 자료는 일부 샘플만 제공하고 있는데, CD 타이틀을 구매하면 전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국제불광회(Buddhas Light International Association)는 대만 불광산의 성운스님이 설립한 국제적인 신행단체이다.

이 사이트는 서래사(Hsi Lai Temple)를 중심으로 미국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불광회를 홍보하기 위한 사이트. 서래사는 15에이커에 세워진 사찰로 미국에서 가장 큰 사찰이다. 1978년에 시작, 1988년에 완공된 이 사찰은 국제 불교를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중국의 전통적인 사찰 양식 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태국, 이태리등 세계 여러 나라의 건축 양식을 보여줘 관광사찰로도 유명하다.

▲불교세계(The Buddhist World) 사이트는 인터넷을 통해 대만불교계의 사회단체, 경전전산, 불교계 뉴스, 사찰소개 등의 다양한 정보를 영어와 중국어로 각각 제공한다. 이 사이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정보는 '자제공덕회'. 이 모임은 대만 불교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불교재단으로 대만 국내·외에서 평가받고 있어 불자 네티즌이 한 번쯤 방문해 봄직하다.

이외에도 채식주의자를 위해 냉국수를 비롯해 9가지 채식에 관련된 요리법을 세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또 증국·대만불교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 선불교교우회 http://www.child.demon. co.uk/wcf/
△ 미국불교회 http://dual/iems/nwu.edu/~cwshen/buda-ebs.html
△ 국제불광회 http://www.clcr.com/hsilai/blia.html
△ 불교세계 http://www.geocities.com/rainforest/3458/zen.html

"마츠모토의 임제선 이해 화두 박제화등 오류 많다"

고려대장경硏 '비판불교' 3차 세미나

'마츠모토의 임제선 비판은 급진적이지도 참신하지도 않은 오해일 뿐이다. 임제선사가 설했던 무위진인(無位眞人)이 아트만과 같다는 그릇된 전제하에 임제선의 모든 사상을 추론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것이 무위진인을 똥막대기와 단절시켜 실체화하는 치명적인 원인이 된다."

10일 동국대에서 열린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스님)의 비판불교 3차 세미나에서 김영욱 연구원(가산불교문화연구원)은 '마츠모토의 임제선 이해에 대한 비판'을 통해 "마츠모토의 논리는 화두로 제시된 모든 선어를 박제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임제선의 본래 목적에서 볼 때 위험하다. 마찬가지로 불성내재론이나 불성현재론은 선종에서 실천지향적으로 제시된 화두로서의 불성을 주관과 객관에 대하여 절대적 지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주장했다. 종흐스님은 논평에서 "임제선의 핵심이 무위진인에 있다는 점은 마츠모토와 김 연구원이 모두 간과하고 있는 점"이라며 "무위진인은 조사들의 사상적 계승이자 수행자에게 주는 방편의 가르침이었으며 중생의 고통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기 위한 조사선자로서의 현실적 실천행"이라고 지적했다.

김호귀 강사(동국대)는 '마츠모토 시로의 도오겐사상에 대한 견해 검토'에서 "마츠모토는 도오겐의 본각사상을 불성현재론(佛性顯在論)으로 파악해 불성내재론의 입장에 서있는 심상상멸설(心常相滅說)의 선니의도의 견해를 비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불성을 존재의 본성적인 활동 내지 작용이라고 해석하는 도오겐은 일체중생 그대로가 불성의 실유이고 현현이라는 입장이기에 불성현재론은 도오겐의 이해로 본다면 불성현작용이라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평을 맡은 월호스님은 "마츠모토는 도오겐 연구의 전문학자가 아님을 인정하는등 이 논문 자체를 비판적 검토의 대상으로 선정할 가치가 있는지 의구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신라인에게 불교는 무엇인가

김상현 교수 '신라의 사상과 문화' 펴내



신라인들이 생각했던 삶의 가치와 희망은 무엇이었으며 현실의 위기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려 했는가. 당시의 불교는 고뇌하는 신라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었던가.

불교사를 강의하는 김상현 교수(동국대)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20여년 동안 발표했던 신라사상사에 관한 논문 20편을 정리해 최근 발간한 〈신라의 사상과 문화〉(일지사 刊)는 신라인들이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불교 신앙을 활용했고 새 미래에 대한 염원은 미륵신앙을 통해 표출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책은 불교사를 불교철학에 입각하거나 당시의 정치 사회상과 연계시켜 연구되어온 성과물들이 많이 있었던데 비해 종교사적인 시각으로 조명해 놓은 논문이 묶여 나온 적은 거의 없었기에 주목받고 있다.

〈신라의 사상과 문화〉는 신라의 정치사상, 삼국통일의 사상적 기반, 불교사상의 사회적 전개, 불교문화와 화랑전통 등 총 4부로 이루어져 신라의 전반적인 사상과 문화를 조명하고 있다.

특히 석굴암과 불국사를 불교문화사 혹은 불교사상사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고 문화예술의 밑거름으로써의 신라불교를 규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원효전서 영역 편집자회의·워크숍

뉴욕 스토니브룩大서

국제원효학회(회장 송석구 셜리스트럼 케니)는 7월31일부터 8월2일까지 미국 뉴욕 스토니브룩대학교에서 원효전서 영역 편집자회의 및 워크숍을 개최한다.

21권에 달하는 원효전서 영역 작업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는 국제원효학회는 이번 편집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편집 규정이나 영역 예규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찰스 뮬러 교수(도요가쿠엔대), 존 맥레이 교수(인디애나주립대) 등 번역자들이 참석할 이번 편집자 회의를 통해 결정된 규정 등을 기준으로 내년 3월쯤 영역 결과물을 선보일 예정이다. 내년에 대규모 국제학술대회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강좌 미술사' 12호 발간

한국불교미술사학회에서 〈강좌 미술사〉 12호가 발간됐다.

12호에는 △불국사 불교미술의 종합적 연구-문명대 △용주사 삼불회탱의 연구-김경섭 △동해시 삼화사 철불 명문의 재검토-김창호·한기문 △원우5년(1090)명 입석사 마애불좌상 소고-임영애 △영정조시대의 불화-김창균 △고구려 불상의 미의식-이순자 △혜음사지 발견조사-문명대 등이 수록됐다.

'발해미술…' 학술회의

한국미술사연구소는 9월11일 국립중앙박물관 강당에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발해미술의 국제성과 한국적 특징'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회의에선 △발해의 벽화(정병모) △발해상경불교조각의 연구(임석규) △발해조각과 요·금 조각(최성은) △발해의 공예(김창균) △상경성 건축(이강근) △발해미술의 국제성(상원화) 등 9편이 발표될 예정이다.

불교방송 서울 본사 : FM 101.9MHz
부산지방국 : FM 89.9MHz 광주지방국 : FM 89.7MHz
대구지방국 : FM 94.5MHz 청주지방국 : FM 96.7MHz

BBS 불교방송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 BBS 불교방송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2,000만 불자 모두가 불교방송을 청취하시면 매월 20억원의 광고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정성어린 후원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BBS 불교방송

⊙ 주소 : ㉾ 121-050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대표전화 : 02-705-5114)
⊙ 후원회 : (02)705-5560-1 ⊙ 방송참여 : (02)705-5555~8
⊙ 후원회 지로번호 : 8003478 ⊙ F A X : (02)705-5229

BBS 불교방송 주간방송순서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요 일	시간
05	00 아침예불 (승가대 스님) 45 마음을 비우고 (이명학ANN)		05
06	00 교계뉴스 (장수현ANN) 05 경전공부 (인혼스님) 25 고승열전 (구인 外) 35 교리강좌 (해정정사) 55 선생365위 (김용덕)		06
07	00 뉴스 (장수현) 10 안녕하십니까? 홍승기입니다 1부 BBS 캠페인 (박정원ANN)	05 일요교양강좌(교양제작팀)	07
08	00 BBS뉴스광장(보도팀/장수현ANN) (08 25-08 30) (L) 30 안녕하십니까? 홍승기입니다2부 (L) 1분불교상식 (이선희ANN)	00 법고와 주미(보교제작팀) 20 사찰순례(최은경ANN)	08
09	00 뉴스 (박홍식ANN) 05 차한잔의선율 (진명스님) / (금) 거북한만남(도현스님)		09
10	00 뉴스 (이현정ANN) 05 자비의 전화 (최은경ANN/해거스님 外) 55 반야심경(우리말) (성수스님) 커정정보 (장미경REP)	00 라디오 법회(이명학ANN)	10
11	00 뉴스 (박정원ANN) 10 행복스위디오 황정원입니다	05	11
12	00 정오종합뉴스 (박정원/이현정ANN) (12 15-12 20 L) 20 최영준의 팩퍼가요 1부	10	12
13	00 뉴스 (박홍식ANN) 05 최영준의 팩퍼가요 2부		13
14	00 뉴스 (이명학ANN) 10 퀴즈 대장경 (이난관 장수현ANN) 50 고승열전(재) (구인 外)	05 우리가락의 향기(송혜진)	14
15	00 뉴스 (최은경ANN) 05 BBS생활상담실(이아성ANN/권순만外) (L) 1분불교상식 (이선희ANN)	05 김득황하시 (이명학ANN)	15
16	00 뉴스 (이명학ANN) 10 은학의마음 (박정원ANN) (L) 05		16
17	00 뉴스 (최은경ANN) (L) 10 부딪음 밝히고 (이명학ANN) BBS 캠페인 (박정원ANN)	00 장명의시간 (이현정ANN) 20 일요초대석 (김혜정)	17
18	00 저녁예불 (승가대 스님) 15 장원수의 정보 가이드		18
19	00 BBS저녁종합뉴스(이명학/최은경ANN-보도팀) 25 부동산 경제 (이상대) 55 우리들의 찬불가 (가릉빈가합창단)	10 물바다농산(자용스님)	19
20	00 교계뉴스 (이선희ANN) 05 김명조의 다시듣는 고성은노래		20
21	00 뉴스 (이선희ANN) 10 선생365위(재)) (김용덕) 15 경전공부(재) (인혼스님) 35 반야심경(원문) (성수스님) 40 교리강좌(재) (해정정사)		21
22	00 교계뉴스 (이선희ANN) 05 영화음악의 (박홍식ANN)		22
23	00 뉴스 (이선희NN) 05 한대인을 위한 계단음의 경과1부(법륜스님)	05 그리운동물하나1부(김정희)	23
24	00 한대인을 위한 계단음의 경과2부(법륜스님) 45 천수경 (송광사 스님)	00 그리운동물하나2부(김정희)	24
01	00 한밤의 명상 (이선희ANN) 55 사홍서원 (합창단)		01

번뇌 떠나 보살되는 길잡이

수행도지경 (下)

글쓴이



안승준

〈동국대 강사〉

경전 속의 禪 사상 27

허공과 같이 깨끗한 마음 적법
사물의 본성 살피는 지혜 관법

수행도지경은 무아와 공 등의 핵심적인 교리에 대한 관법을 위주로 수행의 가르침을 펴면서 수식관에 의한 신통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경에 의하면 명상에는 적법과 관법의 두 측면이 있는데 도닦는 사람은 이 가운데서 적법을 먼저 얻을 수도 있고 관법을 먼저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두가지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참된 명상의 도를 닦았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신통한 힘을 얻을 수 없다고 한다.

적법의 특징은 생각이 딱 멈추어 움직이지도 않고 설레이지도 않고 방종하지도 않는 것인데 그것은 마치 금을 보고 사려는 사람이 좋다 나쁘다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관법의 특징은 이치를 살펴서 사물의 본성과 현상을 갈라보는 것인데 그것은 마치 금을 사려는 사람이 그것이 어느 나라에서 나왔으며 은이나 구리 같은 것이 섞이지 않았는가를 따져서 진짜와 가짜 금을 가려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적법과 관법은 명상법의 두 구성 부분으로서 서로 내용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한마디로 적은 허공과 같은 깨끗한 마음이며 관은 이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그대로 공이라고 살피는 지혜이다. 이러한 명상의 법에 의해서만 덧없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수행하는 이가 이미 자재를 얻어 사선을 이룬 다음 신족관을 얻으려고 한다면 모든 것이 공하다고 보아야 한다. 즉 모든 뼈마디와 눈과 귀와 코와 입과 이마와 목과 갈비와 척추와 손과 발과 가슴과 배 및 모든 털구멍을 허공과 같이 본다. 이런 관법을 지은 다음에는 스스로 그몸의 마디마다 연결된 것이 마치 연꽃 줄기와 뿌리의 구멍처럼 보이거나 또는 허공처럼 보이고 다음에는 몸이 마치 풀포대기처럼 보인다. 점차 이렇게 보아가면 곧 모양의 생각을 여의고 오직 공의 생각만 있게 된다.

이미 공의 생각을 얻으면 다시 빛의 생각이 없어지며 혹은 공의 생각을 익히는데 그 몸이 보일지라도 집착하는 바가 없게 된다. 몸을 보려고 하면 저절로 보이고 보지 않으려고 하면 보이지 않으며 허공을 보려고 하면 보이고 보지 않으려고 하면 또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수행의 결과로 얻게 되는 사문의 사과를 설하고 있다. 예류과를 얻은 이는 오랫동안 훈습한 것이 애욕의 번뇌에 있었으므로 잠깐동안은 정욕을 여의었다가도 마침 좋은 여색을 보면 음난한 뜻이 동하는 것이다. 일래과를 얻은 이는 한 번 세상에 돌아오는데서 괴로움의 근원을 끊게 된다. 불환과를 얻은 이는 오결을 끊어 음개가 없어지고 애욕을 해탈하여 모든 걸림과 음귀의 환난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아라한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세상에 대한 애착과 온갖 속박을 벗어버리고 자기자신에 대한 과대망상증이 없어지며 생사를 넘어서는 지혜를 얻어 갖가지 번뇌에서 완전히 떠남으로써 열가지 힘을 가진 부처의 제자가 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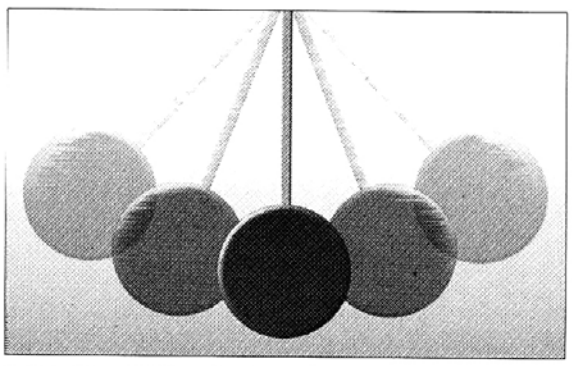
마지막에서는 성문과 연각과 보살의 삼승을 논의하고 있다. 이들 중에서 보살은 불도 수행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스승이 되어 시방세계의 중생들을 교화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속세의 생사길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이것은 결국 보살의 불도 수행을 통해서만 자기자신을 구제하고 세상을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살의 도를 얻는다는 것은 곧 부처의 도를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살의 도를 닦음으로써만 부처의 모든 공덕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수행도지경은 여러 가지 관법들을 설명하면서 공관에 바탕한 대승보살도의 행법으로 귀결시키고 있다. 이와같은 공관의 실천은 형이상학적이거나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무상과 무아의 교리를 선관의 입장으로 받아들이는 구체적인 자기혁신의 과정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것은 적법과 관법의 조화로써 이루어지는 중도적인 수행법으로 가르쳐 지고 있다.

과 학 산 책

동화현상

여러개 시계추 똑같이 움직이듯
동조·동화현상 곳곳에서 나타나



지난 몇 회에 걸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관계' 라는 틀에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 '관계'는 규정하기가 어렵지만,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

여러분들은 2명 혹은 그 이상의 여자선수들이 수영장에서 똑같은 동작을 보여주는 싱크로나이즈 수영경기(synchronized swimming)를 본적이 있을 것이다. 선수들이 같은 팀을 이루고 있는 다른 선수와 거의 같은 동작을 한다는 의미에서 동조(同調)된 수영경기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동조가 인위적인 수영경기 같은 곳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자연 현상에서 쉽게 관찰되어 진다.

추가 달린 시계가 많이 있는 방을 상상해 보자. 이 방에 있는 시계의 추들을 모두 멈추고 나서 추를 각각 다시 움직이게 한다. 이때 다른 시계추의 움직임이 왼쪽 끝 부분에 오게 될 때 움직이려는 추는 오른쪽 끝에서 놓는 등의 방식을 취해 방안에 있는 시계추들의 흔들림이 각기 다른 모양이 되도록 만든다. 몇 개의 시계로 집에서도 실제로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놀라운 것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방안에 있는 시계추들이 모두 같은 흔들림을 보인다는 것이다. 즉, 모든 추들이 마치 한 추와 같이 왼쪽 끝 부분에 놓이게 되었다가 가운데를 동시에 지나고 오른쪽 끝 부분에 동시에 이르게 된다. 마치 싱크로나이즈 수영 선수들처럼 다른 추의 등작과 리듬을 맞추는 듯 하다.

생명이 없다고 여겨지는 추들이 상대방 추의 움직임을 알기라고 하는 것인가? 같은 방안에 있는 추들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개개 추들의 움직임이 서로의 관계를 바탕으로 공동의 한 움직임으로 통조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어쨌든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지만 분명 추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듯하다.

이런 동조 내지 동화 현상은 인체에도 나타난다. 여성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 현상이 있다. '시샘한다'라는 표현이 있다. 캠핑 때와 같이 오랜 동안 폐쇄된 같은 장소에 머무르는 경우, 마치 다른 여성의 생리 주기를 시샘하듯이 서로의 생리주기가 비슷해진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한 연구에 따르면 다른 여성의 겨드랑이에서 나는 냄새를 같이 지내고 있는 여성의 코에 대고 있으면 월경 주기의 동화가 빨라지는 것이 실험으로 밝혀졌다. 물론 실험에 참가한 여성들은 전혀 냄새를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나 비록 우리의 일상적인 인식의 범위에서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뇌는 냄새로부터 무언가를 감지하여 우리 몸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 같다.

이러한 현상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유를 꼬집어 말할 수 는 없지만 웬지 과학적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러한 현상이 반복적으로 관찰된다고 하여도 이러한 현상은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막연한 느낌을 갖는다. 이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지만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일련의 동일한 조건 속에서 실험적으로 반복 가능한 현상을 대상으로 한다는 '과학 연구 대상'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에 더욱 그러하다.

이유나 진행 과정을 모른다고 해서 그러한 현상이 마치 일어날 수 없는 것이고 이에 대해 말하는 것은 비과학적인 자세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면 단지 코끼리의 일부분만 만져보고 코끼리 전체를 아는 것처럼 말하는 장님의 비유나 플라톤의 동굴 속의 그림자 비유를 떠올려보기 바란다.

조원희〈본사 전략정보실장〉

태국 나나상판노 스님이 쓰는

중생이 우주라지만 ⑧

의지의 길 ③

법은 우리의 눈길 닿는 어디에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일을 겪든지 그 경험의 본질에 대해 아주 소박한 자세로 마음을 열어놓는다면 우리는 부처와 하나가 될 것이다.

일단 바르게 보게 되면 모든 것은 너무나 소박하고 순수하다. 즐거운 일이 생기더라도 비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 괴로운 일이 일어나도 그것은 그대 자신이 아니고 그대의 것이 아니라고 이해해야 한다. 모든 것은 소멸하고 마니까. 모든 현상을 우리 자신인 듯이, 혹은 자기가 그 소유주인 듯이 여기지 않게 되면 마음은 균형을 얻게 된다. 이러한 균형이 바로 팔정도이며 해탈로 이끌어주는 부처님의 정법이다.

최초로 부처님이 가르친 해탈에의 길은 감각에의 탐닉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행도 아닌 중도였다. 수행자의 마음은 균형을 잃거나 이러한 양극단에 빠지는 일이 없이 어떠한 경험에 대해서든 열려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되받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혐오함이 없이 사물을 대하게 해줄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남에게 친철하고 유익되게 행동하는 일이다.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자비행과 계행에 열심이면 유익한 결과가 따라오고 자신과 남에 대해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은 전심전력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훌륭하고 장한 일이다. 다만 놓쳐서는 안될 점이 있다. 그 일을 제대로 행

모든 현상은 비어있다

재물도 희로애락도 소유주 없어

하려면 남을 가르칠 때 자기 자신도 배우는 점이 있어야 한다. 자기 수행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과연 순수한지 유념하여 주의해야만 한다. 남들에게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남에게 가르친 것을 자기 마음속에서 열심히 지키며 자신과 타인에 대해 한점의 의혹도 없이 정직하지 않으면 안된다. 순수한 것과 순수하지 못한 것을 다 인정해야 한다. 부처님 가르침의 진수는 사물을 그대로, 온전하게, 분명하게 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진실 그대로를 보면 해탈을 얻는 것이다.

법은 누군가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 법은 주인이 없다. 세계가 모습을 드러낼 때 법은 세계 속에서 생동하지만 진리로서 홀로 존재한다. 법은 언제나 여기에, 변함없이, 무한하게, 법을 찾는 이들을 위해 있다. 법은 마치 지하수와 같다. 누구든지 우물을 파는 사람은 그것을 찾아낸다. 하지만 샘을 파든 안파든 물은 항상 거기, 모든 존재의 밑에서 흐르고 있다.

법을 구함에 있어, 우리는 너무 먼 곳으로 찾아나서고, 지나쳐 버리고 본질을 간과해 버린다. 법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오랜 항해 끝에 망원경을 통해 찾게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법은 바로 여기에 있으나,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고, 우리의 진정한 본질이며, 진정한 자신이다.

우리가 이 본질을 바로 볼 때, 거기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갈등도 없다. 선과 악, 즐거움과 고통, 밝음과 어두움, 나와 남 모두 다 비어 있는 현상들이다. 이러한 본질을 알게 되면 '나'라는 고정 관념을 버리고 진정으로 자유롭게 된다.

우리는 수행은 버리기 위한 것이지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을 포기하기 전에 몸과 마음의 참성질을 알아야만 한다. 그 때에 비로소 집착을 버리고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

그 무엇도 내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열반이 나의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왜일까. 열반을 실현한 사람은 나라든가 나의 것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법의 길은 계속 향상해 가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법은 나아감도 아니고 물러섬도 아니고 더구나 한자리에 서 있음은 더욱 아니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주머니 속 대장경 303 - 선(禪)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한형조 교수의
한글 세대를 위한 선(禪)불교 강의

오늘의 언어로 열어 보이는 本地風光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언어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선(禪)의 세계

● 최근 출판가엔 가히 한국판 선의 황금시대라 할 만큼 관련 서적이 다투어 출판됐지만, 이처럼 원문의 맛을 살리는 것에 더해 탁월한 문학적 향취까지 풍기는 책은 흔치 않다. (문화일보 김종락 기자)

● 불립문자(不立文字)의 선을 언어를 통해 그 본질을 소개했다. 이제까지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람과 사회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나 자신까지 해체해 '있는 그대로' 보라고 말하고 있다. (동아일보 이광표 기자)

● 선(禪)의 역사와 이념, 방법과 한계뿐 아니라 궁극적인 물음, '너는 누구냐'는데 답하기 위한 준비에 충분히 감당할 책이다. (한국일보 장병욱 기자)

● 선불교의 진면목을 간단명료하게 보여 주는 화두집인 『무문관(無門關)』을 번역 해제한 이 책은, 동양적 혹은 불교적 세계관에서의 자아찾기 과정을 제시한다. (세계일보 이준수 기자)

● 이 책은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해 현대인들을 선의 세계로 초대한다. …… 달마라는 페르시아 승려에게서 출범한 선(禪)이 6조 혜능에 이르러 기반과 동력을 얻기까지의 역사와 이념, 방법과 한계를 읽고 있다. (시사저널 성우제 기자)

한형조 지음/ B6 변형 334쪽 /값 6000원

여시아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영업부), 737-0691(편집부), 737-0697(팩스)

시방세계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격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성보로 대신한 '금강산 참배'

국립중앙박물관 8월29일까지 '금강산 특별전'



◇최초의 금강산 그림인 '담무갈보살현신도'. 고려시대 불화의 대가였던 노영의 작품(1307년 제작)



◇유리원판 사진으로 처음 공개된 유점사 불상들. 유점사 능인보전 앞에 주존으로 봉안돼 있었던 53佛중 일부이다. 사진 왼쪽부터 금동동자상, 금동탄생불입상, 금동보살입상, 금동여래입상.



◇1912년 촬영돼 유리원판 사진으로 보는 신계사 전경. 대웅전 앞에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석탑이 보인다. 신계사 복원에 참고가 될만하다.

특별강연회도 마련

민족의 영산 금강산. 세계적으로도 가장 빼어난 명산중의 하나로 꼽히는 금강산은 기기묘묘한 바위와 봉우리, 구비구비 맑은 물이 흐르는 깊은 계곡과 울창한 수풀, 춘하추동 계절따라 바뀌는 형형색색의 경관. 장안사 표훈사 신계사 유점사를 비롯한 수많은 사찰과 암자들, 눈길 발길 닿는 곳마다 간직한 아름다운 전설 등 시대를 초월해 창작의 주제가 되어 왔으며 그 결과물은 뛰어난 예술작품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

'열반산', '기달산'이란 불교식 명칭으로도 불리워지는 금강산은 지난 6월 남한불자들이 신계사터에서의 법회를 봉행한 이후 더욱 불자들과 가까워졌다. 진표율사, 나옹선사, 서산대사 등 고승 대덕들의 선기가 곳곳에서 번뜩이는 금강산은 아직 마음대로 가볼수 없는 곳이기에 늘 그리움의 대상이기도 하다. 금강산을 소재로 한 그림, 사진 혹은 금강산에서 만들어진 예술작품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대규모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정양모)이 13일부터 8월29일까지 마련한 '아름다운 금강산' 특별전에는 금강산 관련 불상, 미술·공예품, 사문집, 역사서 등 총 600여점이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현존하는 최초의 금강산 그림인 고려 충렬왕(1307년)때 불화의 대가인 노영이 그린 '금강산담무갈보살현신도'가 공개돼 관심을 끌고있다. 금강산에 오른 고려 태조 왕건이 보살 중의 최고존인 담무갈 보살(법기)이 나타나자 무릎을 꿇어 예를 갖추는 모습을 그린 이 예배도는 금강산을 불교의 성지로 추앙했던 당시 고려인의 불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이다.

또 6·25전쟁으로 사라진 신계사 장안사 유점사 등 사찰문화재의 원형을 그대로 담고 있는 유리원판 사진 178점이 최초로 공개돼 지금은 볼수 없는 성보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더듬어 볼 수 있어 아쉬움을 다소 달래준다. 이중 1919년 촬영된 유점사 능인보전 53불에 대한 유리원판 사진들은 정면 측면 후면을 상세히 촬영하고 각 불상들의 제작시기와 간단한 양식분류도 시도했는데 통일신라 때 제작된 이들 불상은 소형이면서도 특이하게 법당의 주존으로 봉안돼 있었다고 한다. 또 서산대사 초상, 유점사 청동범종, 강원도 회양군 장연리에서 출토된 금동관음보살좌상 등을 비롯해 18세기 중반의 화가이자 문필가였던 강세황(1713~1791)의 '표암고'와 김은호등 근대화가들의 금강산도, 조선시대의 민화, 향로, 연적 등도 전시됐다. 표암고는 김홍도가 정조의 명을 좇아 금강산으로 그림 그리러 가는 내용과 강세황의



◇고려시대(14세기) 조성된 '금동관음보살좌상', 강원도 회양군 장연리에서 출토됐다.

最古 금강산그림 담무갈보살현신도 공개
신계사·유점사등 유리원판사진 옛모습 감상
희귀자료·미공개유물등 6백여점 '하나하나 볼거리'



◇유점사에 주석했던 송운대사 모기(캇발). 1912년 촬영된 유리원판 사진.

동정기를 통해 18세기 중반 금강산의 모습을 그려 볼 수 있고, 금강산 전경을 압축해 나타낸 '청화백자철채산형향로' 등 각종 희귀 자료와 미공개 유물 등이 눈을 즐겁게 한다.

이들 전시물은 국립박물관을 비롯해 서울시립박물관, 강릉 오죽헌·시립박물관등 시립박물관, 호암박물관 등 사립박물관, 서울대학교박물관등 대학박물관, 가나화랑등 화랑, 송광사·월정사등 40여곳의 사찰과 30여명의 개인소장가들이 출품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 전시회와 함께 금강산과 관련한 특별강연회도 마련했다. 27일에는 정항교 강릉 오죽헌·시립박물관 학예실장과 이원복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장이 각각 '옛 선인들의 금강산기', '금강산의 옛 그림'을 주제로 강연한다. 또 8월 10일에는 이호관 전 전주박물관장과 박은순 홍익대강사가 각각 '금강산과 불교미술', '금강산과 진경산수'를 주제로 강연한다.

이외에도 국립중앙박물관은 350여점의 금강산 관련 사진과 논문을 수록한 〈금강산특별전도록〉(예맥 刊)과 금강산 유리원판 사진 200여장을 모은 〈금강산의 문화유적〉(예맥 刊)등도 발간했다. 또 서울 전시회가 끝난 뒤 9월 13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강릉시립박물관, 11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순회전시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전은 ▲불교미술품과 공예품에 나타난 금강산 ▲전통회화를 통해 음미해본 금강산 ▲사인묵객들의 기행문학을 통해 본 금강산 ▲금강산 민화를 통해 본 서민들의 꿈과 해악 ▲사진을 통해 본 금강산의 옛 모습 등 크게 다섯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글=오종욱 기자(gobaocu@buddhapia.com)
사진제공=도서출판 예맥

불교와 금강산

9세기 이후 곳곳에 사찰건립
고려·조선땐 최고의 수행처

금강산에서 불교활동이 시작된 것은 통일신라시대 들어 화엄사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던 9세기 이후로 추정된다. 이후 금강산에서는 내금강길과 외금강길을 따라 장연사, 금장암, 장안사, 표훈사, 정양사, 발연사, 유점사, 신계사 등의 사찰들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지금도 신계사터, 정연사터, 금장암터 등에서는 신라 말 고려 초기의 석탑이 남아있고 유점사에는 광복 이전까지도 통일신라의 불상을 포함하여 53불로 전해지는 금동불상이 남아 있었다.

고려시대 이후 금강산 왕래가 잦아지고 많은 사찰이 세워지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고려 말기에는 원나라와 고려 왕실의 국운을 기원하면서 대규모의 중창불사가 이루어지고 매년 100개씩의 암자가 늘어날 정도로 시주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전통은 조선시대 전기까지도 그대로 이어져 효녕대군, 세조, 인목대비 등 왕실의 후원에 의한 중창이 계속되었다. 또 부용선사와 서산대사, 사명당, 편양대사, 풍담대사 등이 대대로 금강산에서 참선과 화엄학 연구의 자취를 남기게 되었다. 특히 조선시대 말기와 일제강점기에는 많은 스님들이 운집하여 수차례 '염불만일회'를 열기도 하였다. 지금도 교계의 원로인 비룡·덕암·설산·석주·법흥·월하·화산·범룡스님 등은 금강산에서 수행했던 시절을 그리워한다. 한국전쟁으로 대부분의 사찰은 폐허가 되고, 현재는 정양사, 표훈사, 보덕암 등의 일부 당우와 삼불암, 묘길상 등의 마애불상이 남아있을 뿐이다.



◇금강산 월출봉에서 출토된 '이성계발원사리구'. 은으로 제작된 사리기 사방에 여래상이 조각되어 있다. (1391년 제작)



◇조선시대(19세기) 제작된 '청화백자철채산형향로'. 산봉우리와 계곡 사이사이에 절과 스님, 탑 등이 표현돼 있다.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수심결(修心訣) ③

昔異見王 問婆羅提尊者曰 何者是佛
석이견왕 문바라제존자왈 하자시불
尊者曰 見性是佛 王曰 師見性否
존자왈 견성시불 왕왈 사견성부
尊者曰 我見佛性 王曰性
존자왈 아견불성 왕왈성
在何處 尊者曰 性在作用
재하처 존자왈 성재작용
王曰是何作用 我今不見 尊者曰
왕왈시하작용 아금불견 존자왈
今現作用 王自不見 王曰於我有否
금현작용 왕자불견 왕왈어아유부
尊者曰 王若作用 無有不是 王若不用
존자왈 왕약작용 무유불시 왕약불용
體亦難見 王曰若當用時 幾處出現
체역난견 왕왈약당용시 기처출현
尊者曰 若出現時 當有其八
존자왈 약출현시 당유기팔
王曰其八出現 當爲我說 尊者曰
왕왈기팔출현 당위아설 존자왈
在胎曰身 處世曰人 在眼曰見
재태왈신 처세왈인 재안왈견

왕이 물었다.
"나에게도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까."
존자가 말했다.
"만약 왕께서 작용하고 있다면 불성 아닌 것이 없지만 왕께서 만약 그것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몸도 또한 보기 어렵습니다."
왕이 물었다.
"만약 작용할 때는 몇 곳에서 나타납니까."
존자가 말했다.
"나타날 때는 여덟군데로 나타납니다."
왕이 말했다.
"그 나타나는 여덟군데를 나를 위해 설명해주십시오."
존자가 말했다.

"태(胎) 안에 있으면 몸이라 하고, 세상에 나오면 사람이라 하며, 눈에 있으면 보는 놈이라 하고, 귀에 있으

"무엇을 부처라고 합니까"
"견성하는 것이 부처입니다"

在耳曰聞 在鼻辨香 在舌談論
재이왈문 재비변향 재설담론
在手執捉 在足運奔 現俱該沙界
재수집착 재족운분 현구해사계
收攝在一微塵 識者知是佛性
수섭재일미진 식자지시불성
不識者喚作精魂 王聞心卽開悟
불식자환작정혼 왕문심즉개오

옛날에 이견왕이 바라제 존자에게 물었다.
"무엇을 부처라고 합니까?"
존자가 대답했다.
"견성(見性)하는 것이 부처입니다."
왕이 물었다.
"스님은 견성했습니까"
존자가 말했다.
"나는 불성(佛性)을 보았습니다."
왕이 물었다.
" 그 불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존자가 말했다.
"불성은 작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왕이 물었다.
"그것은 어떤 작용이기에 나는 지금 보지 못합니까."
존자가 말했다.
"지금도 나타나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왕께서 스스로 보지 못할뿐입니다."

면 듣는 놈이라 하고, 코에 있으면 냄새를 맡고, 혀에 있을 땐 말을 하고, 손에 있으면 붙잡으며, 발에 있으면 부지런히 걷습니다. 두루 나타나면 온 세계를 다 감싸지만 거두어들이면 하나의 티끌 속에 있습니다. 아는 자는 이것이 곧 불성인줄을 알지만 모르는 자들은 정혼(情魂)이라 부릅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바로 열리었다.

又僧 問歸宗和尙 如何是佛 宗云
우승 문귀종화상 여하시불 종운
我今向汝道 恐汝不信 僧云 和尙誠言
아금향여도 공여불신 승운 화상계언
焉敢不信 師云 卽汝是
언감불신 사운 즉여시

또 어떤 스님이 귀종화상에게 물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귀종화상이 말했다.
"내가 지금 그대에게 말하려 하나 그대가 믿지 않을까 두렵다."
스님이 말했다.
"화상의 지극한 말씀을 어찌 감히 믿지 않겠습니까."
화상이 말했다.
"그대가 바로 부처이니라."

김원각 〈시인 · 역경위원〉

큰스님 수행한담

"불행 막으려면

혜정스님 〈문수사 주지〉



약력
- 31년 충북생
- 봉암사에서 청담스님을 은사로 득도
- 58년 해인사 강원 대교과 졸업
- 동화사 주지 역임
- 조계종 종회의원 역임

남보다 더 가지려는 욕심
그것때문에 모든것 잃게돼요
많이 가지려 말고 나누세요

율해는 어느해보다도 더위가 일찍 찾아와 공부하기도 일하기도 다들 힘들다고 합니다. 언론매체에서도 때이른 더위에 모기와 파리, 각종 벌레들이 마구 번식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피해를 주고 있다는 보도를 많이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기거하는 삼각산 문수사는 그런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비교적 잘 보존된 삼각산의 자연과 그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깊은 정기 때문이지요. 요즘도 도시한복판 보다 평균 4~5도 정도 온도가 낮아서 생활하기에 적정합니다. 문수사는 고려시대 여종 4년에 탄연 대감국사가 지은 절인데 부처님 모시는 선불당으로 이만큼 좋은 장소도 드물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수사에서 생활한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많은 사람들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러 산에 올라 옵니다. 그래서 등산을 겸해서 절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불교교리법회를 열고 있습니다. 삼각산 입구에서 한 두시간 정도 걸어야 문수사에 도착하는데 아침 일찍 산에 올라 문수사에서 법문도 듣고, 점심공양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무더운 요즘에도 산을 찾는 이들은 꾸준합니다.

산을 오르는 일은 수행의 과정과 같습니다. 바쁘다고 서두르다 보면 이내 지쳐 정상에 다다를 수 가 없습니다. 빨리 깨달으려 한다고 깨달아 지는 것이 아니듯이 말이죠. 수행이 여러 방법이 있듯이 산에 오르는 길도 여러갈래가 있습니다. 매주 산을 오르며 자연과 대화하고, 깊은 산에 자리한 불당에서 불법을 만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보다 먼저 일어나는 부지런함과 인내와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예전보다 인내와 끈기가 약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물질문명의 편리함속에서 살다보니 많은 부분들을 잃어버린 것이겠지만 스스로 자신을 가다듬고, 주변을 살피고 정화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나약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소나무 창가에 하루종일 시끄러움 없어라
들수각 머리엔 항상 푸른 물이 차 있어
뉘 있어 그 생활속에 무엇이 기특하냐고 묻는다면
한자락 누더기 옷으로 백년을 지낸다 말하리로다'

이것은 나옹 혜근스님의 산거시(山居詩)입니다. 한자락 누더기 옷으로 백년을 지낸다는 시구솟에 오늘날 우리가 명심해야 할 스님의 큰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욕심없이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나날이 파괴되어 가는 우리의 자연과 삶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대안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너무도 불필요한 많은 것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내가 출가하던 시절만 해도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모든 것이 부족하기만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씀씀이는 그렇게 넉넉하고 고울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콩한쪽도 나눠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코방귀를 뀌지만 그 시절엔 정말 그랬습니다. 누가 더 많이 가졌냐하는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어떻게 나눌 것인가하는 정신적 가치, 바로 마음이 우리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이지요.

내가 수행자로서 첫 발을 내디뎠던 봉암사는 신라 구산선문(九山禪門)의 하나인 희양산파의 종찰로서 현재까지 선도량(禪道場)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청담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습니다. 여러 도반들과 함께 매일 새벽 일어나 예불올리고, 참선하는 하루 일과속에서 '네 마음자리를 찾아라'는 은사 스님의 경책을 한시도 놓은 적이 없습니다. 스님은 수행에 있어서는 너무나 엄격하고 무서운 분이셨지요. 하지만 항상 마음법문을 일러 주시며, 우리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마음은 마음을 알지 못하니 마음이 있어도 마음을 보지 못한다. 마음에 상이 일어나면 곧 치(痴)요, 마음에 상이 없으면 곧 열반이다. 공을 알고 보면 모든 것이 하찮은 상념이 없는 것이라 하시며 마음을 깨달아야 생사에 자유롭고, 해탈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자리를 찾는 것은 바로 잃어버린 우리의 자연과 생명을 찾는 일과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이 오염되고 파괴되어 예전만 못하다고 남의 탓만 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연과 생명의 질서를 흐트러 놓은 장본인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연과 인간이 하나라는 중요한 사실을 잊은채 정복의 대상으로 써 자연을 마구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킨 결과가 오늘날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인간의 생활,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 질서의 파괴는 곧바로 우리 인간의 생명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나날이 복잡다양해져가는 삶속에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가르침들을 스스로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부처님은 이미 2천5백년 전에 우리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자연과 우주의 질서를 스스로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불자의 삶입니다.

참다운 불자로 살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바로 육바라밀(六波羅密)의 실천이라고 봅니다. 스님이 아니라해도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육바라밀은 모두 다 실천해야할 중요한 생활실천 수행덕목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남에게 베푸는 것,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숙선식(2개월 50만원), 숙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대구여래한방)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 박 법륜 합장



여성중앙 99년 6월호
지금 일본에서 최고 인기!
'크로스 건강법'을 아시나요?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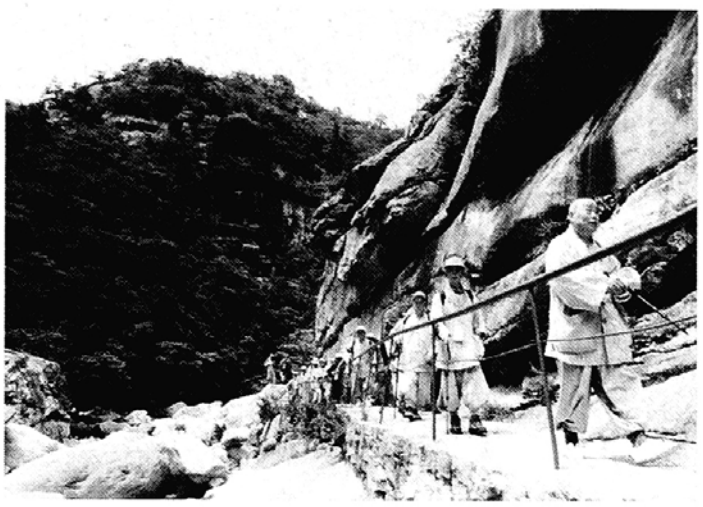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 (053) 655-2227
(011) 808-8880

큰스님 수행한담

욕심을 버리세요"

'네 마음자리 찾아라' 청담 은사님의 경책 한시도 놓은적이 없어요



◇지난 6월 금강산을 방문한 혜정스님(사진 맨앞)이 구룡폭포를 향해 가고 있다.

그 비푸는 것 없이 한평생을 지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불교는 1600년 동안 불자들의 보시만 받아먹고 베푸는 것을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남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전생의 일을 알 수 없지만 금생에 받는 것이 전생의 업이라면 우리는 전생에 너무도 남에게 시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박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에게 보시하지 아니하고 어찌 내생에 영광스러우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전생에 보시를 많이 한 사람은 금생에 부자로 태어나서 호사하고 살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다 얼굴에도 나타납니다. 복이 있는 얼굴, 복이 없는 얼굴, 가난한 얼굴, 부한 얼굴 천차만별입니다.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옛날 건봉사 이회명(李晦明)스님은 천석(千石)이나 되는 전답을 모조리 소작인에게 양도해 주고 무일푼이 되고서도 '아! 시원하구나' 라고 하였답니다. 간탐과 탐욕의 멍에에서 벗어나고보니 시원하기 그지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하지만 우리 중생들은 남보다 조금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욕심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게됩니다. 그러한 불행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열반경〉에서 제자들이 부처님께 물습니다. "백세후에 우리들은 누구를 의지하여 살아가리까"하고 말입니다. 부처님은 "비니로 스승을 삼으라(비니 위사毘尼爲師)"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니는 곧 계율(戒律)입니다. 계율로 스승을 삼으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지요. 의지할 곳은 오로지 계 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지계는 불교인의 불변의 윤리입니다. 계행이 없는 교단은 허깨비교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승려 개개인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시대에 따라 계율도 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그 근본은 변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인욕바라밀은 참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통이와도 그 고통을 달게 받으며 인욕하는 것입니다. 즉을 고통이 찾아와도 참는 것입니다.

청담스님은 인욕이야말로 수행자가 지녀야 할 마음가짐이라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자신의 수행은 물론이요 피교화인으로서 대중들을 이끌며 선행공덕을 짓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참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면서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면 억지로 참지않아도 수월하게 인욕수행이 이뤄진다고 하셨습니다.

인욕수행과 함께 청담스님은 인과를 철저히 믿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스님은 나를 비롯한 모든 상좌들과 혹여 당신이 모르는 이에게 욕지거리를 당하며 매맞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말리지 말고 '스님, 인과를 실천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며 지켜보라고 하셨지요. 그러나 처음에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실지로 스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왠 행인이 다짜고짜 스님의 멱살을 붙들고 심한 욕을 퍼붓는 일이 일어났는데 옆에 있던 내가 스님의 평소 가르침을 까맣게 잊은채 그 행인을 뜯어 말리다 호된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도대체 스님이 왜 그러는지 원망스럽기만 했지요. 그런일을 수차례 겪고 나서야 내가 지은 인과의 업은 내 스스로 풀지않고서는 안된다는 스님의 말씀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생활속에서 만나는 불쾌하고, 힘든 일들을 그저 신경질이나 내면서 남의 탓을 하기 보다는 다 나 자신이 지은 인과의 결과로 받아들이면서 생활해 보십시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닥쳐도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같은 인욕수행과 더불어 한 평생을 게으름없이 정진해야 합니다. 정진없이는 아무것도 이뤄지는 것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진 또 정진해야 합니다.

싯다르타태자는 6년동안 정진에 정진을 거듭한 연고로 부처의 지위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어찌 이생의 6년 뿐이었겠습니까. 삼아승지겁여 걸쳐 스스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정진에 정진을 거듭한 결과인 것입니다. 무상정각(無上正覺)을 이루기위해 선정을 닦으며 부처의 자리에 다가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불자의 수행과정입니다.

육바라밀 모두가 소중하지만 이 선정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부처의 마음을 깨치면 천지우주간에 두려움도 없고 부러울 것이 없을 것이며 다시 더 바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정, 실로 이것을 익히면 모든 억압에서 해탈할 것이며 모든 부자유에서 대자유를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정을 닦으면 지혜는 스스로 얻어지게 마련입니다. 선정력(禪定力), 이것 하나를 얻느라고 모든 고통을 견디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봉암사, 해인사 등 여러곳을 돌아다니며 선수행을 했는데 마산 성주사 성철스님 밑에서 참선수행을 하던 시절에 경전과 선어록을 밤낮으로 읽으며 깨달음에의 열정을 불태웠던 시절이 기억에 남습니다. 대선사 스님들의 가르침을 좇아 마음자리 하나를 깨닫기 위해 가부좌를 틀고 앉아 몇시간씩 화두를 붙잡고 매달렸지만 깨달음은 그리 쉽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었지요. 문득 문득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 갖가지 고민으로 앉아있을때면 성철스님은 어떻게 아셨는지 "제대로 안할라카믄 진작 내려가라"며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시곤 했습니다. 그때 성철스님을 비롯해서 깨달음을 향해 앉은 수많은 수행납자들의 모습은 아직도 생생히 가슴속에 남아서, 지금까지도 나를 곧추세우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십년동안 나는 문수사가 있는 삼각산 꼭대기를 몇천번이나 오르내렸는지 모릅니다. 그 덕에 나의 다리 힘도 세어지고 건강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여전히 의연하게 서있는 청산과 그 위를 유유히 흐르는 백운(白雲)이 나에게 무수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만 나는 그 깊이있는 가르침을 아직도 크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르침을 미처 다 배우기도 전에 자연 환경파괴로 청산이 침묵을 깨고, 백운이 방랑을 멈춘다면 그것은 너무도 크나큰 이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중생의 삶은 실로 허망한 것입니다. 부질없는 욕심을 버리십시요. 큰절 주지는 해서 무엇하고, 명예와 부는 얻어서 무엇에 쓰겠습니까. 진정 불제자로 살아가길 서원한다면 욕심을 버리고 무소유의 청정한 삶을 함께 좇아갑시다. 탐욕을 떠난자, 노여움을 떠난자, 어리석음을 떠난자, 번뇌의 더럽힘이 없는 자, 애착을 떠난자, 집착이 없는자, 이와 같은 사람이야 말로 진리의 땅에 살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요. 우리 각자가 이 대 우주 대 자연의 구성원이자 주인이며 미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부와 명예보다 사람답게 살도록 노력"
"남탓하지 말고 내 인과부터 살피세요"

나의 수행일기



김 일 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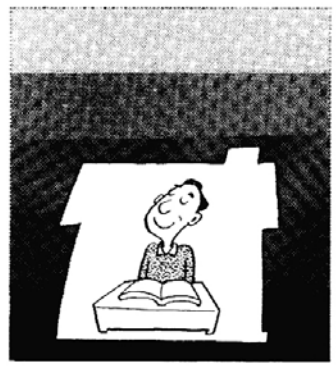
〈(주)우광안전 소장〉

〈下〉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비로소 생활인들도 머리깎지 않고도 밝아질 수 있다는 확신이 들게 되었다. 이러한 확신이 구체화 되면서 나는 '자시(子時) 가행(加行) 정진 기도'를 실천하게 되었다.

자시 가행 정진 기도는 〈금강경〉의 핵심인 '실무중생 득멸도자(實無衆生得滅道者 · 실로 제도 받을 중생이 본래 없다)' 임을 깨치는 수행법으로 하루 3시간 자고 새벽 1시쯤 일어나 5시간을 계속하여 〈금강경〉을 수지독송하고 일상생활에 실천하는 공부이다. 그래서 잠, 고통, 질병, 가난 등이 본래 없는 것이며, 마침내 모든 것이 구족하여 부족함이 없는 참 나를 발견하여 생사해탈의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수행목적으로 하는 수행법이다.

子時 금강경 독송 3년에 아상녹여
생활속에 늘 "감사합니다" 실천



처음 기도를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졸음이었다. 기도는 고사하고 졸음 전쟁의 연속이었다. 수마를 이기기 위해 정진하다보니 남들이 즐기는 가족나들이 한번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때로는 과연 이렇게 해서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가족과 주위 사람들 중에는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보도록 권고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하면된다는 신념과 확신이 있었기에 개의치 않고 수행할 뿐이었다. 여러 도반들과 함께 49일을 공부 주기로 하여 계속 반복했다. 내가 얼마나 달라졌나 꼼꼼히 기록하여 점검을 받는 식으로 공부는 진행됐다. 그러는 과정에서 더욱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 발심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부처님께 바치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수행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인지 어느덧 이러한 생활이 습관화 되었고, 차츰 공부가 즐거워지면서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동시에 환희심이 나기 시작했다.

자시 가행정진 기도를 한지 3년이 되는 어느날에는 '나(我)' 라는 아상이 발버둥치며 죽은 모습을 보았고, 그뒤부터 백색광명이 몸에 쏟아지는 체험을 하였다. 그 후부터는 공부할 때마다 환희심과 더불어 항상 머리가 수정처럴 맑고 시원했다. 세상은 참으로 고요하고 모든 것이 즐겁고 새롭게 다가옴을 실감하여 참나로 다시 태어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주위 사람들이 매우 친절하고 호의적으로 바뀌었다. 특히 공부를 못하게 방해하고 미워하고 날 원수처럼 대하던 독기에 가득찬 가족들 모습이 어느날 눈 녹듯 일시에 사라졌다. 전혀 새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고, 혹시 이 사람이 내 앞에서 쇼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고 한동한 어리둥절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숙세의 업보 해탈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유달리 고집 불통이고 탐진치 삼독의 번뇌 망상으로 항상 지글지글 끓던 내가, 부처님 덕분에 부처님 세계에 다시 태어나 행복을 맛보게 되었으니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온다. '생활속에서 〈금강경〉 가르침'을 보다 쉽게 실천하는 방법으로 좋을 때, 나쁜 때 할 것 없이 억지로라도 하루에 100번 이상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읊조린다. 감사한 마음을 내면 정말 감사할 일이 생긴다고 한다. 왜냐하면 '부처님 감사합니다'는 곧 〈금강경〉실천의 핵심인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 · 분별없는 청정한 지혜의 마음을 내라. 즉 업보없는 부처님을 향해서 마음을 내라는 뜻)'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참나의 공부가 시작되는 만큼 매사에 방심하지 않고 더욱 부처님 시봉 잘 하길 발원해 본다.

〈금강경〉을 공부한지 어언 10년. 오늘도 새벽 가행정진과 더불어 부처님과 함께 즐겁고 힘찬 하루가 시작된다. 이제 내가 가야할 길은 청정한 마음 닦으며, 남에게 도움을 주는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이다.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소 재
· 팔 괘 고급나무 조각 목판 팔각형
· 만다라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 규 격 45Cm×45Cm

◎ 보급가 : ₩ 300,000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파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당신의 작은 힘이 세상을 바꿉니다

2000년을 여는 불교 지상포럼

7

시민운동(NGO)

"당신의 힘을 느껴 보십시오. 당신이 세상을 바꿉니다. 한 번에 한 이웃을." (Feel your power. It's changing our world)

미국의 한 시민단체는 이 문구로 방문객들을 맞는다. 우리 사회에서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말이 더 이상 공허한 구호가 아닌 현실로 다가왔다. 참여연대의 소액주주 권리회복 운동, IMF의 구제금융 이후 펼쳐진 실업자 직업훈련과 노숙자문제 해결 등 최근의 몇 가지 사례에서 경험했다.



제3섹터 운동 87년 이전에는 시민단체와 정부와의 관계는 상호견제적이었으나, 이후 협력의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IMF 구제금융 이후 펼쳐진 실직노숙자 구호사업은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협력의 한 모습으로 평가된다. 사진은 지난해 5월 노숙자 급식소 '아침을 여는 집' 개소식 장면.

"자비실천=시민운동"…국내 1만 단체 활동
환경보호·지뢰금지 등 삶의 질 개선 노력
불교계 무료급식·해외구호 등 확산 추세

피터 드러커(웜 스트리트저널 논설위원)는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에서 한 장(章)을 할애해 '제3부문', 즉 민간단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탈자본주의 정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두 조직, 즉 사적부문으로서의 기업 그리고 공적부문으로서의 정부뿐만 아니라 '제3부문'을 필요로 한다. 즉 자발적인 사회부문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과 예측은 사회학자 미래학자, 그리고 정치이념의 측면에서도 좌파 우파 중도파 모두의 공통적인 부분이다. "보다 폭넓고 깊이있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개혁의 길"이라는 말로 시민운동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시민운동은 국가의 역사 문화적 토양 등에 따라 비영리, 비정부(NGO), 자원벅터, 제3섹터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린다. 우리 사회에서는 시민운동이라는 명칭이 익숙하다. 최근에는 시민운동, NGO 또는 제3섹터, 민간단체라는 말이 조금의 다른 의미를 전달하며 함께 쓰인다.

대체로 자발적으로 조직된, 공식적으로 비영리 비정부 비정치성 비종교성 공익활동을 하는 각종 법인 사회단체 시민단체 등을 지칭한다. 입법 사법 행정 언론에 이어 '제5부'로 불리기도 한다. UN이나 OECD 등 국제기구에 미치는 영향력도 막강하다. 환경 분쟁 등 세계적인 이슈들을 정의하고 새로운 국제사회의 질서를 세우는 데 국제기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등장했다. 지뢰제조 및 사용금지협약은 NGO 운동의 성과다.

20세기 후반 이후의 한 특징은 '시민'의 전면적인 등장이다. 미국의 경우 1백만개에 가까운 비영리기관이 사회 각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다. 프랑스는 5만4천개에 이른다. "'제3섹터 혁명은 선진사회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개발도상국에서 더욱 강한 추세를 보여주며 세계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지구촌 현상이다."(주성수,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장)

우리나라의 시민단체는 1만여개로 집계된다. 87년 이후 수적인 성장과 함께 다양화했다. 그러나 시민운동의 필요성과 역할에 동의하고, 그들이 우리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으면서도 참여와 후원은 인색하다. 재정면에서 규모가 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98년 총수입은 11억7천8백만원이었다. 회비 및 수입에 의한 액수는 24%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정부 및 기업의 프로젝트 수행, 기업의 후원금이다.

이러다보니 상근자들의 생활은 말이 아니다. 시민운동 7년 경력인 한 국장의 월급여는 1백14만원이다. 보너스는 년 120%지만 받으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작년 추석과 연말에 10만원씩을 받았다. "그래도 다른 곳보다 나은 편이다"고 말한다.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국내 환경운동의 양대산맥을 이루는 녹색연합의 최승국(34) 조직국장의 한달 봉급은 40만원이다. "어떻게 생활하느냐고요? 덜 버는 만큼 덜 쓰면 되죠." "월 1만원씩 내는 회원이 1만명만 된다면 시민단체들이 '지속 가능한' 운동을 펼칠 수 있다"며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한다.

이런 가운데 '시민의 시대'를 열어가는 몇 가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대학에 NGO강좌가 개설됐다. 한신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경기지역사회 NGO-대학 공동강좌'를 운영했다. 상아탑에 안주해왔던 대학이 수원이라는 지역사회에 직접 내려가 그 지역의 문제점과 지역 시민운동단체의 활동상황을 분석해주고 함께 대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였다. 성공회대는 전문적이고 직업적인 시민운동가 양성을 목표로 올 3월 시민사회복지대학원에 국내 첫 NGO전문학과인 시민사회단체학과를 개설했다.

지난 5월 광주에서는 광주지역의 20여 단체가 참여해 '세상을 바꾸는 힘, 참여가 희망을 만듭니다'란 주제의 시민단체 박람회도 열렸다.

불교계의 시민운동 참여도 최근 들어 활발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노인 무료급식소인 자비의 집과 실직노숙자 합숙소인 아침을 여는 집을 운영하고 있다. 또 해외구호활동으로 네팔에 아침을 여는 마을을 열어 현지인 문자교육과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인도에 수자타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JTS는 북한돕기와 관련한 국제NGO 협의체에도 참가하고 있다.

"자비실천의 사회적 연어가 바로 시민운동"이라는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김동훈 운영위원장은 하나의 사례를 들어 시민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지난 해 말 경기도 성남시는 분당구청 앞에 잔디공원을 조성하면서 잔디 수입 비용으로 6억원을 책정했다. 그런데 조경회사에서 10년간 근무한 이모씨가 이같은 사업계획을 전해 듣고 자신이 속한 경실련 예산감시단을 통해 성남시에 트롱잔디를 입히면 가격이나 품질, 사후관리를 위해서도 유리하다고 제안했다. 성남시도 이 제안을 받아들였으며, 결국 시민들의 세금 3억원을 절약할 수 있었다.

"시민의 힘은 이처럼 우리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킵니다."



◇국제지뢰금지운동 한국지부 회원들이 우리 정부의 대인지뢰협약 가입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지난 3월부터 한국 미국등 120개국이 서명한 대인지뢰 사용금지조약이 발효했다. 국제지뢰 금지운동을 이끄는 조디 윌리엄스는 반지뢰운동의 공로로 97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10월 서울서 열리는 '99 NGO 세계대회

국내외 2천여 단체서 5천명 참가
윤리·인권·환경 21세기 대안 제시

'뜻을 세우고(Inspire), 힘을 모아(Empower), 행동하자(Act)'는 슬로건을 내건 '99 서울 NGO 세계대회(대회장 조영식 경희학원장)가 10월 10~16일 열린다.

이번 대회는 서울 잠실 주경기장에서 '21세기 NGO의 역할'을 주제로 개막식을 갖고 일주일 동안 대학과 호텔 공공장소에서 4개의 소주제 및 10여개의 분과토의를 갖고 강연과 워크숍으로 진행된다. 소주제는 △인류문명의 평가 △20세기의 회고-NGO 시각 △21세기의 전망-NGO 시각 △미래의 진로 등이며, 분과토의 주제는 △환경과 주거와 인간 △윤리의 가치 △사회·경제개발 △여권신장 △NGO의 활성화 △인간존중과 인권 △보건과 건강 △노인복지 △평화안보 △교육 △청소년 등이다.

대회조직위원회는 서울대회를 통해 세계 NGO 운동의 과거와 미래 전망, 현재 세계의 모습을 NGO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21세기의 윤리, 인권, 환경, 기술진보 등의 문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대회에는 해외 1천5백개, 국내 5백여개의 NGO에서 3천~5천여명이 참가한다.

기획취재팀
정성운 차장
한영우 기자
김채경 기자
오종욱 기자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몰·부다피아와 함께 시원한 여름을...

천연옥을 원석 그대로 가공한 선풍 건강옥 방석으로 시원한 여름을...
- 머시넛감, 곰팡이 서균 없는 청결한 환경석
- 세계 최초로 방충 및 청결 효과가 있는 옥방석
- 천연옥을 가공한 건강 옥방석으로 여름철 시원함(대나무 방석 대용)
- 커피, 기름, 김칫국물을 흘려도 걸레로 닦아주는 것으로 OK!
- 차량 방석으로 사용가능



•크 기 : 44 x 44 Cm
•핏 : 천 국내산 면옥 본망
•끈 : 산 벨트지
•비닉백 미고정방지 (무연미+바이오세라믹 처리)
•가격:₩9,000

더우십니까? 참선명상 방석으로 선 삼매에 드세요.
국내 최초 인체공학적 설계 참선·명상·단전호흡 수련방석
수행시 바른 자세는 수련에 많은 효과를 준다. 엉덩이 부분을 높게 하는 것은 인체의 균형과 정시간 앉아도 척추와 허리에 역학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기존의 방석이나 좌복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련용 방석



•크기 39×43(cm)
•가격:₩27,000



자비로움의 표현 불자들 모두가 함께입는 여름 필수 부다피아 티셔츠
•재질 순면 100% (20수)
•색상 흰색
•인쇄 나염인쇄 (칼라)
•가격:₩7,000



연꽃 지구촌
다가올 21C 불국토를 염원하며 연꽃속에서 피어나는 지구촌을 형상화한 디자인



자비연꽃나팔
자비의 법음이 온 누리에 울려 퍼져 희망찬 미래를 나타내는 자비연꽃 나팔

100장 이상 주문시 6,500원 단체·사찰명 인쇄해 드립니다.

천진동자 부채로 더위를 날려 버린다.



300개 이상 주문시 단체·사찰명 인쇄해 드립니다.
•가격:₩750(1개)

강행복 합죽선



*강행복 합죽선은 작가의 판화 작품을 담양으로 보내 수공으로 제작합니다
•가격:₩100,000

우리 선조들이 즐겨그린 인화풍을 현대적 감각의 목판화로 재 해석 하였으며 강렬한 역색 연일하래 유유 지적하게 노니는 오리 한쌍을 음양적 이미으로 표현하여 날마다 좋은 날을 기원 하였다

•제작연도 1998년 / •기법 목판화+채색 / •원도수 1판 1색+채색5색
•재질 천주한지 / •크기 53×16.5cm / •판 500

바위속에 숨은 부처. 대자대비 바위속에 숨은 영겁의 미소를 영상으로 보며 더위를 식힌다.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 꽃피워 대상인 무치념심을 많이 조성하였고, 이름있고 성스러운 산, 특히, 경주 남산은 불보살이 어울려 있는 신령스런 영산으로 꼽여 수없이 많은 마애불과 석불 석탑이 조성되었다 국보급 유물과 지방유형문화재 등 빼어난 유물들이 불국정토 화엄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려던 선인의 혼이 서린 상약염을 실감케 한다

(제작) 대창프로덕션
문화관광부 등록 제1호/구성 감독-황기채
상영시간 : 바위속에 숨은 부처 - 40분
반야용선 - 30분



•가격:₩13,000

숙면의 요인 중에는 베개선택도 중요한 요소! 한방 옥 베개로 시원한 여름을...



- 계중한 업무, 생활스트레스 등으로 뒤치레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짜증스럽거나 피곤한 분에게
-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늘 머리가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에게
- 좋은 수면을 하더라도 최고의 패면을 하고 싶은 수험생
- 안성두통, 불면증 등의 질환에 시달리는 분에게
- 목부위에 통증이나 어깨결림으로 늘 고생하는 분에게
- 코골이 방지에 여러번 실패하고 안전한 해결책을 찾기위해 고심하신 분

•가격:₩30,000(1개) / ₩56,000(1세트)

몰·부다피아 쇼핑몰 주문방법 •전화:02-732-1522 / 737-8881 •팩스:02-737-0697 •인터넷:http://mall.buddhapia.co.kr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모든 게 본래면목 자리서 나고 듭니다



그림 · 최주현

공부 잘되나 안되나 걱정은 못믿기 때문
우리의 생활이 그대로 교재이고 참선

관했는데 뜻대로 안됐어요

문 저는 제가 공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언젠가 정말 주인공에게 맡기고 관을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것도 주인공 공부의 일환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죠. 이 공부는 하느냐 안 하느냐가 붙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왔으니깐 살고 있는 이 생활이 즉 교재고 공부입니다. 살아나가면서 겪어야 하고 그런데 뭐 내가 다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이런 거 걱정을 합니까? 사실 나의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종교를 믿고 안믿고를 떠나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가 공부가 되는건가 안되는건가하고 생각하는 건 못 된기 때문이에요. 꽃나무가 만약에 자기뿌리를 못 믿어서 내가 지금 꽃이 피고 있는가 안피고 있는가 이런다면은 그 말이나 될 뻔한 일입니까? 나무들이 '내가 지금 열매가 맺을까?' 꽃은 폈는데 열매가 맺을까 못 맺을까 이런다면 그 말이나 됩니까? 그냥 뿌리가 있기 때문에 싹이 있으니 그대로, 그대로 여여하게 살고 열매도 맺고 꽃도 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그거를 내가 공부가 잘 되는가 안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건 못 믿으니까 그런겁니다. 내가 완벽하게 내 뿌리가 있다는 것만 믿는다면 그 싹은 거기에 의지하고 전체가 거기에 의지하게 됩니다.

49재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문 사십구재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본래는 49재까지도 가지 않아요. 이 도리를 알면은, 그 전에 어떤 신도님에게 "아버지가 당신 마음에 있다"고 말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물방울 한 방울이 있는데 한 방울 마저 한 방울과 같이 한 거와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가 그냥 하나가 돼서 사는 거죠. 그와 같은 겁니다. 사람들이 49일을 해놨으니까 49재지, 한 찰나예요. 몸뚱이가 가기 사흘 전에 벌써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고 일 주일 전에도 49일이 될 수 있죠. 꼭 49일만 49일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급하게…. 예를 들어서 부모상을 입은 사람이 빨리 식구가 외국에를 가야할 텐데 49재를 지내고 가야겠다한다면 사흘을 49재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고정돼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죠. 그거는 부모의 묵은 은혜를 갚게 하기 위해서 49재, 7.7재 해놓은 거죠. 이 도리를 체득하면 그렇게 자유스럽다는 얘깁니다.

'놓는다'는 말 아리송합니다

문 저는 몇 년 동안 책도 읽고 법회에도 참석했었습니다만… 맡긴다는 말은 알겠는데 놓는다는 말은 아리송하기만 합니다.

답 믿고 놓고 맡기라는 건 우리가 배워가지고 믿어야 되겠다 이러는 게 아니고, 본래 꿰어져 있으니까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믿고 맡겨 놓는다는 것이 바로 내 윗 눈썹과 아랫 눈썹 같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름을 믿을 겁니까? 형상을 믿을 겁니까? 이 세상에 누굴 믿겠습니까? 부부들끼리도 할 말 못할 말 가려서 해야되고 자식한테도 가려서 해야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알고, 슬프고 즐겁고 한 것은 자기 뿌리만이 알고 있는 겁니다. 본래면목을 알고 들어가면 무엇을 말기고 말고 할 것도 없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니까 '믿어라' '맡겨라' '놓아라' 하는 거예요. 믿고 놓고 맡기라 할 때 중심을 딱 세우고 생각을 잘해야지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빼버린다면 나침반이 없는 격이니 어떻게 부처가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본래면목 자리에서 나고 드는 것이니 잘 생각해서 그 자리에 놓고 돌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먹고 자고 일하고 하는 그대로가 용(用)이라고 해서 '이게 그냥 용이 아니겠느냐' 한다면 생각나기 이전을 볼 사이가 없어요. 도리를 알면 그대로가 '용'이지만 그것을 모르기에 처음에는 그냥 '용'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경계를 한군데로 몰아 누가 하는 것인가, 용이 나오기 이전, 말 나오기 이전, 생각나기 이전을 참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놓고 맡기라는 것이 말만 틀릴 뿐이지 그 뜻은 다 같은 겁니다. 믿는다면 놓을 수 있고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맡겨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조상님을 주인공에 놓는이유

문 큰스님 법문을 듣다가 의문이 나서 질문을 드립니다.

항상 나와 조상님이 한자리 하고 있는데 왜 주인공에다 조상님을 놓으라 하셨는지요. 또 조상님을 주인공에 놓는 것과 조상님이 같이 한다고 믿는 것과 공부하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답 그것은 세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 차원은, 모르는 사람들이 형식에 따라서 천도식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라도 해라' 하고 말씀해 놓으신 거를 따라서 그렇게 해주는 천도식이 있고, 또 한 단계는, 여러분이 이 도리를 공부하면서, 주인공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처음 오신 분들도 그렇고, 스님네들이 마음의 도리를 알아서 떡 한 그릇을 차려놓고 한다 하더라도 함이 없이 차림이 없이 했을 때, 비로소 영령들께서 그 마음 안에 들어오면 전체가 내 아님이 없는 도리에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러니 어떤 거를 먹고, 어떤 거를 갖고, 어떤 거를 할 게 없이 전체가 자기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스님네들이 공부한 차원에 따라서 그 영령들도 천도가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 신도님들은 즉 말하자면 천도를, '우리 조상들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또 조상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자손들도 잘된다더라' 하는 생각으로서 천도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생각을 할 때, 모든 걸 맡겨 놓고서 조상님의 천도를 할 때, 일체제불과 조상님들이 자식을 위하는 마음, 마음과 마음이 한데 합쳐집니다. 합쳐짐으로써 즉 말하자면 수분이 적은 사과같은 데다가 꽂아 놓고서 불을 켜는 그러한 불과는 달리, 아주 큰 밝은 불을 봤을 때 '아이구, 내가 추웠는데 저기 큰 밝은 불이 있으니까 그리로 가서 따뜻하게 밝게 살아야겠다' 했을 때에 그게 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알지도 못하고 살면서 끄달리다가 돌아가면 그 차원의 그릇 밖에 안됩니다. 사발이다 종지다, 이렇게 천차만별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한 그릇에 갖다가 놓고 밝게, 개미도 지나갈 수 있는, 개미 지나가는 것도 볼 수 있게끔 밝음을 그대로 맛볼 수 있고, 모든 게 나 아님이 없고 먹을 것도 내것 아닌 게 없으니 한 찰나에 천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단계는,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모든 것을 정말이지 당당하고 원력이 있고 그랬을 때 '일체제불의 마음이나 모든 조상들의 마음들이 둘이 아닌 까닭에, 그 한자리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나고 드니 몇 가지 놓고 빌고 해봤자야 그것이 아니지 않나' 하는 원력이 있을 때에 그것은 촛불 하나 안 켜놔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인등을 켜니까, 그 밝은 인등을 켜기 때문에 그 인등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한마음 속에 온 누리를 다 덮고도 남음이 있고, 밝고 온 누리에 통신 안 됨이 없고, 온 누리에 한마음으로서 공심으로서 돌아갈 때에 그 조상의 마음도 그냥 거기 한자릴 하는 거죠. 따로 지내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나' 하나 죽는다면 계율은 절로 다 떨어진다.

더러우면 닦고 흐트러져 있으면 가다듬고 망가지면 고치고 하는게 계행이니 생활 속에 하나부터 열까지 계율 아닌 것이 없다. 올바르게 살고 올바르게 행하며 사는 것이 계행이다.

부처님의 계율은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라'가 본 뜻이 아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많이 하다 보면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아무리 나쁜 것이라도 용도와 분수에 따라서 한다면 재고의 여지가 있다. 예컨대 오계만 해도 '하지 말라'로 일관되어 있지만 요즘에 와서는 긍정적으로 '살생하지 말라'를 '평등한 자비심으로 생명을 사랑하라'로, '도둑질 하지 말라'를 '보시를 행하여 복덕을 지어라'로, '사음하지 말라'를 '몸과 마음으로 청정행을 닦으라'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를 '진실만 말하고 신뢰를 지켜라'로, '술 마시지 말라'를 '언제나 밝고 바른 지혜를 가져라'로 해 놓으니까 계율이란 안 함으로써 지키는 게 아니라 부처님 뜻을 받아 행해서 지키는 것이 된다. 근본 마음이 청정하고 바르면 따로이 세울 게 없다.

계율을 세우려면 2백50개가 아니라 수천 개도 세울 수 있다. 세상 전체가 계율 아닌 게 어디 있는가. 문제는 겉으로 세워놓은 계율이 아니라 근본 마음이다. 가령 남을 조금이라도 해롭게 하는 행을 한다면 계율을 범한 것이고, 그러한 생각을 한번 일으켰다면 그것 또한 계율에 어긋나는 것이다. 모든 계율이 한군데서 나고 드는 걸 알면 계율이 몇 개이든 전체 계율을 다 지키는 것이고, 그것을 모른다면 전 계율에 다 어긋나는 것이다. 2백50계다, 3백48계다 할 것이 없이 전체가 계율이니 한마음으로 지키고 행해야 한다.

계율은 주어지면 짐이다. 그러나 일체 경계를 다 근본주처에 놓아 가면 구태여 계율의 자로 재지 않아도 저절로 계율이 지켜진다. 그때의 계율은 자유의 날개이다. 계율에 자기를 맞추려 하지 말고 내 안에 이미 갖춰져 잇는 계율이 우러나오도록 하라.

모든 것을 주인공 자리에 맡겨 놓는다면 구태여 팔정도니 육바라밀이니 사성제니 십이인연이니 따지지 않더라고 계율을 다 지킬 수 있고 더불어 다 같이 유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일일이 따져서 이렇게 보아야 한다. 이렇게 들어야 한다, 이렇게 정진해야 한다는 식으로 모든 소리를 다 해야 하고 그렇게 행해야 한다면 복잡해서 언제 자기를 알 수 있게 되겠는가. 그러기에 이론 따지고, 경전 따지고, 학식 따지고, 옳고 그름 따지고 할 사이 없이 '곧바로 들어가라!' 하는 것이다.



중생인 나를 못 미더워 한 나머지 나를 부정하며 계율로 얽어 매기보다는, 부처인 나의 근본을 믿어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하라. 그것이야말로 계율을 초월하여 계율을 지키는 긍정의 방법이다. 본래 부처인 우리들은 자신의 빛으로 사는 것이다.

불법은 자유인이 되기 위한 공부이다. 자유인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 계정혜가 세워졌다. 그러므로 자유인이 되기 위한 계정혜가 새로운 굴레가 되어 부자유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주객이 뒤바뀐 일이라 아니 할 수가 없다.

계율이 이러하고 청규가 이러하니 이렇게 해야만 한다, 저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계율을 들고 있는 사람보다는 계율을 다 놓은 사람이 진실로 계율을 지키게 된다. 그렇다고 계율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다. 인연 줄이 얽히고 설킨 데서 일어서려면 먼저 관념의 굴레를 벗어 던지는 작업부터 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가 시켜서 가 아니라 상대와 때와 장소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데 자기 마음으로 자기를 다스려야 하지만 내 속에 있는 중생들은 모르니까 때에 따라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나온다. 그때에 다시 굴려서 되놓고 또 놓고 가면 바로 굴레에서 벗어나려 애쓰지 않아도 벗어나게 되는 것이니, 따라서 남이 주는 계율에 매이기 전에 먼저 안으로 놓는 작업부터 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직접 들어가는 순리이다.

마음으로부터 계율이 우러나오려면 모든 경계를 하나로 보아야 한다. 예컨대 누구로부터 까닭 없이 한대 맞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마음 안으로 굴려서 녹여야 한다. 그때야 자연스런 계율이 우러나오는 것이다. 고로 마음법에서는 인욕이 이미 인욕이 아니다. 그것은 참는 게 아니라 이미 '참을 것도 없음'이다. 그렇게 크나큰 마음, 대장부의 마음으로써 세상을 보아야 하고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곧 불법의 생활화인 것이다.

원통을 벗어난 사람인 경우에는 자재로이 통 안팎을 들고 날 수가 있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걸림이 없다. 그러나 통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에 한해서는 통 안의 이치로 보고 듣고 행동하고 느끼고 하니까 걸림이 많다. 따라서 제가 걸리지 않더도 다른 사람의 눈에, 귀에 거슬려 그로 하여금 마음에 걸림이 있게 해서는 안된다. 제아무리 저 언덕을 넘나든다 해도 일체는 개별적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돌아가므로 모르는 사람에게 죄업을 지어 주어서는 안된다.

협찬 : 주 인 공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한마음속엔 온누리 덮고도 남음 있어

☞ 15면에서 계속

고 자시고 할 것도 없게 되죠. 그래서 생각으로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과 정말로 이 도리를 알아서 함께 하는 것은 천양지차라는 겁니다.

어머니 암이 재발했어요

문 스님. 안녕하세요. 편지로 처음 인사드립니다.

많은 생각을 하다 결국 편지로 스님께 여쭈어 보려고 몇자 적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하지만 근면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3년전에 어머니가 대장암에 걸리셔서 수술을 한 후 99년 올해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충격인지 병이 재발하셔서 암투병중 이십니다. 다행이 제가 결혼을 안했기 때문에 환자 주변을 조금씩 보살필 수 있습니다만 잘 드시지 않으셔서 마음이 심란합니다.

전에 남동생에게 들으니까 스님이 한 남자분에게 (암에걸린) 감자물이나 삶아 먹던지 한마디 하신것이 좋은 결과를 봤다고 하길래 저희도 따라하긴 해 봤는데… 저희 어머니에게 어떤 음식이 좋을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제가 평상시라면 참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저도 웃을 일이지만 저희는 그만큼 마음이 어렵습니다. 스님이, 신문에 적으신 여러 말씀들을 생각으로 하고 마음으로 하는데 어머니가 아파 하실때 마다 흔들려 버립니다.

요즘은 어머니 꿈에 돌아가신 외할머니까지 나타나신다고 하니, 점이나 보러 갈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평소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병원에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유독 우리 어머니만 살려달라고 비는 것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냐고 병들고 죽는 것이 이치겠지.. 그런데 이렇게 욕심을 부리나 아니면 편지까지 써 가며 호들갑인가. 우습지만 이토록 제 머리속이 복잡합니다. 동생은 시간이 나면 찾아가 뵙자고 하지만 제 생각엔 스님 얼굴이나 뵐수 있을까해서 이렇게 몇자 적습니다. 어리석은 저희에게 몇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여러분한테 떡 떼어먹듯이 얘길 해도 글쎄, 내가…. 병이 나서 정말 고칠 수가 없다는 병도, 병이 났으면 자기네들이 그저 정성스럽게 치료하는 셈 치고 매일 왔다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나한테 전부 안겨요, 나한테. 누가 대신해 주나요, 과거에 짊어진 것을. 내가 만약에 해줄 수 있는 재주가 있다 하더래도 그것은 해줘서는 안돼죠. 왜냐? 그게 무뎌지면은 남한테 바라는 것만 알지 자기가 할 줄은 모르거든요. 할 줄만 안다면 세세생생에 벗어날 수가 있는데 할 줄을 모르니까 그거는 해줘도 안 되는 법이죠. 그래서 놓으라고 한마디하면 그거 달 떨어지기 전에 집안 얘기합니다. 그건 아랑곳없이 말입니다. 마음이 다급해서 어떤거라도 하려고들 하는데 글쎄요, 오히려 더 열심히 관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본인 주인공자리를 믿고 더 간절히 관해보세요.

머리론 되는데 열정 없어요

문 스님께 감사 드립니다. 감로수와 같은 법문들 저에겐 항상 빛이 됩니다. 98년도 1년간을 부산지원 청년법회에 다녔고,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은 법회에 안나가지만 큰스님의 깊은 뜻은 항상 빛이 되고 희망이 됩니다. 10년전 라즈니쉬의 책을 읽고 깨달음에 목말라 했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열정이 생기지 않아서인지 그 자리에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10년 전보다 성장한 것은 별로 없고 삶의 짐만 더 무거워 지는 것 같습니다. 머리속으론 깨달음에 대한 생각이 줄기차고, 내 인생을 그것을 위해 살아야 함을 알고 있지만 진전도 별로 없고, 수련하려고 노력해도 잠시 잠깐 뿐입니다. 머리로는 되는데 가슴으로 순수한 열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순수한 열정 그 자체가 될 수 있겠는지요. 스님의 크신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내가 미국 L.A에 갔을 때의 일인데, 15시간 비행기를 타고 아르헨티나에 가야할텐데 그날 아주 피곤한 것 같아서…콜로라도에서 바로 와 가지고선 설법을 하고 이러다 보니깐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누웠는데 스님들도 영 가질 못하게 하니까 꾀가 조금 납디다. 그래서 '나도 좀 쉬어볼까?' 이러구 했는데 전화가 오는 겁니다. 스님이 오실 줄 알고 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신다면 어떡하느냐고 엉엉 우는 겁니다. 그 순간 말입니다. 피로했던 것도 어디 가고 하늘이 그냥 가로막는다 하더래도 가야지 하는 생각이 나면서 와짝 일어나는 기분이에요. '가야지!' 아, 그러니깐 일어나집디다. 이 세상이 다 가로막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가로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듯이 좀 열정있게 해 보십시오. 그러구 전짱에 나갔으면 그냥 전진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더 우리가 빠릿빠릿하게 결사적으로, 내가 이 길을 걷지 않는다면 세세생생에 끄달릴거다, 그리고 내가 위로 빚을 갚아야 할 부모도 건질 수가 없고, 아래로 뿌려 논 자식들의 모든 업보도 해결할 수가 없다, 이거는 결사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에서 생명들이 작용하는 것을
믿고 마음나는대로 행하세요
좋고 안좋고 떠나 무조건 놓아요

10년은 공부해야 한다는데…

문 안녕하십니까? 포항 고불선원에 다니는 최진구라는 불자입니다.

저는 새벽4시에 예불 드리고 04:20~05:00, 05:10~06:00에 걸쳐 참선하고 있습니다. 스님들도 10년은 공부해야 좀 느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화두를

- '참 나'와 '가짜 나'를 볼 수 있는가?

-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되는가?

- 그렇지 스스로가 스스로를 볼 수 없으니 참 나를 거짓 나에 비추고 가짜 나를 참 나에 비추면 될 것이 아닌가!

- 그럼 나의 이 조그만 수행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기는 과연 언제일까? 나도 볼 수 있을까 볼 수 있는 자격은 되는가……만약 볼 수 있다해도 까마득한 세월이 필요할 거야…

①참선 하는 동안 제가 깨달은 것이라면 이것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없어졌습니다.(오랜 동안 정진 후에 나타나는 결과이니 말입니다.) 좋은 가르침 바랍니다.

②그리고 직장 다니고 새벽에 참선하니 온통 피곤하여 근무하는데 여간 고충이 아닙니다. 어쩌면 좋을 지 고민입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답 이 몸 나온게 화두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색이자 즉 공이고 공이자 즉 색이니 어찌 공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얘깁니다. 그러나 공해서 텅 비었다는 것은 없어서 없다는 게 아닙니다. 너무 찰나찰나 화해 가면서 돌아가니까 공했다는 거죠. 그러니 공한데서 나오는 거 공한 데다 놔야지…, 이것이 화두예요. 내가 이 세상에 난 것이 태초요, 내가 이 세상에 난 것이 바로 화두입니다. 이 몸뚱이가 화두거늘 공한 데다가 또 화두를 잡어?

예전에 석존시대에는 화두를 따로 주지 않았고 부처님을 따로 모셔놓지 않았고 선방을 따로 해놓고 따로 앉는 시간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앉고 싶으면 앉고 서고 싶으면 서는 거예요. 숨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이 그냥 참선이거늘 어찌 앉았다가 일어나면 다 했다고 할 것이고 앉았으면 참선한다고 할 것이고 선방에 가면 선방에 왔으니까 나는 지금 참선을 한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집에 오면 난 집에 왔다고 하니 선은 항상 조금 갔다 조금 그만 두고 조금 갔다 도로 오고 조금 갔다 도로 오고 이런 형국이나 마찬가지죠. 항상 선이 돼야할텐데 그러기 때문에 선은 끊어지죠. 선이라는 이름조차도 붙지 않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선방에 가서 참선을 하고 앉았어야 참선이 된다고하니 말도 안되고 화두를 어느 큰스님한테 화두를 받아야 그것이 공부가 된다니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너무도 여러분이 모르니까 모든 큰스님네들이 고기를 건질려고 낚싯대를 던졌던 거예요. 좀 사람이 있나 하구선 낚싯대를 던져보니까, 그걸 가지고 미끼를 삼아서 공부하는 겁니다. 어떤분들은 나를 흉을 볼런지 모르지마는 그 진실한 눈물 피 한방울이 아니라면, 오장육부의 뼛속에서만이 흘러져 나오는 그 피 한방울이 아니라면 이 우주에 전율이 흐르는 그 대도의 이치를 아마도 까맣게 모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딴데는 선방에서 좌선을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앉아서 좌선하는 것도 서서 일하는 것도 또는 화장실에 가서 똥누는 것도 참선이라고 가르치는 원인은 바로 그러한 모든 걸 종합해서 가르치기 위함이고 어떠한 점도 이즈러지지 않게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딴 데 있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 말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진리가 그대로 부처님 말씀이고 그대로 부처님 법이고 그대로 우리들의 법입니다. 백짓장 하나 사이를 놓고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깨우쳐야지, 깨우치질 못했으니까 중생이지.' 이러고 '내가 깨우쳐야 될 텐데 깨우치질 못한다' 이런 생각을 모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본래 불성도 가지고 있으며, 즉 불성이 자부처니까 자부처도 자기한테 있으며 또는 중생이라는 육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육체하고 정신하고 어떻게 풀이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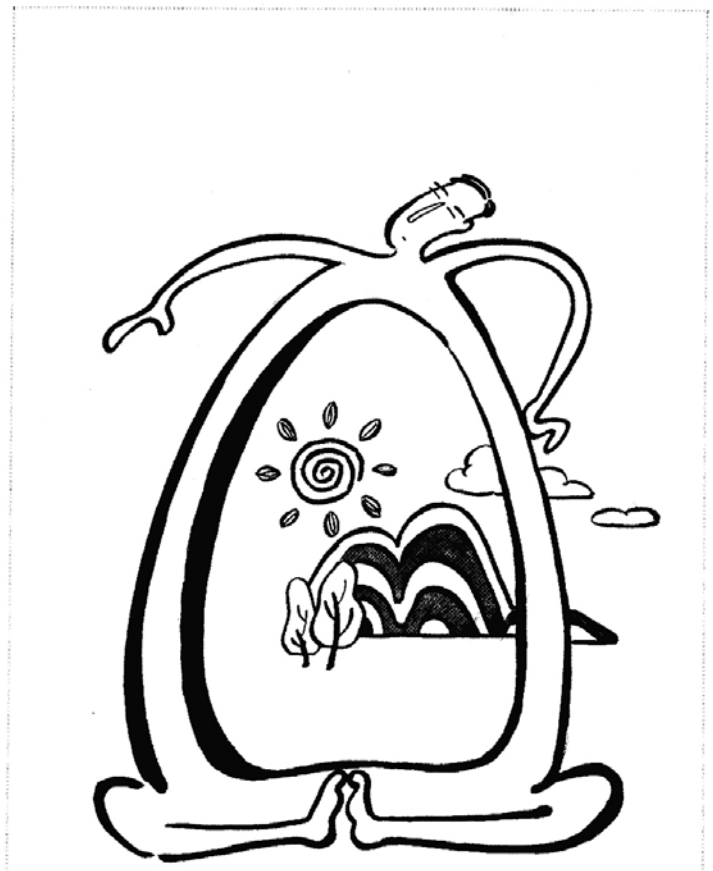
둘이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우리가 진리가 지금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돌아가고 있음을 알게 될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봤을 때 내가, 내가 봤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많이 보는데, 너무 많이 들었는데 내가 어떤 거는 듣고 내가 어떤 거는 안 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고등동물로서 갖추어 가지고 본래 나와 있다, 갖추어졌다하는 거고 또 여러분이 갖추어진 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듣고 보고 내고, 들이고 내고 들이고 내고 여여하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더딘가, 깨우치지 못했다, 중생이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자체 쓰는 것이 벌써 차원이 저 언덕을 넘어서지 못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부자고를 떠나서라는 얘기는 가난하다고 슬퍼하지 마라 이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닥쳐도 거기 놓고 슬기롭게 웃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대로 진리를 한번 보세요, 내가 아무리 진리가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니 좀 보라고 해도 그게 반절만 들어가지 전체가 다 들어가질 않아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자리를 붙잡고 자기가 정말 자기 샛별을 봐서 둘 아닌 거를 알게 되느냐, 그럼 세세생생을 알게 되죠.

그런데 그걸 깨우치지 못했다 하더래도 그 줄을 잡고,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백짓장 하나 사이의 차원의 근기를 편안하게 놓고 한번 보세요, 그대로 구정물이 들어오는 것도 거기, 새물이 들어오는 것도 거기, 파도가 이는 것도 거기, 바람이 자서 물이 자는 것도 거기, 죽는 것도 거기, 사는 것도 거기, 밥먹는 것도 거기, 똥누는 것도 거기, 잠자는 것도 거기, 매사가 그러한데 내가 별달리, 별나게 '내가 잤다' 하지 않죠? 만날 자는 거니까. '내가 봤다' 할 수가 없죠? '내가 들었다' 할 수가 없죠? 가정에 항상 만나는 사람도 만날 만나기 때문에 '만났다' 할 수가 없죠.

그냥 그건 말로도 안되는 거예요, 자연으로 그냥 넘어가죠, 내가 했다, 내가 만났다, 내가 갔다, 내가 온다, 내가 살고 있다 이런 게 그냥, 그냥 자동적으로 넘어가지 생각들을 하고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여여하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드는 것을 모두 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생각을 놓고 내가 지금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진실히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림 · 최주현

마음공부와 병원치료

문 육신에 대한 질문을 하려 합니다. 건강이 안 좋은 것이 점점 겉으로 나타나다 보니 자신이 없어집니다. 스님께서는 이리 왈 저리 왈 그렇게 돌아 다니는 것은 안 좋다고 하시지만 마음공부 하면서라도 양방이든 한방이든 치료는 하는 것이 바른 길이 아닐런지요?

답 우리 사람이 살아나가는데는 천차만별의 용도를 다 해야만 하는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거든지 그걸 의아심을 가지고 이거는 부처님법이 아니다, 이거는 부처님법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공부 하는 데 번연히 알면서도 '너 진짜 있다면 나와봐' 할 때도 있고, 몸이 아픈 것도 약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밥도 약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걸리지 말고 그대로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또 정히 내가 하고 싶다 하는 것도 법이니까요. 어떤때 꼭 소금을 썼으면 좋겠다 이럴 때도 법입니다. 그것도 자기의 자성의 법이죠. 옛날에 이런 적이 있어요. 어떤 신도가 배가 아파서 팔짝팔짝 뛰고 야단법석이 났는데, "스님, 스님! 어떡할까요?" 전화가 왔어요. "따뜻한 물에다가 소금 좀 타서 먹고, 따뜻한 소금물로 배에다가 찜질을 좀 해줘." 그런데 그걸 병원에서 볼 때는 잘못돼도 이만저만 잘못된 게 아니죠. 대장이 꼬였는데 말입니다. 이거는 그냥 오히려 망가뜨리는 일이지, 나한테 그러기 전에 병원의사가 와서 진찰을 해보더니 대장이 꼬여서 빨리 큰 병원으로 가보라 하는데 돈은 없고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를 한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고 나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법이다, 저것이 진짜법이다 할게 없이 자기가 생각해서 이렇게하면 괜찮겠다 할 때 그게 진짜 법이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맹장이 아픈데 따뜻한 물에다가 소금을 타서 손발을 찜질을 해주구서 그걸 한 종지 먹어주면 어때요? 그것도 대처할 수 있는 방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학적으로 볼 때는 천부당 만부당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급한대로 대처를 할 수 있다면 그것도 또 한 가정이 살아나가는데 상식이 아닐까 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 대로 하되 의식적으로 그러질 말고 안에서 생명들이 모두 작용을 하는 것을 믿고 마음나는 대로 행하세요, 무엇이 좋고 안 좋고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맡긴다면 어떤 상황이건 그 자리의 작용임을 믿게 될 겁니다.

참선하려 앉으면 눈물이…

문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답장을 주셔서 목이 메었습니다. 스님께서 발간하신 책은 거의 다 보았는데도 조금치의 진전도 없는 것 같아 이번 일요일에 스님 설법하시는 모습을 직접 찾아 뵙기로 했습니다.

마음이야 한번 친견하고 싶지만 워낙 찾는 분들이 많다고 들어 먼발치에서 바라뵙는 것으로 고맙게 생각하려 합니다. 행주좌와 어느 것도 도 아닌 게 없다고 하셔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어쩐지 알 수 없어 짧은 시간 자리에 앉아보았더니 그때마다 눈물이 흐릅니다. 슬픈 감정은 없고 편안한데도 왜 눈물이 흐르는지요. 스님 말씀을 인터넷을 통해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합니다. 마음은 굴뚝같은데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한 마음에 초조하기까지 합니다. 저 같은 초발심자를 위한 글을 인터넷에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님의 말씀 말씀이 다 쉬운 언어인데도 제것으로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답 전자에 이런 공부를 하면서 사람같이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죠, 지금의 몸을 태어나기 이전에 말입니다. 그것을 정신계라고 하죠, 그래서 법문을 듣는다거나 하다가 그 이치를 들으니까 예전에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하던 생각이 나고, 본인은 몰라도 자기 주인공만은 알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거죠, 눈물이 나면서도 속으로는 흥겨웁고, 흐느껴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본인이 지금 찾고 있는 그 장본인예요, 그 자리를 믿고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전자의 업식이 녹는 것이니 더 열심히 정진하세요.

'무조건 살려야' 관했는데…

문 끝없는 자비심으로 항상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큰스님께 감사올립니다.

오늘 저의 친구 처남이 17시간동안 3차에 걸친 뇌종양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환자가 무척 착하고 27세에 어린 애기가 둘이나 있어 가슴이 너무 아파서 "주인공… 주인공만이 살릴 수 있어…"하고 관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환자의 생명이 위독하다하여 대구지원에 전화를 하여 스님께 사정을 말씀드리니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주인공의 뜻이니 믿고 맡겨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잘못이 없다면 무조건 살려야 한다고 관을 했습니다.

어쨌든 수술중에 죽지는 않았고 의사선생님의 소생가능성은 모른다 하는 말을 뒤로하고 새벽에 집으로 왔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잘못 관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그래요, 무조건입니다. 어떤일이건 그렇게 놓아야합니다. 상대가 어떤 이유로 그런 병을 앓게 되었건 또는 잘못이 있건 없건 따지지 말고 마음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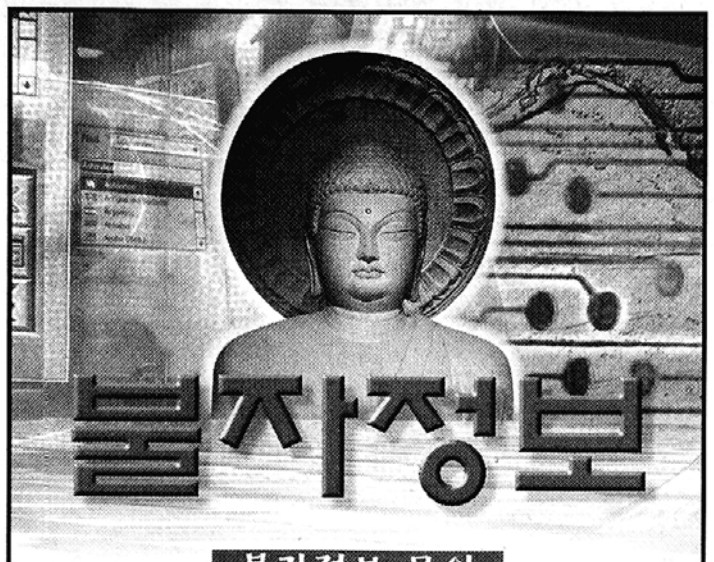
그러나 지금 앓고 있는 병만을 보는 것하고 그 사람의 전체를 살피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그 자리에 믿고 맡기라는 겁니다. 되고 안되는 데 매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계를 받아들이는 그 굳은 믿음이 중요합니다. 처사님이 관한 방법이 잘못된 건 없지만 공부하다 보면 더 넓게 보고 관하게 될 겁니다.

따지지 말고 경계 받아들이는 믿음 중요

둘아닌줄 알면 찰나찰나 도는 진리도 알아

협찬 한마음선원 신도회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 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2)1166-3858

강좌

사주명리학 교육강좌
1 기초과정 : 3개월
2 중고급(통변) : 3개월
3 저서 : 쉽게 푼 역학 / 말하는 역학
통변술 해법 / 천직외 다수
김봉준이 직강합니다.
02)2275-5607-8
서울 중구 충무로3가 34-4(영화빌딩 403호)
김봉준 역학원

최면-견성지도 수련테프 판매!!
1.생물 =생명(?+기록물)+물질(육체)
(1).? ; 자유자율성, 不生不滅, 능동, 無形, 무게부피無
(2).기록물(업); 경향(습관)성, 有生不滅, 有形, 무게부피無
(3).물질(육체); 법칙성, 부자유, 수동타율, 生滅, 有形, 무게부피有
2.견성; 볼래야 볼 수 없는 ?을?이 본다.
3.?을 보아 병과 운명을 고친다.
4.만성난치병/금연 금주/
악습비만체질교정/학습력강화
박민수 참선 교육원 (062)251-2733 017)609-9068

전통불교 의식 연구원
02) 511-0108

구인

공양주 보살로 일하고 싶습니다.
0417)554-7986

노스님 시봉하며 공부하고 싶습니다.
02)487-0455

스님을 찾습니다.
96년 4월 초파일 적멸보궁 법흥사에서 만난 스님을 찾습니다.
2살된 아이를 보고, 저와 같이 기도를 하자고 말씀하신 스님을 찾습니다.
법명은 모름. 경상도 언어 사용
0357)541-3819
011)448-3115

수행하거나 텃밭을 가꾸며 생활하실 거사님 또는 부부를 모십니다.
김천 **금 봉 사**
0547)430-0049
0547)433-7765

부전(비구니) 스님 구함
지장신앙과 포교에 관심 있는 부전스님을 모십니다.
문의: 지장불교근본도량 공덕원
부산포교원: 051)625-2253,2254
대구포교원: 053)741-0077,0088

수양원

◆청학사 수양원◆
■수양·기도·공부·참선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月 숙식비 : 30만원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95)8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수양,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기 좋은
최적의 도량
합천호부근 **청강사**
· 가액 : 월30만원
(약간명 모집)
0599)932-5706

불교용품

♣보 리 수♣
취급 품목: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달·마·보·급·처
0346)575-2323

수맥차단
차량운행
이사,삼재
3회의 불보살님 견불후 불교미술탱화 입문 12년<관음보살도 보급중>

天書 인연불자 보급
마음 다스리는 글·사업번창 이루고 고민 다스리는 글·화두 불수 있는 글·불법 이루는 글

※ 홍광 사진 보급 ※
미덕사 0441)852-8990

간 병 신
교육받은 전문간병인 항상 대기로
유료 간병 서비스는
물론 무의탁 노인 등에게
무료로 간병 자원봉사
불심공은 불자간병은
전화 : 02)363-7884
팩스 : 02)364-7884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무료직업소개소**

전통 불교 의식 모집
관음시식 도량게 복청게 초게향
◆교육기간 ◆
3개월(개인지도 가능)
전통불교의식 연구원
0351)865-4893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항상 피곤하신 분
술을 자주 드시는 분
간염, 당뇨병, 고혈압, 체질개선
정력증강, 손발냉증, 변비, 요통등...
■가격: 분말 230g 39,000원
환 250g 45,000원
동양물산(주)
02)832-0742011)381-8157

불자가 운영하는
현대자동차 대리점
"믿고 맡겨 주십시오."
대구 진전점 대표
원응 곽 영 순 합장
053)639-1100
011)509-9456


귄 달마스님
◆사주 : 대운·행운·신수
◆작명 : 출세 문자 비법
◆관상 : 빈부 귀천 학당
◆풍수 : 자손 창성 번영
◆부적 : 발원 소원 성취
남녀 선착순 10명 철학특별지도
▶상담 시간 : 평 일 10:30 ~ 17:00
(일요일 휴무) 토요일 10:30 ~ 15:00
02)999-5551
02)999-4804
051)418-4804
달마사

제주 (땅)전문컨설팅
저희 가람공사에서는 불자님들의 안락한 노후를 위하여 투자가치가 높은 제주 전지역 임야, 준농림지, 과수원, 전원주택, 기타 물건을 몸보시 하는 마음으로 성심껏 상담및 전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물건 다량확보)
가람공사 공인중개 사무소
전화 02)488-4304
H.P : 011)9002-2404

사람을 찾습니다

◆ 성명: 윤 정 숙 ◆
나이: 42세가량 키는 163cm
충청도 말씨
암자나 절 주방에 기거예상됨.
011)217-7468
(야간 3463-5770)
윤정숙 거처를 제공하시는 분에게 후사하겠습니다.

사찰안내

사찰 운영하실 분
◆위치 : 경기도 평택시 근교
◆부지 : 약 1,000평(대지 약740평, 임야250평)
◆법당 : 40평
◆요사 : 40평, 미륵불, 관음불
◆가액 : 답사후 결정
◆특징: 주차장 및 조경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대작불사에 적합한 포교 및 기도도량입니다.
※전국의 사찰, 사찰부지, 포교원 양도, 양수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해동불사 이처사 합장
02)389-7880/ 019)390-6110

불사 종합안내
◆전국에 소재한 사찰 매매 전세 안내
◆전국에 소재한 포교원 안내
◆전국에 소재한 사찰부지 안내
◆부전스님, 공양주, 의식 집전스님 가실분, 모실분 무상안내
※전국에 소재한 사찰, 포교원, 사찰부지 급히 구합니다 부처님을 모시는 심정으로 성실히 상담에 응하겠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사찰을 양도하실 의사가 있으신 분은 연락주시면 즉시 좋은인연 연결하여 드리겠습니다
多寶佛事 02)3545-056 019)234-5506

사찰 (급) 안내
◇위치 : 서울 ◇대지 : 60평
◇건물 : 40평
◇가액 : 1억 5천만원(급매)
◇강능고찰터 1천평(4천만원)
⊙ 전국 사찰·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2)723-4082
광진불사

사찰 안내
◆위치 : 전남 함평군 해보면 금계리(불갑산내)
◆부지5,000평(종교부지), 법당 30평, 요사채 30평-방4개, 거실2개, 화장실 2개, 산신각
◆산세수려, 사찰내까지 차량진입가능
◆가격: 2억 5천만원
0615)323-5811
011)892-8174

사찰(급) 안내
◆ 위 치 : 경남 산청
◆ 부 지 : 약 2113평 건물5동(법당, 산신각, 요사채2동, 샘터, 창고 목욕탕 화장실 1동)
◆ 가 액 : 2억 5천만원(상담후 결정)
◆ 매매희망기간 : 올해 7~8월중순까지
◆ 특 징 : 그림같은 아담한 뒷산, 오염되지 않은 청정수가 마을앞을 흐르며 수질좋은 식수는 풍부하고 넓게 다듬은 도량은 좋은 수종으로 식수하여 전차 좋은 도량이 될 가능성을 지님.
◆절에까지 도로포장 및 주차장 있음.
◆답사후 결정
053)651-9363/0596)973-0305

사찰 안내
◆위치 : 경기 이천 장호원 (서울대 약 1시간대)
◆대지 약 437평,대광전 27평(사무실 포함), 범전 요사 15평, 요사 43평
◆가액 : 답사후 가격절충 (급한 사정으로 양도함)
◆특징 : 1.취락시가지 확정 도면 열람가능 (2개 대학과 약45만평 전자공단의 요충지) 2.신고속도 진설중(서울50분대), 녹지푸른 청정도량(고시원운영):연수원등 더로도 적합
0336)643-9051/012)925-6118

사찰 (급) 안내
◆위치 : 진주시내
◆부지 142평,대지(등기필) 법당·요사채 37평
◆가격 : 1억 1천만원
◆특징 : 진주시내 10분거리 소재, 교통편리, 준공4년, 고급전원주택 (임법당), 시설일체 무상기증
0599)933-7988/011)488-3339

사찰(급) 안내
◆위치 : 서울 노원구
◆대지 65평, 임법당, 건평 100평 (위층 법당, 아래층 요사채)
◆가격: 3억 5천만원
◆특징: 주차시설 완비, 전철역에서 2분거리, 주위에 아파트 5천세대 10월 입주-포교당으로 손색이 없음.
02)3391-4845/02)3391-4848
011)752-4842

연수원 및 사찰부지(급)
◆위치 : 경기도 홍천군 서면
◆특징 : 홍천강 유원지 및 대명리조트 10분거리
서울에서 40분거리, 숲속의 분지
약2500평(토목공사완료)
한라공인 0343)386-6444
중개사 016)212-0988

사찰 운영하실 분
◇위치: 공주
◇법당: 30평 ◇요사: 20평
◇부지: 11,000평
◇가액: 3억 6천
●전국 포교당 및 사찰 다량보유
●사찰 양도 하실 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안내
◆위치 : 대전 논산 국도 중간지점 (산속에 위치하여 기도도량으로 적합)
◆법당 35평(목조건물 외5포, 내7포), 삼성각 5평(목조건물), 요사채 35평(현대식 건물), 대지 602평
◆가격: 답사후 가격 절충
0461)733-3048/011)458-3048

사찰 안내
◆위치: 전북 군산 시내에서 15분 거리
◆ 법당 주산포 22평, 요사채 50평,신축건물, 거실 大 1개, 방 4개, 목욕탕 3개, 부엌 20평, 다용도실 겸 창고 1, 태양열 온수기 한통 설치, 약수물 연꽃독 설치
◆대지 : 360평(대지 80평, 밭 172평)
◆등기필
◆가격 : 2억 9천(절충가능)
※ 절엎에 3룸 지방문화재 석탑 있음.
0654)451-2410 / 011)671-5161

사찰(급) 안내
◆위치 : 경남 남해 봉화리
◆부지 7필지, 대지 및 임야 준농림 약 4만 5천평, 주택 2동 , 현재 유실수 농장임.
◆특징: 경관수려, 약수有, 사찰 수련원 및 실버타운, 납골당 · 절터 최적지임.
◆가격: 11억 2천만원
011)551-3535
0591)758-7370

사찰 운영하실 분
◆위치 :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내리 3반 343번지 계곡앞 태백산 도량 천탑사
◆부지 1,800평, 요사채 40평, 천탑천불 조성중
◆양도: 소유자 필요한대로 할 수 있음.
◆가격: 답사후 결정
0373)378-4777

사찰(급) 안내
◆위치 : 충남 금산 금산읍
◆대지 75평, 법당 10평, 요사채17평, 욕실, 화장실
◆가격: 1억
◆특징: 천연암반수, 산세수려
0412)751-0771

사찰 (급) 안내
◆위치:경남 마산 하안 시내와 5분거리
◆법당 2층 40평, 1층 공양실, 기도실 40평 - 산신당, 향토 찜질방 1체, 아파트형 요사채 20평 1체, 대지 1천평, 330평 등기필, 시설완비 A급, 일체시설 무료보시
◆가액 : 3억(답사후 결정)
011)559-9651/0551)286-0432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 달성
◆ 스님 이민 관계로 급히 양도
◆ 신도 다수, 비구니스님 환영, 도심지의 유일한 암자
◆가액 : 권리금 4천만원 (보증금 없음)
011)245-5467

포교당 안내
◆위치 : 부산 최고요지
◆평수 40평
◆법당, 청동 삼존불, 공양실, 방2개, 에어콘, 후불탱화
◆시설 최고, 옥상40평 사용 가능
◆보증금 3,0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1,800만원
051)293-0137
011)825-1662
※꼭 하실 분만 연락바랍니다

사찰 안내
◆위치 : 경남 하동군
◆대지300평,법당21평,요사채21평, 창고7평,주방5평,화장실
◆마당까지 차량진입가능
◆신개발지
◆절건축년도 5년전
0595)883-2448

사찰 안내
◆위치 : 경북 영덕군 축산면 부곡 1리 75번지
◆준농림지 : 1,800평 (대지200평)
◆건물 : 25평
◆가액 : 1억
0564)733-5366
011)655-3883

사찰 안내
◆위치 : 공주시
◆대지 200평, 요사채 40평, 법당 17평, 조경시설 완비
◆특징: 교통편리,주위에 전원주택 터미널에서 7분거리
◆가격: 9천 5백만원
0417)573-1652

사찰(포교원) 운영하실 분
◆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인구 밀집지역 ◆ 대 지 : 85평
◆ 건 물 : 법당17평, 주지실, 상담실, 거실, 방3개, 주방, 욕실(건평45평)
◆ 가 격 : 일억 팔천만원 (매매가)
◆ 특 징 : ●건축한지 3년 됐으며 사찰로 등기 되어 있어 어떠한 종교 행사도 할 수 있음. ● 건물 전면에는 주택 단지, 뒷면에는 야산에 산책로 조성되어 있음 (2K) ●전철역에서 택시 기본 요금거리 위치 (지하철4호선) ● 삼존불, 신중, 칠성, 산신 탱화 모셔져 있으며 법당 조성되어 있음. ● 단독주택이나 구조는 사찰용도로 건축하였음(현재 운영중) ●응자(오천만원) 할 수 있음
0345)419-3224 / 011)417-1008

사찰 안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소재
◆ 부지 약 3500평, 법당 40평, 요사40평
◆산세계곡 좋음.
◆가액 : 답사후 협의
018)273-9390

서울,부산지역 사찰구함
서울 부산시내 또는 근교 사찰이나 암자를 구합니다.
전화상담시 상담내용은 보안유지합니다.
018)273-9390

절터 안내
◆위치 : 충북 진천군 만승면 월성리 산6번지 (광혜원 소재)
◆대지: 약5500평
◆가액:급매 평당2만원
※충북 음성 톨게이트에서 약3분거리
※서울에서 광혜원까지 중부고속도로로 거리가 약1시간 정도 소요
※주차 입주 가능
02)521-3389

좋은 소식
서울에서 진정 조용하고 공기맑은 山밑 호젓한 단층주택, 창작활동이나 집필에 종사하시는 스님, 佛子님, 혹은 시골이나 山中에서 上京, 터전마련을 發願하시는 스님께 염가로 원려드리고져 함.
◆마당이 넓고 뒷山 산책로에 옹달샘이 있고, 앞 전망이 最高임
◆환 2年 사시면 반드시 發福 所願成就 하실 명당터임
※심사 숙고하셔서 꼭 하실분만 연락요망함
※국립 서울대가 車로 10분거리
▶대지70평, 건평24평(즉시 입주가)
016-344-3807(오후 3시~6시)
首 극락정사 住持 드림.

법당 안내
◆ 위치: 성북구 보문동2가
◆ 5층 30평 법당, 방2, 식당, 화장실, 욕상, 신축건물
◆ 주차장 완비
◆ 가액: 전세 5천만원
월세 1천만원에 80만원
02)923-1844

사 찰 (급) 안 내
마산시 회원구 회성동
◆ 서마산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건너편 ◆부지 450평 이상
◆ 주차장 무제한완비 법당35평 ◆목조건물 금단청필(3포 5포)
◆ 요사채80평 방8개 주방2개 지하20평, 명부전10평 단청필 주지실 12평
◆ 건물 완공은 3년 시설일체 무상기증 마산시내에서 개인사찰로는 규모가 가장 큰 도량, 스님 병안으로 매입코자 하오니 인연을 다 할 스님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합니다. ◆가액 : 8억 5천만원
◆층 공사비가 12억을 들었습니다. ◆장난전화 사절
0551)294-4889 / 011)885-2876

불자 세상보기

생활정보

'19세미만 판금' 표시의무화

생활 오는 9월10일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술과 담배에 '19세 미만 판매 금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국무총리실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9일 이같이 결정했다. 담배의 경우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넣어야 하며, 이미 제조된 주류와 담배는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유통이 허용된다.

'자연학습 관찰길' 10곳 조성

서울시가 시내 10개 산에 학생들이 등산을 즐기면서 각종 식물의 생태를 학습할 수 있는 '자연학습관찰길'을 조성했다. 관찰길은 와우산(창천동) 대모산(개포동) 용마산(중곡동) 봉화산(묵동) 안산(연희동) 봉산(수색동) 동명공원(고덕동) 매봉산(한남동) 수락산(상계4동) 오패산(번동) 등이다.

특수대학원서도 박사학위

교육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대부분 야간에 수업이 이뤄지는 특수대학원에서도 내년부터 전문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난해부터 도입된 전문대학원은 이론학습에서 탈피, 연구·개발을 위주로 교육과정을 편성해 전문직 인력 양성기능을 맡게 된다. 교육부는 12일 이같은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9월까지 관계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무료로 인터넷 자동접속

통신 KNK텔레콤은 최근 이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와 인터넷 자동접속프로그램을 무료로 내려받은 후 전국 어디에서나 PC를 전화선에 연결하면 시내전화 요금만 내고 인터넷을 즐길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02)552-4200

열차표 전자거래 시스템

교통 안방에서도 열차표를 살 수 있게 된다. 철도청은 고객들이 컴퓨터를 이용해 가정에서도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는 '열차표 전자거래'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철도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orail.go.kr)나 PC통신에 개설된 승차권 예매 사이트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예매하도록 돼있다. 9월18일쯤 본격 시행.

우리강산 푸르게 그린캠프

캠프 임협중앙회가 산림청의 도움으로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99그린캠프'를 연다. '숲은 희망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캠프는 △숲의 물 저장 △숲의 수질정화 △숲과 대기 △숲가꾸기 등으로 28일부터 8월4일까지 이틀동안 두차례 진행된다. 참가는 여고생으로 자격을 제한한다. (02)528-1054

어른들 무관심이 낳은 人災

어린이 대상 범죄·안전사고 급증

10세미만 사고사 선진국의 4배
정부, 아동사고예방 대책 절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와 안전사고가 갈수록 흉폭해지고 그 수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전체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 죄없는 어린이 희생자만 늘고 있다.

대낮 주택가 골목길에서 황산테러를 당해 사경을 헤매던 김태완(6)군이 투병 49일만인 지난 8일 숨졌다. 사흘 뒤인 10일에는 피아노학원에 가던 초등학생이 아무런 이유없이 중학생에 의해 칼로 찔려 상처를 입었다. 며칠 전에는 충북에서 초등학생 유괴사건이 일어났다. 유괴사건은 이제 뉴스거리가 안될만큼 흔한 범죄가 된 것이 현실이다.

이뿐만 아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 관련 안전사고는 가히 세계의 최고수준(?)을 자랑한다. 화성 씨랜드 참사는 우리가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해 얼마나 무방비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대문이 갑자기 닫혀 손가락이 잘리거나, 방충망에 기대 놀던 아이가 방충망이 뜯겨지면서 추락한 사고 등은 주위에서 흔하게 보고 듣는 일상사가 돼버렸다.

서울소방방재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놀이터 등에서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로 119 구조대가 출동한 횟수만도 300여회로 집계됐다.9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0세미만의 어린이 10만명당 사고사가 영국은 7명, 일본 10명인데 비해 한국은 영국의 4배인 2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어린이 범죄나 안전사고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예방책을 마련하는 기관은 없다. 통계자료 역시 부실하다. 어떤 사고로 얼마나 많은 어린이가 피해를 당하는지 알 길이 없다.

선진국의 사정은 다르다. 미국은 아동보육시설 기준법에 어린이 대피시설은 물론 장난감의 크기, 계단의 높이까지 세부적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영국에서도 '아동사고예방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도 각급학교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범죄나 다름없는 아동학대도 심각하다. 한국이웃사랑회 아동학대상담센터가 제시한 97년 159건이었던 상담건수가 98년에는 3백여건으로 증가했다는 통계자료는 아동학대가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황산테러를 당한 태완군을 매주 월·목요일마다 위로 방문했던 경북대병원 법사 법우스님(심묻정사)은 가족의 요청에 따라 태완군의 유골을 명부전에 봉안했다.

"아이들도 하나의 인격체"

들교의 눈

박찬웅교수(동국대 사회학)는 "어린이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전통적 사고방식에 따라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사회적, 제도적 통제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난사사경〉에 "마땅히 자애의 마음으로 어린애들을 양육하라"는 말씀이 있다. 〈육방예경〉이나 〈장아함경〉 등 많은 경전들도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와 사회의 도리에 대해 설하고 있다. 어린이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회라면, 어린이들을 나라의 동량으로 생각한다면 이제부터라도 부처님말씀처럼 어린이들을 지키는 자애로운 부모와 사회가 되어야 한다.

美 도박장에선 한국인 '봉이다'

3일간 84억 잃기도

한국인 거액도박꾼 모집전문가인 한국계 미국여성 로라 최가 지난 11일 워싱턴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인 고객들은 한번에 수천달러씩 거는 외국인과는 달리 10만달러(1억2천만원)씩 걸면서 '큰 손'임을 과시해 현지에서 '고래'라는 별명으로 불린다고 밝혀 충격을 주었다.

심지어는 3일동안 거의 먹지도, 자지도 않고 도박을 해 7백만달러(84억원)를 잃은 한국인도 있으며, 이들 '고래'들은 대부분 기업인과 연예인이라고, 미국 신문에 이같은 기사가 난 것도 망신거리지만 나라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인 시국에 이같은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지…. 박봉에 시달리며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 우리 사회는 이처럼 명암이 엇갈리는 구석이 너무 많다.

심부름센터 불법영업 전국 3천여곳

도청기·몰래카메라로 사생활 엿보기 예사

도청기·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사생활을 엿보고 휴대폰 사서함 비밀번호나 전화통화 내용·주민등록등본을 수시로 빼내는 등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주일간 서울에서만 불법행위를 일삼아온 심부름센터 45곳을 적발하고 80여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했다.

심부름센터 불법영업은 불법영업을 한 사람들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지만 이를 이용한 사람들도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

〈백유경〉에 "북을 닦기 위하여 살림 살고 장사하면서 온갖 법답지 않은 일을 하니 일은 비록 성취하지만 그 이익은 손해를 보충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미래의 세상에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마치 두 눈알이 빠지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 있다.

법답지 않은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심부름센터와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새겨두어야 할 금언이다.

국내 첫 '신약' 개발 성공

SK케미칼, 항암주사제 '선플라'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독일 등 10개국이 주도해온 세계 '신약(新藥)' 개발 대열에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4일 SK케미칼이 개발한 항암제 '선플라'에 대한 시판허가를 최종 결정, 제약산업 1백년만에 신약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약효나 안전성이 훨씬 뛰어난 세계 최초로 개발된 신물질 의약품으로 9월부터 위암 환자에게 수입 항암제의 20%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게됐다.

시론

생명은 존귀하다

한국의 대형참사는 세계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잇따라 일어나는 사고에서 수많은 생명들의 죽음이 우리를 안타깝게 한다. 목숨이 둘이거나 몇 개 더 있다면 하나쯤은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하나밖에 없기에 큰 문제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인 것이다. 그래서 생명의 절대적 가치 앞에서는 상대적 가치들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직 생명이 존귀하다"라고 말씀했다 세상에 왔다가 자연스럽게 가는 것은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부주의로 사고를 당해서 유명을 달리하는 일은 정말 가슴 아프고 특히, 자기 생명을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이 그랬을 때는 분노마저 느낀다.



진 옥
〈여수 석천사 주지〉

우리의 생명에 대한 경시가 이 모양이 됐나 한탄을 하게 된다. 화성 어린이 대형참사에서 수 많은 어린이가 아무런 방어수단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생명경시 풍조에 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하고 열심히 일해야 하며 무엇을 위한 삶인지 전도된 생각의 병이 깊은 것 같다.

> "어른들 욕심이 어린이 참사 초래 그 어떤 가치보다 안전과 질서 우선"

아무리 큰 것을 이루었다고 해도 생명 희생의 대가라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수련원이건, 유치원이건 그것은 어린 절대 생명들을 꽃피워 나게끔 도와주는 기관인 것이다. 이런 곳에서 어른들의 상업적인 욕심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불법적인 허가가 이루어지고 다시 소방점검이나 안전 시설마저도 되지 않은 이런 총체적 부실 시설에 그것도 모자라 어린이를 수용한 곳이 단층도 아닌 3층에 배치해서 대형참사를 빚게 했으니 우리 어른들이 또 한번 간접살생을 방조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어린 생명들이 내가 돈을 버는데 필요한 고객 정도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사고에 대해 정부는 이번 사건을 기화로 어린이 시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더 근본적으로 어린이 보육과 교육의 근원적인 변화가 있어야 겠다. 현재 어린이 시설들이 너무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 그래서 시설투자가 열악하여 사고 위험이 많다. 심지어는 빌딩3층의 상가에서도 아무런 사고 방비시설업이 사고 위험을 않은 채 운영되는 어린이 시설들이 많이 있어 가슴을 조마조마하게 한다. 수련시설 역시 어린이 전용시설이 거의 없다. 있더라도 영세해서 안전을 생각하기도 어렵게 되어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개인에게 맡겨 놓고 방치하다가 사고가 나면 문책만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보고 있노라면 진정으로 정부가 왜 필요한지를 의심할 때가 있다.

이제 정부가 적극 나서줘야 한다. 한 사건 마무리하는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수련회 시설 등은 어린이 전용으로 해서 정부에서 지어서 관리해야 하고 개인의 영세한 자본과 상업성에 맡겨서는 안 된다. 개인에게 너무 크게 어린이 보육과 교육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 어느 정도 지원과 아울러 안전과 질서 등은 국가에서 관리해 줘야 한다. 개인에게 너무 의존하면 종교적인 편향성과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린생명을 보육하고 교육하는 것은 국가적인 과제이니만큼 그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안전과 질서는 하나 밖에 없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모든 가치에 우선해야 어린 생명들의 안전은 어른들의 책임이며 의무이다.

상업주의나 물질만능주의에 빠져 생명을 경시하는 것은 큰 죄악이다. 이번 참사도 각자의 위치에서 크게 반성해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할 것이다.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과정)

'99학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15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

1년 교과목	법화사상·반야사상·화엄사상·불교사회복지론·불교학개론·선종사상·불교미술·밀교사상·포교방법론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김 성 철(승가대교수) ·권 탄 준(동국대교수) ·보각스님(승가대교수) ·권 기 종(동국대교수) ·혜원스님(동국대교수) ·윤 열 수(문화재전문위원) ·종석스님(승가대교수) ·한 정 섭(금강선원이사장)
2년 교과목	근본불교·대승불교·비교종교론·불교상담론·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한국불교사·유식사상·정토사상	·암도스님(전교육원장) ·최 봉 수(동국대교수) ·주명철(동국대교수) ·정 병 조(동국대교수) ·오 국 근(동국대교수) ·남 수 영(동국대교수) ·계환스님(동국대교수) ·김 상 현(동국대교수) ·표주스님(동국대교수) ·장 휘 옥(동국대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정규반(100명) 통신반(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자	·입학원서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사진 3매	99년 6월 15일~ 99년 7월 31일 입학금 1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동산교육회관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지원가능

4. 입 학 일 시 1999년 8월 7일(토) 오후 5시 (동산교육회관)

5. 원서교부처

⊙ 본대학 사무국(☎ 732-1206~8, FAX 732-1207)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 ☎ 02)733-0333 ⊙ 부산 : 불 서 보급 사 ☎ 051)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 ☎ 053)425-4097 ⊙ 대전 : 보 문 서 점 ☎ 042)257-0161
⊙ 광주 : 불 일 서 점 ☎ 062)232-7542 ⊙ 제주 : 한라불교신문사 ☎ 064)55-2203

※ 특전사항 :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고시를 거쳐 조계종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대한불교조계종 동 산 불 교 대 학

현실속의 불교를 지향하는

불교와 문화

Buddhism & Culture



1999년 봄 호

지상중계 혜거 스님과 떠나는 불교진리탐구 ❷
좌선(坐禪), 어떻게 해야 하는가
『좌선의』를 교재로 좌선의 의미와 참선하는 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 좌선의에서 말하는 좌선하는 법

불교계진단 9 / 불교계 승·재가 인재양성불사의 현주소
흔히 말하는 불교의 인물부재. 결국 사람을 키우지 않은 업보라는 지적이다. 그 근본 원인과 승·재가의 인재양성불사의 현주소를 알아본다

사진으로 보는 성보기행 9 / '99건축문화의 해 특집
우리 옛 절의 건축체험 1
가보았어도 또다시 가보고싶은 절, 부석사.
부석사는 자연을 닮아 호흡이 살아움직이는 듯 느껴지는 도량이다.
젊은 건축가 류경수 씨와 함께 새롭게 음미해보는 부석사의 건축체험.

문화시평 / 불교교리의 현대적 해석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이 불교의 중도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을 교리적 근거를 통해 소개한다
- 제3의 길과 불교의 中道

특집 / 희망의 상징, 이 시대의 미륵신앙
민중들의 삶의 희망으로 이 땅을 지켜온 우리의 민족신앙, 미륵.
그동안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일소하고 어렵고 불안한 이 시대에 정신적인 희망을 가져다주는 미륵신앙을 재조명한다.

21세기 불교정보화를 위한 과제
인터넷 불교사이트 만드는 법과 운용하는 법

인물포커스 / 한국불교의 거목을 찾아서 - 학술편
근,현대 재가불자들 중 각 분야별로 불교활동의 현저한 업적을 남기고 타계한 선각자의 삶을 조명하여 재가불교운동의 당위성과 모범적인 불자상을 정립한다.
- 화엄학과 삼론연구의 대가 현곡 김잉석 박사
- 근대 한국불교학의 태두 포광 김영수 선생

우리시대의 匠人 / 불교문화를 빛는 사람들
우리의 고유한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가는 젊은 장인들의 숨결을 느껴본다
- 전통 창호(창과 문) 장인, 심응식 씨

사찰과 자연생태 / 1 해우소
근심을 푸는 곳이라는 절집 화장실, 해우소(解憂所).
최근 환경미화를 이유로 사라져가는 해우소의 자연친화적인 구조와 형태를 소개한다

고전산책 / 백파 스님과 추사 김정희의 對談 4
백파 스님의 편지 - 김참판 정희에게 답함

특별기고 / 인각사 보각국사비 복원기

서평 - 허운 스님의 『참선요지』

불교계 주요일지(1998.12 - 1999.3)

불교관계논저 총합색인(1998.12 - 1999.3)

불교와문화 전화: 02-719-2606, 전송: 02-719-5052 121-050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대한불교진흥원 출판부

무더위 식히고…건강 돕고…만들기 쉽고

여름식탁 별미 '사찰음식'

다이옥신 공포에다 각종 유전자조작식품 등 먹거리조차 우리 식탁을 위협하고 있는 요즘. 건강을 지키면서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방법이 없을까. 건강열풍과 더불어 최근에는 산사의 음식이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든 담백한 사찰음식을 집에서 만들어 보자. 별미 중의 별미 사찰음식은 가족들의 입맛을 돋우고, 우리 식탁을 건강하게 가꿔줄 것이다.



◇들깨국수



◇마찜



◇김 · 미역 부각



◇느타리버섯탕

들깨국수 〈재료〉 들깨, 밀가루, 애호박, 표고버섯, 은행, 깨소금, 기타양념

〈만드는 법〉 국수는 밀가루를 익반죽해 썰어둔다. 들깨는 물에 담갔다가 깨끗이 씻어 돌이 없도록 잘 인 다음 맷돌에 갈아서 고운 체에 내린다. 애호박은 채 썰어서 소금과 깨소금을 넣고 참기름에 볶아둔다.

표고버섯은 따뜻한 물에 담가 완전히 불린다음 채썰어 간장과 깨소금, 실고추를 넣고 참기름에 볶는다. 들깨즙이 한소끔 끓으면 칼국수를 넣어서 다시한번 끓인 다음 그릇에 담고 애호박, 표고버섯 볶은 것, 은행 두알을 고명으로 얹는다.

마찜 〈재료〉 마, 표고버섯, 소금

〈만드는 법〉 마는 껍질을 벗겨 강판에 곱게 갈아 소금을 조금 친다. 표고버섯을 곱게 다져 갈아놓은 마즙에 넣고 고루 섞어 그릇에 담아 중탕으로 찐다.

미역 · 김 부각 〈재료〉 튀각미역, 김, 찹쌀풀, 실고추, 통깨, 소금, 식용유

〈만드는 법〉 튀각미역을 깨끗이 씻어서 모래 또는 이물질을 제거해 말려둔다. 찹쌀을 매일 한번씩 물을 갈아주며 5일간 담가둔다. 찹쌀을 건져 곱게 빻아 조금 되직하게 죽을 쑨다음 소금간을 한다. 미역을 알맞게 썰은 후 그 위에 찹쌀풀을 발라 실고추와 통깨를 뿌려 햇볕에 바짝 말린다. 160도~170도의 기름에 미역을 넣고 찹쌀풀이 하얗게 부풀어 오르도록 튀겨 건져낸다.

메밀수제비 〈재료〉 메밀가루, 애호박, 감자, 소금, 다시마

〈만드는 법〉 다시마를 찬물에 넣고 끓여 국물이 우러나면 건져내어 장국을 만든다. 곱게 빻은 메밀가루를 뜨거운 물로 반죽한다.

애호박과 감자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썬다. 냄비에 장국을 붓고 팔팔 끓이다가 애호박, 감자를 넣고 한소끔 끓인다. 익반죽한 메밀을 얇게 떼어 넣는다. 한소끔 더끓어 건더기가 떠오르면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느타리버섯탕 〈재료〉 느타리버섯, 들깨즙, 밀가루, 감자가루, 소금, 식용유

〈만드는 법〉 느타리버섯은 깨끗이 씻어 알맞은 크기로 찢는다. 감자가루, 밀가루를 반반씩 섞어 물을 넣어 걸쭉하게 반죽하여 다진후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느타리버섯에 튀김옷을 입혀 180도로 끓는 기름에 튀겨낸다. 들깨즙을 끓여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그릇에 튀긴 느타리버섯을 담고 들깨즙을 붓는다.

김연식품 〈한국사찰음식〉 참조

※오신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사찰음식의 특징이므로 가정에서는 입맛에 따라 파, 마늘 등을 첨가해도 된다.

■건강보약 전통음료

갈증해소 · 보양효과

무더운 여름 전통음료 한 잔이 온몸을 시원하게 해준다. 천연재료로 만든 전통음료는 단순히 갈증만 해소하는 게 아니라 땀으로 배출된 영양을 보충하는 보양식의 역할까지 한다. 특히 오미자차는 갈증해소와 감기예방, 간독성물질 해독작용까지 두루 몸을 보호해준다. 쑥차는 간보호와 정혈작용이 뛰어나며 인체내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려주는 기능을 한다.

쑥차 〈재료〉 말린쑥(시중에 분말가루로 된 쑥차도 나와 있다)

〈만드는 법〉 말린쑥 소량에 다량의 물을 붓고 연하게 우려낸다.

오미자차 〈재료〉 오미자 100g, 설탕 1kg, 소금약간



〈만드는 법〉 오미자량의 15배 정도의 물을 끓여서 미지근해지면 오미자와 설탕, 소금을 넣고 하룻밤 정도 둔다. 고운 체나 베 보자기에 걸러 차게 식힌 다음 그릇에 담아낸다. 잣이나 과일, 꽃잎 등을 띄워낸다.

과일화채 〈재료〉 오미자 우려낸 물, 수박, 복숭아 등 과일

〈만드는 법〉 오미자 우려낸 물에 수박과 복숭아, 참외 등 여름과일을 먹기 좋게 썰어 넣는다. 잣 등을 띄워 그릇에 담아 낸다.

이은자 기자

주부신행담 좌절 그너머

97년 5월 어느날, 이상하게 팔에 힘이 없고 피로가 몰려와 억지로 잠을 청했다. 자다가 느낌이 이상해 왼쪽 팔부터 가슴까지 더듬어 보게 되었는데 가슴쪽에서 손톱만한 알맹이가 잡히는 것이 아닌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별일이야 있겠냐며 아무일 없기를 바라면서 병원을 찾았는데 결과는 좋지 않았다. 유방암이었다.

6월24일. 수술날짜가 다가왔다. 서울대학병원에 이틀전 입원해 검사를 받으며 수술받을 준비를 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살려주세요. 전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제발 살려주세요." 두 눈을 꼭 감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다. 기도 덕분일까. 살수 있을지, 죽을지 모르는 시간 앞에 마음이 평온해져 오는 것 같았다.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는 '나'라는 집착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알 수 있었다. 수술대에 옮겨진 나는 '나'를 억지로 죽여야만 했다. 그래야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수술은 5시간여 만에 끝났고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퇴원 후에도 항암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오래도록 더 다녀야 했다. 항암치료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차라리 죽는게 더 쉽겠다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나의 육신은 망가질대로 망가져 갔다. 물론 집안 형편도 말이 아니었다.

4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부처님 살려주세요. 조금만 더 살게 해 주세요. 착하게 살겠습니다." 기도할 기력조차, 그리고 불제자로서 부처님께 매달릴 염치조차 없었지만 부처님만이 나에게 용기와 힘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꾸었다. 나를 보러 친정 할머니가 찾아오셨다. 간만에 오신 할머니가 너무 반가웠던 나는 할머니 손을 덥썩 잡고 "할머니 어서오셔요. 나 너무 아파요. 아직 좀 더 살아야할텐데 할머니 가실때 내 병 강물에 버리고 가세요"라며 불잡고 사정을 했다. 할머니는 나를 쳐다보시고는 "그래 조금 더 살아야지"라며 다리를 뻗고 앉아보라고 하셨다. 그리고 양쪽 팔과 다리, 가슴에까지 약을 발라주시고 거즈를 붙여주셨다. 나는 할머니가 주시는 약을 받아 마셨다. 약사발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할머니는 이미 사라지고 안 계셨다. 참으로 희한한 꿈이었다.

그 후 나는 참회기도에 열중했다. 선망조상님께 올리는 발원을 할 때는 북받쳐오르는 설움으로 엉엉 소리내어 울기도 여러번이었다. 친정어머니와 형제들이 생각날 때면 더욱 그랬다. 못난 딸, 동생, 누나 때문에 전세금을 빼고, 적금을 깨야 했던 친정식구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아마 없었을지 모른다.

남편이 집을 담보로 친구에게 보증을 서 줘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게 생긴 일이 있었다. 1억원이 훨씬 넘는 돈이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더구나 남편이 한마디 상의없이 결정했다는 배신감으로 머리가 복잡했다. 채무자를 좇아가 싸우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울어보기도 하고, 사법서사 변호사 다 찾아봐도 별 신통한 방법이 없었다.

결국 경매공고가 나고 길거리로 쫓겨나 앉게 생겼는데, 고맙게도 형제들이 도움을 줘 그것만은 면할 수 있었다. 너무나 지친 나는 수도 없이 실신하기를 거듭했지만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는 각오로 일어나 움직였다.

"부처님 제가 죽고 나면 저희 가족은 모두 거지가 돼 거리를 헤맬 거예요. 용기를 주세요." 애원하고 또 애원했다.

등록금 고지서를 비롯한 각종 세금 쪽지가 수북히 쌓이고 단돈 천원이 없어 바깥 출입을 삼가며 살아가는동안 나를 가장 난감하게 했던 일은 "오늘 법회날인데 절에 같이 가지 않을래?"라고 물어오는 도반들에게 온갖 핑계를 대 피해야만 했을 때였다. 그리고 남편이 아이들과 주위사람들의 눈치를 견디다 못해 점점 폐인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다. 남편의 마음을 금방 돌려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만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니 용기 잃지 말고 살아요"라며 위로했다. 그리고 감사했다. 아이들에게 삼시 세끼 밥 해줄 수 있고, 돈 한푼 없어도 부처님께 기도하는 마음자세 갖춰져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리고 무소유가 불편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우스개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도둑이 들어도 걱정할 게 없으니 돈이 없다는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싶다.

마음의 여유를 찾은 나는 이제 병마와도 잘 싸워 이겨낼 수 있는 자신이 생겼다. 내일의 떳떳한 나, 떳떳한 부모가 되기 위해 이젠 더 이상 좌절하지 않겠노라고 기도한다.

김관음성〈경기도 고양시 일산4동〉



마음의 여유 찾으니 병마도 이길것 같아…

봉정사 건축미의 비밀

방송대TV 8월7일 방영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다포계 목조 건물인 봉정사 극락전〈사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케이블TV 방송대학TV(ch47)는 8월7일 안동 봉정사 건축물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이것이 한국 건축이다'를 방영한다. 고건축물 속에 나타난 한국적 건축의 특징을 찾아 내기 위해 마련된 이 프로에서는 극락전 이외에도 대웅전, 화엄강당, 고금당 등이 소개된다. 또 영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의 무대로 유명한 봉정사의 부속암자인 영산암도 화면에 비춰진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방송소식

고단한 삶에 희망 전달
BBS '행복스튜디오…' 인기

좌절과 실망 등 고단한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진한 감동이 배어있는 삶의 이야기를 잔잔한 음성에 실어 전해주는 프로그램이 청취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코너를 새단장한 불교방송의 '행복스튜디오 황청원입니다'가 바로 그것. 매일 아침 11시10분부터 50분간 방송되는 이 프로는 △월요일 '축하합니다' △화요일 '행복 초대석' △수요일 '여러분 힘내세요' △목요일 '가볼만한 불교 문화현장' △금요일 '나의 작은 행복이야기' △토요일 '김재원의 행복파일' △일요일 '짧은 만남, 긴 여운' 순으로 방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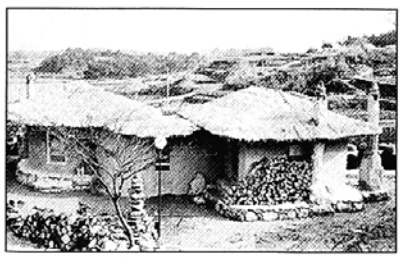
대주스님 · 공옥진 공연
불교TV 녹화 방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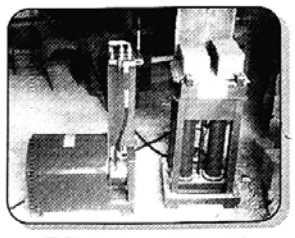
문화를 알면 세상이 즐거워 진다. 불교TV의 문화 프로그램인 '32스페셜', 이 프로에서는 24일 대중가요로 불을 포교에 나선 백선사주지 '대주스님의 열린무대', 31일 대학로 동숭아트센터 '공옥진 1인 창극무대', 8월7일 진천 보탑사 '산사음악회'를 방영한다.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생산량 1일 600~1,000장
■누구나 사용가능
■벽돌기본규격 : 30×14×14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황토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 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집 짓기교육 3月 중순이후 연중 月 2~3회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화제의 신간
해서 명리진평

혜서 신명리진평은 자평서(子平書), 적천수(適天殊), 궁통보감(窮通寶鑑), 명리정종(命理正宗), 잡론구결(雜論口訣), 추명가(推命歌)등 고서(古書) 전부를 하나로 묶어 알기쉽게 완성시켰습니다.

▶▶ 지금 바로 펼쳐 보십시오!

이책을 출간하기 위해 필자는 오랜 연구노력끝에 5년간에 걸쳐 완성시켰습니다. 우리의 역학발전에 꼭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혜서 조 영 수 지음
신국판 양장본 값 30,000원

사주학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해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 전국서점 판매중 ※
송월스님 저
신국판 양장본 값 25,000원

우리말 21C 최신판 대운만세력

새로운 천년의 시대를 여는 사람은 세월(철)을 알고 행해야 한다.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가로쓰기와 한글표기를 중심으로 현대적 감각에 맞추어 새로 만들었습니다.



혜서 조 영 수 지음
4×6배판/ 값 15,000원
신국판/ 값 30,000원

관음역서 시리즈

1. 혜서 명리진평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30,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15,000원(大)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19000원(大)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12,000원(大)
4. 명리학과 오운육기론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25,000원(大)
6. 그림 당사주 대전 신국판/이선암 전호일 공저/정가 25,000원(大)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정본/송월스님 지음/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설심부 신국판/양정본/申坪 /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범무博士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범무博士 /정가 15,000원
11. 신토정비결 신국판/박광 지음 /정가 17,000원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5 광성B/D 3층 T.921-8434 F.929-3470 관음출판사

한성대학교

1999학년도 2학기 사회교육원
<불교종무행정 고위자 과정반 모집>

삼보에 귀의 하옵고
한성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는 불교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을 위한 불교종무행정 고위자과정반을 개설 하였습니다. 불교종무행정 고위자과정반에서는 불교행정의 현대화를 위한 지식의 전수, 각종 행정기술의 습득은 물론 현대사회의 시사문제 등을 사계의 권위자들을 모시고 심층분석 강의해 드립니다.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많은 참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 · 아 래 · · ·

1. 기간 : 분기 2543년(1999년) 9월 둘째 주부터 12월 셋째 주까지 (1999. 9. 7~ 12. 14)
2. 강의 요일 및 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4시 50분까지
3. 모집인원 : 40명
4. 수 강 료 : 1인당 24만원(한 학기)
5. 접수기간 : 99년 7월 19일부터 ~ 99년 8월 10일까지 ※전화접수 가능함
6. 문 의 처 : 서울 성북구 삼선동 2가 389 한성대학교 사회교육원 (강의동 2층) 교학과 (전화 02-760-4401,4003 FAX 760-4002)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하차 - 한성대학교행 마을버스 이용

※ 수료생에게는 한성대학교 총장과 사회교육원장 명의의 불교종무행정 고위자과정 수료증을 드립니다.

불교종무행정 고위자과정 개설과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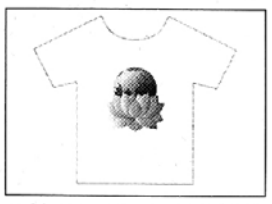
교과목명
종무행정의 이론과 실제
불교재산관리
불교 상담심리

주문전화
02-732-1522
대표전화 : 02-737-8881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몰 부다피아(http://mall.buddhapia.co.kr)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부다피아 쇼핑몰 신정
여름 기획 상품 특판전

부다피아 티셔츠



■ 재질 순면 100% (20수)
■ 색상 흰색
■ 인쇄 나염인쇄 (칼라)
■ 가격:₩7,000

100장 이상 주문시 6,500원. 단체·사찰명 인쇄해 드립니다.



연꽃 지구촌
다가올 21C 불국토를 염원하며 연꽃속에서 피어나는 지구촌을 형상화한 디자인



자비연꽃나팔
자비의 법음이 온 누리에 울려 퍼져 희망찬 미래를 나타내는 자비 연꽃 나팔

경상



사찰의 강원에서 쓰는 경상을 오늘에 맞게 실용화 했습니다. 경전 공부하는 모습도 옛 전통을 이어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사찰의 강원이나 요사 뿐 아니라 불자들의 일상 생활공간을 귀하게 만들어 들입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경전을 공부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 자체로 자녀교육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산사의 고즈넉함을 느끼며 부처님 말씀을 만나십시오.

경전 공부상의 쓰임새
사찰의 강원 · 스님 요시체 불자들의 경전읽기 · 자녀들의 학습

■ 크기 가로720×세로340×높이320(단위(mm)
■ 재질 ASH(느릅나무)완전원목
■ 가격 : ₩85,000

옥베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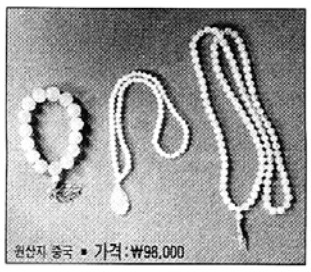
인생의 1/3은 수면시간..
편안한 수면은 어떤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동의보감 신침(神枕) 비방 한방 베개란?
東醫寶鑑 神枕法에 의하면 고대 중국의 황제에게만 비밀 전승되어 온 신침은 여러 가지 한방 생약을 찻나무 함에 넣은 베개로서 "100일을 베면 얼굴에 광택이 나고 1년이면 체내에 모든 병이 개선되어 몸에서 향기가 나며, 백발이 검어지고 빠진이가 다시나며 이목(耳目)이 청명해진다." 라고 기록되어있습니다.

이런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 과중한 업무 생활스트레스 등으로 잠자리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짜증스럽거나 피곤한 당신에게 잠을 자도 진 것 같지 않고 늘 머리가 무겁게 느껴지시는 당신에게 · 팔은 수면을 하더라도 최고의 패면을 하고 싶은 수험생 만삭두통 물면증 등의 질환에 시달리는 당신에게 목부위에 통증이나 어깨결림으로 늘 고생하는 당신에게 · 베개 높이는 수명과 직결 - 최적의 높이를 찾으시는 당신에게 · 피곤해가나, 결리는 신체부위를 시원하게 풀어줄 안마시기 필요하신분 · 코골이 방지에 여러번 실패하고 안전한 해결책을 찾기위해 고심하신분 코걸이는 코고는 본인에게 더 위험합니다

■ 가격 : ₩30,000(1개),₩56,000(2개 한세트)

천연의 건강보석 수암옥 염주 세트



원산지 중국 ■ 가격:₩98,000

•수암옥의 특징

· 세계적 유명옥은 곤산옥(신강성),초산옥(호북,삼양),수암옥(요령성)이 대표적인데 그중 수암옥은 2300여년전 부터 내려와 그역사가 가장 오래되었고 한나라 이전부터 그 진가가 알려져 세계 최고의 옥으로 군림하고 있다. 특히 현재 북경박물관에 소장되어있는 '벽옥구패'가 수암옥으로 판명되고있다.

· 고려사 보우스님편을 참조하면 명나라 황제가 딸 노국공주를 고려 공민왕에게 시집보낼때 제일 귀중한 예물로 수암연옥으로 만든 옥대를 만들어 보내며 공민왕의 장수를 빌었다는 기록이있다.

생광석 108염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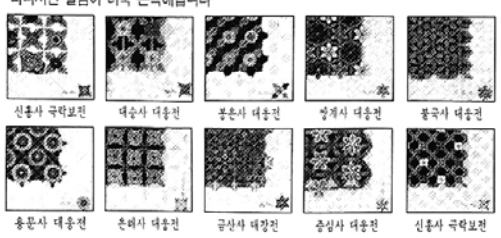
생광석에서 방사되는 세포활성 에너지에 의하여, 생광석 108염주와 밀착된 부위의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다음과 같이 건강에 도움을 드립니다.

1. 손에 쥐고 기도하시면 손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지며
2. 목에 거시면 목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집니다.
3. 어깨 뚜위에 올려 놓으시면 어깨 결림이 현저히 줄어들며
4. 팔목이나 팔에 감으시면 팔목이나 팔의 통증에 큰 도움이 되며
5. 피로가 풀린 달하고 기분이 상쾌하며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 가격:₩35,000

불교전통 창살문양 손수건

한국의 대표적 사찰의 전통창살문양을 손수건에 그대로 재현한 고급 면 손수건입니다. 하나씩 지니고 다니시면 불심이 더욱 돈독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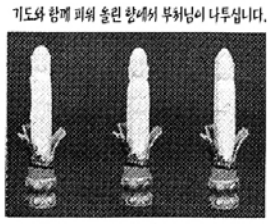
신흥사 극락보전 대웅전 봉은사 대웅전 쌍계사 대웅전 불국사 대웅전
용문사 대웅전 은해사 대웅전 금산사 대장전 증심사 대웅전 신흥사 극락보전

■ 재질 순면 100%
■ 인쇄 나염인쇄 (칼라)
■ 가격 ₩5,000

다량 주문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현상 공덕향

국내최초로 개발한 "현상공덕향"
기도와 함께 피워 올린 향에서 부처님이 나투십니다.



지장보살 석가모니 관세음보살

현상공덕향은 외형이 원추형으로 금석의 연꽃문양 좌대를 가지고 있으며, 향이 연소되는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이고 점화 후 약 200분이 지나면 외형상으로 나무색 향이 연꽃형상처럼 벌어지며, 향이 타는 중에 법상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타고난 다음에 향 연기는 소멸되고 법상은 깨끗한 재가 되어 향로 속으로 들어 갑니다. 현상공덕향은 외형과 겉모습을 중시하지 말고 소신공양의 대원을 이루어 부처님의 진리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향입니다. 현상공덕향은 초하루, 보름, 제일 및 법회와 방생기도에 사용되는 고급 향입니다.

• 향은 천연향 제조업체인 취운향당의 천연향재로 제조된 고급향을 사용하였습니다.

■ 제조원 全北 金堤
■ 판매원 울 · 부다피아

■ 가격 ₩8,000(3개 ₩21,000)

법성게 걸망



법성게는 화엄경의 방대한 내용을 7언 30구(210자)로 압축 요약하면서도 그 심오한 진리의 모습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으며 의상스님이 저술 하였다.

이러한 법성게를 걸망에 디자인 하여 만든 제품이다. 스님 및 일반신도들도 사용할 수 있으며 걸망 옆에 지퍼를 이용 사용 지가 편리하게 물건을 넣고 뺄 수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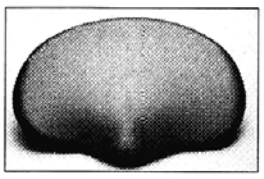
■ 크기 500×460(mm)
■ 색상 회색, 밤색, 진베이지색

■ 가격 : ₩15,000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몰. 부다피아가 8월 6일부터 새롭게 단장한 모습으로
불자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빠른 서비스 고급화된 매장, 부담 없는 가격을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에서 만나십시오.
아울러 고객 여러분들의 보다 쉽고 빠른 접속을 위해
새로운 도메인 주소인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로도
동시에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한 이벤트와 첫보 서비스, 고객중심 매장 서비스 및
저렴한 가격의 마하몰은 생활불교의 새로운 장을
열어 갈 것입니다.

(마하(摩訶)는 범어 maha의 음역으로서 일반적으로 크다는 뜻과 많다, 초월한다, 신묘하다는 뜻으로 경전의 이름이나 불교용어의 앞에 붙어서 그 의미를 확대 해주는, 불자들에게 친숙한 불교용어 입니다.)

참선 명상 방석



국내최초 인체공학적 설계 참선 · 명상 · 단전호흡 수련방석

수행시 바른 자세는 수련에 많은 효과를 준다. 엉덩이 부분을 높게 하는 것은 인체의 균형과 장시간 앉아도 척추의 허리에 역학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기존의 방석이나 좌복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련용 방석

제품의 특징

엉덩이 모양의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게 한다. 엉덩이 뒤쪽과 꼬리뼈와 회음부를 잇는 방석의 중심을 높게 설계하여 척추의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진다.

크기가 작아 휴대 · 보관이 용이하며 기존의 좌복 · 방석 위에 사용하면 훨씬 효과적이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준다. 사용처는 사찰, 선행단체, 선방, 심신 수련 단체 등에서 필요한 제품

■ 크기 39×43(cm) ■ 가격 : ₩27,000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보존프 코팅형 개금형 공동품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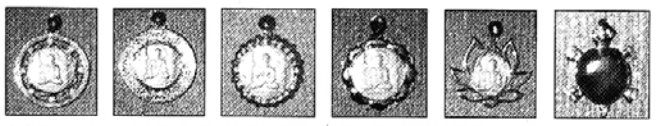
한국 전통 미술의 백미를 현대 미술로 재현하여 귀한 분들께 마음의 선물로 전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 재질 100% 청동
■ 종류 브론즈코팅형, 골동품형, 개금형
■ 크기 40.5cm

■ 가격 : ₩350,000(코팅형,골동품형)
₩580,000(개금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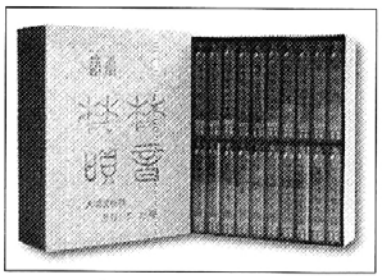
상진주 호신 메달

상진주(像進珠) 란?
조개속에 미리 새겨진 핵을 삽입하여 수년간 양식 과정을 거쳐 그 상(像)대로 형성 되어진 진주입니다. 상(像)은 인위적인 가공없이 자연 색상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지니며 성공률 30%로 희소가치가 큰 보석입니다.



상품명 범룡 호신불메달 | 상품명 기린과 호신불메달 | 상품명 디너니 호신불메달 | 상품명 12연기 호신불메달 | 상품명 연꽃 호신불메달 | 상품명 거북 호신불메달
공급가 ₩241,200 | 공급가 ₩268,200 | 공급가 ₩159,600 | 공급가 ₩199,800 | 공급가 ₩159,600 | 공급가 ₩134,400
재 질 금18k 약2.2돈 상진주 | 재 질 금18k 약2.4돈 상진주 | 재 질 금18k 약1.6돈 상진주 | 재 질 금18k 약1.6돈 상진주 | 재 질 금18k 약1.6돈 상진주 | 재 질 금18k 약1.5돈 상진주

문구암스님 법음 · 법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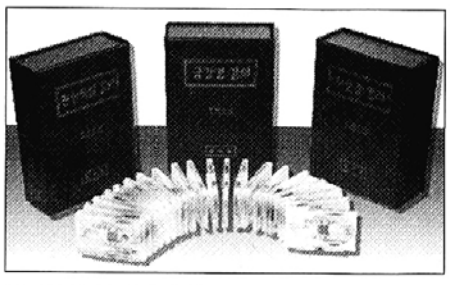
인간문화재 문구암 스님께서 직접 녹음하신 테이프 1질

· 불공의식, 삼신이운, 영산작법, 관욕의식 등 분야별로 녹음되어습니다

1.불공의식 2.심신이운 3.신장청 · 손증권공 4.상단청 5.상단권공 · 거목 6.대령 · 관욕의식 7.대령 · 관욕의식 II 8.대령 · 관욕의식 III 9.영반 · 복청소리 · 대천수소리 10.영신작법 I 11.영신작법 II 12.영산작법 III 13.영산작법 IV · 지장청사 I 14.지장청사 II · 지장권공 I 15.지장권공 II 16.전시식 17.배송 18.운신게 19.법사이운 · 명전점안 20.종성 · 천수직법 · 요잡

■ 가격 : ₩6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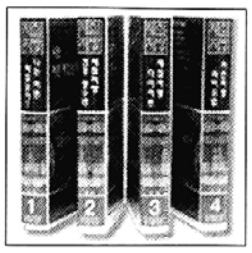
무비스님 특강 녹음 테잎



무비스님의 경전 강의를 접해 보셨습니까? 바쁜일상 생활이지만 잠시라도 시간을 낼 수 있다면 환잡한 마음을 조용히 하고 꼭 들어보십시오. 무비스님이 직접 전해주는 감로수 같은 일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금강경 강의
- 테잎 20개 ₩45,000
■ 지장경 강의
- 테잎 20개 ₩45,000
■ 진심직설 강의
- 테잎 20개 ₩45,000

체질 처방 비디오 테잎



■ 가격 : ₩70,000(7·방포함)

자신에 맞는 체질 처방으로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얻는다.

제1부 나는 어떤 체질인가?
· 체질이란 무엇인가?
· 왜 체질을 알아야 하는가?
· 일반인도 체질의학을 활용할 수 있는가?
· 사상의학이란?
· 체질 감별법
· 자신의 외모,심성 방증으로 체질 진단
· 체질별 특징

제2부 체질처방 건강 장수법
· 체질에 맞는 섭생이란?
· 체질에 맞는 보약과 운동은?
· 체중조절에 도움이되는 보약
· 체중감량에 좋은 운동
· 체질에 맞는 육류,곡류,채소
· 과일,해물,차등
· 건강장수 비결

제3부 체질처방 다이어트
제4부 자연처방 식이요법

저자 · 경희대 한방병원 원장 송일병 교수 · 경희대 사상의학회 회장 고병희 교수 · 경희대 물리요법과 신현대 교수 · 상지대 체질의학과 김달래 교수

관음분청도자기



이시대의 살아계신 대선사 강석주 큰 스님 친필 관음 분청 도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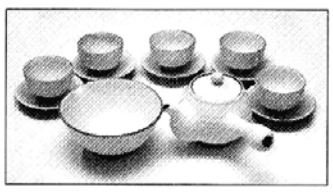
석주 큰스님 친필 관음 분칭사가(부처님의 원력으로 쓰신)를 곡한점씩 가내에 소장하시어 모든 기도성취를 이루시고 가내액화소멸하시는 관세음 보살님의 큰 복덕을 누리시기바랍니다. 한점씩 소장하시어 후손에게 물려주어도 작품의 값어치가 더욱더 빛날 것입니다.

분청 도자기는 일반 백도자기와는 달리 화로에서 구울 때 성공률이 25%내외 밖에되지 않으며 고온에서 장시간 굽는등 제조 과정에 작가의 혼을 담은 정성이 깃들어야 합니다. 특히 석주 큰스님(9세)의 친필 관음찬이 관세음 보살님 그림과 같이 새겨져 있으므로 소장 하신 분의 가내 액화를 소멸하시는 관세음 보살님의 큰 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작품 보증서 첨부)

■ 규격 30×30×40인위(cm)
■ 박스 31.50×31.5×46.8(cm)
■ 무게 5.15kg(도자기)×2ea(포장나무)=7.15kg

■ 가격:₩[illegible](정상가) / ₩495,000(특판가)

고산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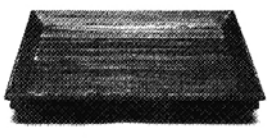


고신 이규초 선생은 임진란때 일본으로 강제납치 되었던 조선도공 광산의 호출 시백여년인에 한국에 되돌아온 도예가이다. 광산의 십일대손인 고취정신선생이 그 조선전래 비장의 도예솜씨 그 불꽃을 조국에 되돌리고자 한국의 도예특기자를 전국의 수많은 지망생 중에서 선발하여 일본으로 데려가 그 문하에서 5년간 기범을 연마시켰던바 그 수제자가 이규초 선생이다

이리하여 이규초 선생은 그 도예진수를 발휘하여 국내외 전시회에서 수상하며 두각을 내고 있으며 따라서 고산 이규초선생은 일본삼산가의 예술혼의 불꽃을 현해탄을 건너 고국에 옮겨놓은 상징이라 할 수 있다 본 제품은 이러한 역사를 지닌 고산요(高山窯)에서 만들어 진 다기이다

■ 가격:₩120,000

찻상



■ 크기 52×36×8(cm)
■ 재질 소나무 (100%)
■ 용도 찻상 정반
■ 제작기법 전통 짜맞춤 기법으로 제작한 수공예품

■ 가격 : ₩54,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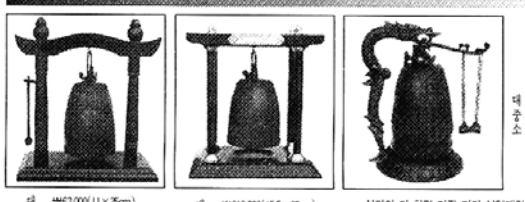
다기함



■ 크기 50×39×15(cm)
■ 재질 소나무 (100%)
■ 용도 다기 브관함
■ 제작기법 전통 짜맞춤 기법으로 제작한 수공예품

■ 가격 : ₩126,000

성덕대왕 신종(에밀레종)



대 ₩37,000(11.5×18.5cm)
중 ₩25,000(8.5×14.5cm)
소 ₩17,000(6×10cm)

대 ₩63,000(11×25cm)
중 ₩47,000(8×16cm)
소 ₩31,000(6×13cm)

대 ₩219,000(15.5×25cm)
중 ₩89,000(10.5×16cm)
소 ₩69,000(9×13cm)

신라의 미 하면 가장 먼저 성덕대왕신종. 속칭은 에밀레종을 연상하게된다. 봉덕사 선덕대왕신종 은 구경(口徑) 2.227mm, 전고(全高) 3.663mm, 두께 203mm, 음통고(音筒高)649mm의 거종으로서 종체의 규모에 있어서나 영묘공허 한국의 대표적인 최상 최우수 감작품이며 동양의 청동문화의 정수를 나타내는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세기의 명종이다 이와 같은 문화의 유산을 재현하여 100% 청동과 100% 수공작업으로 만들었다

반야 불교반지



불자의 자긍심을 세겼습니다. 16개의 큐빅은 보살의 16대력을 상징하며 태두리의 팔각은 팔정도의 수행을 의미 합니다

관정도
정견(正見), 정사유(正思惟),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정진(正正進), 정념(正念), 정정(正定)

십육대독력(十六大力)
지력(志力), 의력(意力), 행력(行力), 참력(慙力)
강력(强力), 지력(持力), 혜력(慧力), 덕력(德力)
변력(辯力), 색력(色力), 신력(身力), 재력(財力)
심력(心力), 신족력(神足力), 홍법력(弘法力)
항마력(降魔力)

■ 재질 금큐빅(18k,14k-1.5돈) ■ 가격 : ₩130,000(18k), ₩120,000(14k) ■size 호수에 따라 제작해 드립니다.

쑥환



■ 가격 : ₩55,000
(1달분 1통 (1500정)
■ 가격 : ₩80,000
(2달분 2통 (3000정)

3년 숙성시킨 강화사자발쑥 쑥 환 으로 드십시오 !

사자발 쑥 환이 좋은 3가지 이유
1 복용과 휴대가 매우 편리합니다.
강화사자발쑥 환은 기존의 환제품과는 달리 쑥 특유의 쓴 맛을 꺼려하는 남녀 , 노소 특히 어린이도 쉽게 복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휴대나 보관도 매우 편리합니다
2. 효과가 빠릅니다.
쑥 환이 효과가 빠르다는 것은 누구나가 느낄 수 있으며, 특히 저녁 과식후 속이 더부룩 할 때 20환 저도를 드시면 다음날 아침 속이 편안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쑥 100%입니다.
사자발쑥 환은 순수 강화사자발쑥 100%로 고품질의 강화도 특산품입니다 (지금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쑥 환 제품중에는 쑥을 당이지도 않고 분쇄후 풀하고 섞어서 환으로 만든 제품도 있는데 주의 바랍니다)

향적원



본 제품은 순창군 복흥면(해발300M) 지역에서 직접 농사지은 우리 농산물로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무농약,무방무제,무조미료 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15도 이하에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판매가 (본 제품은 1kg 기준임)

· 고추장	12,000원	· 무우 장아찌	12,000원
· 된장	7,000원	· 마늘쫑 장아찌	12,000원
· 쌈장	7,000원	· 된장 풋잎	12,000원
· 더덕 장아찌	30,000원	· 된장 깻잎	12,000원
· 오이 장아찌	12,000원	· 산초 장아찌	30,000원
· 감 장아찌	12,000원	· 울외 장아찌(마나스키)	12,000원
· 간장(1.8L)	8,000원		

아이디어 건강 칫솔 (어린이 선물용)

신상품



■ 가격:₩3,900

치약을 내짐 시킬수 있는 칫솔로써 칫솔과 치약이 분리되는 데서 오는 불편함(치약을 떨어 뜨리거나, 과다사용)을 말끔히 해소시킨 아이디어 상품

제품의 특징
1.미국 듀폰 타이넥스사의 부드러운 양질의 모를 사용하여 치아와 잇몸을 보호
2.치약 1회 주입으로 12~15회 사용
3.치약 떨어 뜨림, 과다사용 방지
4.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양치 습관 정착에 많은 도움을 줌

사용방법
· 피스톤을 분리 후 칫솔 몸통을 쥐고 치약을 짜 넣습니다.
· 필요에 따라 적정양을 눌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선물용으로 다량 주문시 상인하여 드립니다

실용신안 제18263호 / 의장 제16339호 / 상표 제28424호

법회안내

동산불교청년회 설법



암도스님 (전 조계종 교육원장)22일 오후 7시 동산교육회관 법당 동산불교청년회 초청법회. (02)732-1206

불교방송 다보 법문



성광스님 (화계사 주지) 28일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다법당 7월 다보법회. (02)703-0108

조계사 백중맞이법회



종범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28일 오전 10시 조계사 백중맞이 초청법회. (02)720-1390

'유럽의 불교문화' 특강



여연스님 (일지암 주지) 22일 오전 11시 광주불교교육원 불교문화 강좌 '유럽의 불교문화'. (062)228-9098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 캘린더

7월21일 (수)



◇부처님 가르침이 담긴 경전을 독송하며 신심을 키우자.

■ 청주불교방송 독경대회=청주불교방송은 오후 3시 청주시 수동 대한불교수도원 설법전에서 제2회 독경대회를 연다. (0431)294-5114

■ 선덕사 어린이 수행학교=선덕사가 23일까지 지리산 일대에서 어린이수행학교를 연다. 참선과 발우공양, 감수성훈련 등을 실시한다. (062)263-4660

7월22일 (목)

■ 제2회 부다피아캠프=제2회 부다피아 어린이캠프가 '자연과 함께 부처님과 함께'를 주제로 24일까지 용인 에버랜드와 용주사, 신륵사, 와우정사, 경수사 등지서 열린다. (02)722-4162

7월23일 (금)

■ 대원불교대학 하계 스쿨링=대원불교대학이 25일까지 21세기 대중불교 방향정립을 위한 하계 스쿨링 특강을 실시한다. (02)773-9171

■ 대한불교법사회 수련대회=대한불교법사회는 25일까지 표충사에서 수련대회를 연다. (02)499-1671

7월24일 (토)

■ 청교련 아산지부 자원봉사 캠프=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아산지부는 26일까지 마곡사 양지마을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캠프를 연다. (0418)548-9316

■ 용타스님 '내안의 거울닦기' 강연=조계사열린강좌가 오후3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다. '내안의 거울닦기'를 주제로 미국 삼보사 주지 용타스님이 강연한다. (02)720-1390

■ 동리산문 태안사 참선기행=현대불교신문사는 밤 11시 구산선문 가운데 하나인 동리산문 태안사, 화엄사, 천은사로 참선기행을 떠난다. (02)722-4162

7월25일 (일)



◇전남 화순군 도암면 대초리 천불산에 위치한 운주사.

■ 운주사 참배=용진신행회는 오전 6시 천불천탑의 운주사로 참배를 떠난다. (02)2279-1191

7월26일 (월)

■ 양정청소년회관 방학특강=부산 양정청소년회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준비한 청소년 교양특강이 시작된다. (051)868-0750

■ 대전청소년자원봉사센터 문화학교=대전광역시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서는 28일까지 푸른학습원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문화학교를 연다. (042)488-0732

7월27일 (화)

■ 제주 법화사 어린이캠프=제주 법화사는 28일까지 경내에서 어린이캠프를 개최한다. 어린이법회 기금마련 바자회도 열린다. (064)738-5225

7월28일 (수)

■ 봉선사 여름 선수련회=봉선사 여름 선수련회가 31일까지 청풍루 교육장에서 열린다. (0346)527-1955

■ 용주사 청소년 효행수련회=효사상 고취를 위한 용주사 청소년 효행수련회가 30일까지 열린다. (0331)234-0040

종단소식

조계종

법주사, 경찰학교 법당마련

보은 법주사(주지 혜광)는 31일 오후 7시 충주 중앙경찰학교 법당개원식을 갖는다.

이날 개원하는 중앙경찰학교 법당은 25평규모로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법주사 삼직스님과 인근말사 4개사찰주지가 지도법사로 법회를 개최하며 전체 일반학생대상의 특강도 마련한다. (0433)543-3615

태고종

종무원 간부스님 연찬회

전국 시도 교구 종무원 간부스님 합동연찬회가 8월 6일 오후 1시 서울 종무처 설법전에서 개최된다. 이번 연찬회에는 인곡 총무원장을 비롯 종단 간부스님들과 각급 기관장,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장, 교구종무원 국장급 이상 간부스님, 지방종회의장 및 부의장 등 1백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산담당 종무위원 신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통합정보시스템망 구축사업을 원활하게 하고 전산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전산담당 종무위원직제가 신설된다. 총무원은 이에 따라 전산화 작업과 조직강화를 병행한다는 차원에서 12월 31일까지 전 승려에 대한 승려분한 신고를 받는다.

천태종

기묘년 하안거 결제

기묘년 하안거를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총본산 구인사에서 실시한다. 결제는 8월 7일 밤 10시.

진각종

회당학원 가족체전

회당학원(이사장 최해욱)은 19·20일 양일간 경주 위덕대 대운동장에서 제1회 회당학원 가족체전을 개최했다. '미래로 향하는 회당교육가족의 함성'이라는 주제로 회당학원 산하 위덕대학교 심인중고등학교 진선여자중고등학교 등 진각종 종립 5개교 전 교직원이 참가했다.

대한법화종

서울교구 종무원 개원



서울교구 종무원이 8일 중랑구 중화1동 274-63 법만사에 개원(사진).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무원장 운경스님은 법만스님에게 서울교구 종무원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서울교구 중앙종회의원에 홍파(심택사) 세웅(지장사)스님이 선출되고 총무국장에 도현(도현사)스님이 임명됐다.

조동종

소희선사 기념비건립 추진

총무원(원장 학봉)은 10일 중앙간부 연석회의를 열고 지난 6월 중국 소림사 방문 및 종단합동방생법회를 결산했다. 이날, 덕(德)자 행(行) 영(永)자 합동으로 소희문도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키로 했으며 소희선사 입실건당 기념비 건립 건을 논의했다.

미타종

국민화합 영산재

총무원(원장 성우)은 30일 경남 밀양 남천강변 야외음악당에서 경제난 극복과 국민 대화합기원 영산대재를 봉행한다. 이날 10시30분부터 식전행사가 시작 11시 기원대법회가 봉행되고 오후 1시30분부터는 영산대재가 열린다. (02)2242-1049

화엄종

약사사서 구하종정 49재

6월 2일 입적한 구하 종정스님의 49재가 20일 오전 10시 인천 약사사에서 봉행된다. 인간문화재 송암스님이 집전하는 49재에는 정희수 화엄승가장학재단 이사장 등 종단 스님들과 신도 5백여명이 동참한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게시판

알림

▲무료한방진료=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22일, 29일 오후 5시30분~7시 30분 장애인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한방진료를 실시한다. 침, 뜸, 부항, 한약 등 한방과목.
(0443)652-0900

▲마늘·된장 판매=강남포교원 생협에서는 질좋고 가격이 저렴한 경북의성 마늘을 7월의 특산품으로 판매한다. 한접에 2만3천원. 월악산 무공해 된장, 간장도 판매한다.
(02)539-2631

▲사찰행사 진행 도우미 파견=우리 는선우 전북지부는 사찰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를 보조해 줄 도우미를 파견한다.
(016)652-8892

▲삼전방과후어린이집 오전 교육=삼전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중인 삼전방과후 어린이집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은 초등학교저학년을 대상으로 오전교육을 실시한다.
(02)421-6077

▲금강경오가해 테잎판매=불교방송 포교자료팀에서는 경전산책 프로그램에서 방송됐던 〈금강경오가해〉테잎을 제작보급한다. (02)706-3502

강좌

▲삼학원 특별강좌=가산불교문화연구원 부설 삼학원에서는 국학 및 불교학 연구자들을 위한 특별강좌를 실시한다. 격주 토요일 오후 5시에 불교논리학 강의 〈인명입정리론〉을, 격주 목요일오후 7시30분에 유식학강의 〈유가사지론〉을 각각 강의한다.
(02)765-9602

▲하타요가·위빠사나 수련=백화도량 수미정사에서는 수행반 프로그램과 교리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수행반은 하타요가와 위빠사나 수련을 주내용으로 매주 월, 수, 토요일 오후 7시반에 실시되며, 교리반은 불교기본교리 부처님 생애 등을 내용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열린다.
(02)929-0929

▲참선기초교실=부산불교교육원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4개월 과정의 참선기초교실을 연다. 참선의 역사와 이론, 앉는 자세, 호흡법, 마음다스리는 법, 생활참선법 등을 지도한다. (051)466-4080

▲발관리 전문가 양성반=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취업과 부업을 위한 발관리 전문가 양성반을 연다. 오전 10시와 6시30분 2회 강의를 실시한다.
(02)852-0525

▲직장인을 위한 불교대학=동산불교대학은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불교대학을 8월 7일 오후 5시 개강한다.
(02)732-1206

▲장애아동 계절학교=제천종합사회복지관은 26일~8월 21일까지 매주 월, 화, 목, 금요일 오전 10시 만 4세~13세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여름계절학교를 연다. (0443)652-0900

▲방학특강=신도림복지관은 단소교실, 과학교실, 워드프로세서자격증반, 컴퓨터 단기반 등 방학특강을 마련했다.
(02)2631-9792

▲대원불교대 신입생=대원불교대학이 99년 후학기 신입생(통신과정 포함)을 모집한다. (02)754-1613

모집

▲사회복지사=속초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를 구한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소지자로 운전(운전면허 1종보통)이 가능해야 한다.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0392)631-8761

▲기저귀 후원=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병으로 누워있는 노인들을 위한 기저귀 후원을 기다린다. 1회용 기저귀 및 천기저귀 등. (02)852-0525

▲야간 상담사=여성회망의집 목동 화엄동산에서는 야간상담사를 구한다. 상담경력자로 40~50대 여성이어야 한다.
(02)2642-1363

▲좋은이웃 111 결연후원자=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좋은이웃 111캠페인에 동참해 중증장애인과 저소득장애인을 도와줄 결연후원자를 기다린다. 매월 1만원이상 후원해야 한다. (02)989-4215

▲연극동아리 회원=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구로구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극동아리 회원을 모집한다.
(02)852-0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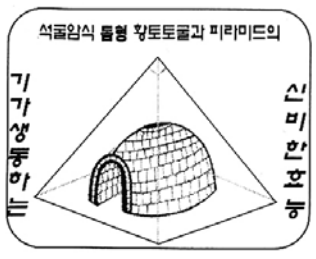
답사

▲공주박물관·무령왕릉=답사여행의길잡이 터사랑은 곰의 전설을 간직한 곰나루, 공주를 세상에 알린 무령왕릉과 공주 박물관을 돌아보며 웅진시대의 소박하고 검소한 백제문화를 답사한다. 23일 오전 7시 30분에 출발한다.
(02)725-1284

황토 집(토굴)

나무 장작과 구들방, 그리고 황토 외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사용하지 않으며 자연과 일체가 되는 살아 숨쉬는 황토 집을 짓겠습니다.

황토 토굴은 바로 자연의 숨결을 직접 느낄수 있게 해주는 "생명의 물질"인 것입니다.



황토집(토굴)
- 자연식품+한약재 배합
- 황토 미장 특허
- 돔형 토굴체험 황토 벽돌 공장 견학
- 황토 사랑 모임회 월 1회 개최

우리 황토 토굴 사업부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동 1-5번지 대한상가 402호 연합건축사 내
TEL: 0551)282-7629
FAX: 0551)283-6531
H.P: 017)585-6045/ 017)566-9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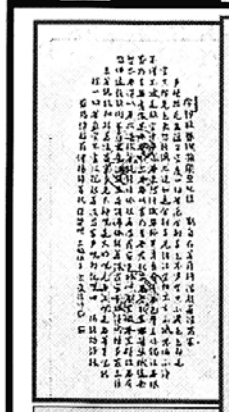
범서 다라니 사경회원 모집(1차)
◈사경다라니
신묘장구 대다라니,
불정존승 대다라니
◈사경기간
7월20일 ~ 10월17일(90일간)
◈기도회향
10월17일 (음, 9월9일)
◈모집기간(1차모집)
7월 20일까지
◈1차 동참금
50,000원(분납가능)
국민은행 570-01-0054-725 정토선원
사경방법
지도법사 도성스님이 직접 쓰신 체본을 가정으로 우편 발송 합니다.
앞으로 사경기도 할 다라니
수구즉득 다라니
불정능엄 대다라니
관세음보살 42수진언
전국 범서 다라니 사경회
광주광역시 북구 풍향동 15-5번지
☎(062)528~0108, 011-607-7504
범서 다라니 사경 근본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정토선원
범서 다라니 사경 회원모집

새로운 형태의
황토방 탄생!



· 이글루형 황토방 규격
표준형 : 높이 1.9m 면적 11.3m²
◐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를 접목시킨 새로운 형태의 황토방
◐ 황토방을 이글루형으로 시공함으로써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내부공간
◐ 전통방식의 구들시공으로 황토의 장점을 최대화
◐ 정신수양 및 건강을 위한 최적의 황토방
대륙건축 황토방 사업부
대표 이 성 우
경기도 용인시 마평동 530-3
TEL : 0335-336-6563
FAX : 0335-338-8923
H.P : 011-9680-50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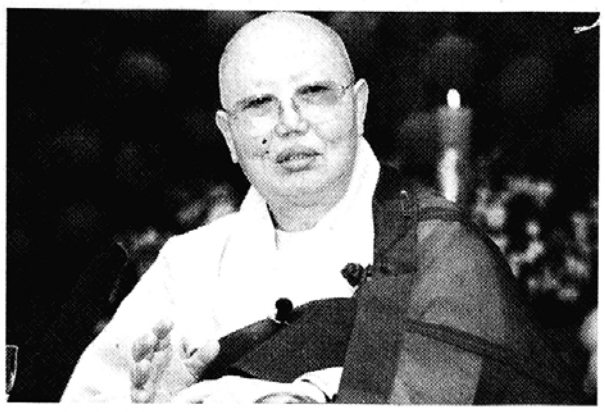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龍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한국신기록을 획득한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용린 佛字체」 최초로 공개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신기·영기를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 그림, 龍자그림 (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주문이 많으므로 단체주문은 사양합니다. (1가정 1부씩)
◀용린 佛字체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 생명의 전화 : (주)(02)2242-0331,2242-0255 (야)2216-0307, 011-471-1996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한마음선원장 대행스님은 31일 독일 라팅겐시 시민문화회관에서 대법회를 갖는다.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이 주최하는 이번 법회에는 주 독대사를 비롯 독일의 저명인사들과 교민등 3천여명이 참석한다.

대행스님 31일 독일 대법회

라팅겐시 시민회관서… '苦서 벗어나는 길' 법문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장 대행스님이 31일 오후 4시 독일 뒤셀도르프 근교 라팅겐시 시민문화회관에서 대법회를 갖는다.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지원장 혜진스님)이 주최하고 주독 한국대사관과 명예영사관이 후원해 법회전체가 독일어로 동시통역되는 이번 법회에서 대행스님은 '고(苦)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주제로 법문한다. 20세기 다지막 해에 갖는 이번 독일법회에서 대행스님은 새로운 천년을 앞두고 급격한 시대변화 사회변화를 겪는 불안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서구인들에게 내면속의 참나를 발견하여 고에서 벗어나 활기있게 살아가는 길을 제시한다.

독일에 사는 교포와 현지인 등 3천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법회는 특히 이기주 주독대사, 송영식 주 네덜란드 대사, 헬무트 글루브레히트박사(하노버대학 교수), 옌스 독일행정법원장, 라디쉬 라팅겐시 부시장 등 독일의 저명한 인사와 학자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대행스님 초청법회에 대한 현지의 뜨거운 관심을 짐작케 한다. 이번 법회는 법문전에 한국전통사찰의 예불의식과 대행스님의 전법행장을 소개하는 비디오 상영이 있으며 한국의 전통 다도의 식도 시연된다. 대행스님의 법문 후에는 질의 응답시간도 가지며 1백여명의 한마음선원 합창단이 '입의 소식' 등 찬불가를 음성공양한다.

이경숙 기자

속초 반야요양원 · 인천 피안복지관

노인 무료 안식처로 '인기'

급식·진료·이동목욕·장례서비스등 다양

활발한 복지활동을 통해 불교복지의 전형을 제시하고 있는 지방의 두 복지단체가 있어 화제다.

사회복지법인 조계종 신흥사 복지원인 속초 반야노인요양원과 인천 피안사회복지관이 그 곳. 이달말로 개원 1주년을 맞는 반야노인요양원(원장 홍구)은 이처럼 짧은 기간내에 도내 생활보호대상 노인들을 위한 무료 실버타운으로 정착했다.

반야노인요양원은 생활실, 물리치료실, 목욕실 등 현대시설을 갖추고 촉탁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가 항시 대기하며 이곳에 입소해 있는 30여명의 노인은 물론 지역의 거동불편 노인들을 돌봐주고 있다.

특히 요양원은 영구차까지 갖춰 요양원 노인들이 임종하면 원장인 홍구스님이 손수 불교장례의식을 치뤄주고 49재까지 지내주는 등 노인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이 모든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 그래도 운영이 가능한 것은 5백여 후원회원들의 적극적인 후원이 있기 때문이다. 수녀를 포함한 10여명의 타종교 자원봉사자도 참여해 종교의 벽을 허물고 있다.

인천 남구 승의동에 위치한 피안사회복지관은 출발당시부터 화제를 모았던 곳. 관장 고구목씨(여) 등 10여명의 여성불자가 재원을 출연해 마련된 피안복지관은 지난 10일 개원3주년 기념식과 함께 이동목욕봉사차량 발대식을 갖고 무료로 자역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곳 역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역 불우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보호대상자 가정과 결식학생을 후원하고 있다. 피안복지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전적으로 2백여명의 후원자와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이들은 대부분 불자들로 재정은 후원자들이 맡고 모든 활동을 자원봉사자들이 도맡는 조화를 이뤄내고 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속초 반야노인 요양원은 다양한 활동을 펼쳐 실버타운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우리절 불사 화천 보은사



◇화천 보은사는 6·25전몰장병과 터키군 영가를 위한 천도불상을 조성했다. 원내는 주지 정수스님.

순국원혼 천도도량 만든다

청동지장상 봉안위해 신도 밤낮 기도

6.25 한국전쟁당시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화천군 사창리. 깊은 전쟁의 상흔만큼 원혼의 애절함도 깊게 서려있다는 이곳에 자리잡은 지장도량 보은사.

난리가 터지기 전에는 약수가 유명해 약사기도터로 더 잘 알려졌던 이 도량이 2년전 현재의 주지 정수스님이 소임을 맡으면서 명실상부한 지장도량으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갔다.

"이곳은 한국전쟁 당시 우리군 사단병력과 터키군이 함께 주둔하다 전몰한 그 유명한 사창전투의 현장입니다. 개인의 영달을 접고 오직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열사들의 원혼을 천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불교 가르침과도 일치하고 우리 민족의 당면과제입니다."

주지 정수스님은 법당 위로 도량 한 중심에 야외 청동 지장보살상을 조성하기로 원을 세웠다. 2자반 크기의 석조 좌대를 받치고, 높이 11자의 좌불을 모시기로 한 것이다.

덜렁 법당과 눈비 가릴 정도의 요사 1채가 전부인 보은사는 일제대 창건한 이래 최대규모의 불사에 들어간 것이다.

강화 보문사 주지로 10년 살면서, 또 화계사 주지로 국제선원 건립 등 불사라면 이력이 난 정수스님이지만, 새로 주지를 맡아 착수한 불사여서 부담이 적지 않았다고. 그러나 이번 불사가 지장보살 조성불사라 더 남다른 의미를 갖고 달려들었고, 신도들도 스님의 열의에 신심을 더욱 낼 수 있었다고 신도회 간부들은 입을 모았다. 불상이 모셔질때까지 지장기도 발원을 하고 낮 밤 가리지 않고 스님과 신도들의 기도가 계속돼, 이적을 체험하는 신도들의 경험도 늘어갔다. 특히 악한 인연 부정한 생각의 기운이 다가오면 물이 말라 지금까지 8번이나 말랐다고 전해지는 법당옆 약수터는 불사기간중 단 한번도 마르지 않아 약수물만 떠다 먹던 마을주민들도 불교에 귀의하게 됐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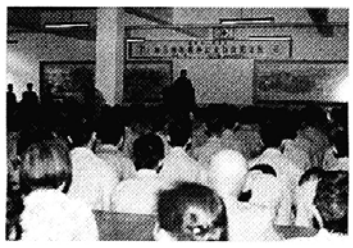
이렇게 1년여 불사가 강행돼 마침내 지난해 8월, 1차 지장보살 점안법회를 성대하게 마쳤다.

그러나 아직 주위 도량장엄에 드는 불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순국원혼들의 천도 기도 도량이며 역사를 순화시키는 대작불사에 지장원력들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0363-441-4449.

위영란 기자
(yryui@buddhapia.com)

日 남장원 스님·신도 1백여명
부산 소년원 방문 용기 북돋아



'가깝고도 먼나라'라는 수식어를 과감히 던져버리게 하는 뜻깊은 방문이 14일 부산에서 있었다.

97년 삼중스님과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 후쿠오카의 남장원 주지 하야시 가쿠스님을 비롯 신도 1백여명이 오륜대직업전문학교(부산소년원)를 방문한 것(사진). 일본의 사찰에서 한국의 소년원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관심을 모았다.

이날 원생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뤄진 방문행사에서 하야시스님은 원생들을 위한 축구공, 문구, 도서구입금 등을 전달했다. 하야시스님은 법문을 통해 "잠깐의 실수는 누구나 있을 수 있다"며 "시련을 이겨내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찾아, 더 깊은 삶의 뿌리를 내리는 한국의 청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 재소자 교화에 큰 몫을 담당하는 하야시스님은 이번 방한에서 한일 교도소 상호방문, 소년원 설교 초청 등 지속적인 교류와 재소자 교화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일본 진언종의 총본산이며 세계최대 석가여래 청동와불이 모셔진 유서깊은 남장원의 친선방문단은 불국사, 석굴암, 범어사를 둘러보고 14일 소년원 방문을 끝으로 출국했다.

천미희 기자

옹진군수 '심청각 사태' 사과

면장징계 입장 안밝혀…불교계 문책 재촉구

백령면장의 심청각 불교행사 방해사건과 관련 옹진군수가 불교계에 정식으로 사과했다.

태고종 총무부장 지성, 인천종무원장 대은스님과 조계종 종교편향대책위(위원장 현진·원혜)는 14일 조건호 옹진군수를 공식면담하고 백령면장의 징계조치와 심청각의 다양한 행사 장려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건호 군수는 "불교계에 심려를 끼쳐드려 백배사죄드린다. 운영규정을 만들어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도 백령면장의 징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불교계 대표들은 이어 인천광역시 의회 의장실을 찾아가 관련자의 엄중 문책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범불교 종단 차원의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기도 옹진군 김순호 문화관광과장은 12일 조계종 포교원을 방문해 종교편향대책위원장 현진스님(포교부장)을 면담하고 이번 일을 친절행정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해탈서원' 다라니 사경
광주정토선원 20일부터

광주 정토선원(주지 도성)은 20일부터 10월 17일까지 범서다라니 사경회를 연다. 90일간 주지 도성스님이 범서 〈신묘장구대다라니〉〈불정존승 다라니〉 등에서 직접 체본하여 가정으로 우편발송하는 형태로 사경하게 된다. 도성스님은 "범서다라니 사경공덕으로 온누리 생명들의 몸과 마음의 허물이 남김없이 소멸되어 불도를 깨닫고 윤회의 생사고해를 벗어나 행복의 땅, 열반의 세계로 나아가길 기원하는 의미에서 사경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도성스님은 전국범서다라니사경회를 발족하고 범서사경에 관심있는 사경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062-528-0108.

김원우 기자

강성구 신부 백담사 강연
"인간은 만남을 통해 생활"

백담사(회주 오현)는 7일 원통고 학생 등 사부대중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성구신부(속초 청호동성당) 초청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는 4월 10일 속초 청호동성당에서 설법한 오현스님의 초청에 의해 이뤄졌다.

강신부는 '만남'을 주제로 "인간은 부모와 자식, 남자와 여자 친구 부부 등 각종 만남을 통해 생활을 하고 있다"며 "불교와 천주교의 가르침인 인간의 참된 삶과 진실 도덕등의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청소년 봉사프로 운영
부산신도회 표충사서

부산불교신도회(회장 류진수)는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포교와 봉사활동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부산불교신도회의 흙사랑 자원봉사단은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부산시내 중,고생 120여명을 대상으로 밀양 표충사 일대와 산내 영농조합에서 봉사활동을 펼친다.

천미희 기자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코스

밝은길 아바타센터

◐이바타 코스는 7-9일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서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교통편 : 서울역, 사당역, 조계사앞, 3호선 경복궁역에서 135, 135-1, 2, 3번 버스로 약 20분 거리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합장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 (02)396-2736 H.P. 016-228-2358

한국불교 선종본찰 선학원 중앙선원 단청불사·천일기도 七百日 전국 禪院長·祖室·方丈큰스님 특별초청

모시는 말씀

한국불교 선종본찰 (재)선학원 중앙선원은 송만공, 만해 한용운, 백용성 큰스님들께서 화주가 되어 창건되었습니다. 선학원은 3·1운동을 주도한 국운창출의 원찰이며 해방 이후에는 이효봉, 하동산, 정금오, 이청담 대선사께서 한국불교계 정화불사를 이끌어 오늘의 조계종 전통종단을 중흥케 한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선학원이 한국선종불교의 聖地임은 自他가 공인하는 事實입니다.

이 時代의 佛敎 聖地인 禪學院에는 특히 李成桂 太祖大王의 王師로 계시던 無學大師께서 宮터로 잡은 창덕궁(지금의 비원)의 백토를 가지고 송만공 큰스님께서 손수 조성한 부처님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선학원 부처님 외에 또 한 분의 부처님은 현재 수덕사 정혜선원에 모셔져 있습니다. 선학원은 여러 명안조사님의 정기가 서려 있는 곳으로 또한 선학원 중앙선원이 동·하안거 방함록에 전국선원 중 제일 먼저 실려 있던 시절이 있었음을 돌이켜 볼 때 선학원의 禪風이 일면 한국 禪宗佛敎가 興하고 선학원의 위세가 가라앉으면 한국禪宗佛敎가 혼돈을 겪는 것을 지켜본 후예로서 옷깃을 여미지 않을 수 없습니다. 三寶님께 발원하며 24년 만의 선학원 단청불사를 계기로 심아 한국 선종불교 중흥 도량이 될 선학원 대작불사 서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時代의 佛敎聖地 歷史的인 佛事에 善男善女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 있으시길 바라옵고 단청불사 千日기도 동참공덕으로 가정의 팔란과 고와액이 소멸되어 다행다복한 주인공이 되시옵길 축원합니다.

아 래

특별초청 법어 三角山 普光寺 祖室 南山正日 大禪師

산림설법 삼장법사 윤성해대법사(선학원 중앙선원장)

■ 때 : 1999년 음 6월 13일(양 7월 25일) 일요일 오전 11시

■ 곳 : 한국불교 선종본찰 선학원 중앙선원 큰 법당
한국불교 선종본찰 선학원 중앙선원·화주단

신도회·운영위원회·합창단·108보리심회·선정회·청년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40
☎ 02)732-3327, 720-8583, 720-8584

불기 2543년 음 6월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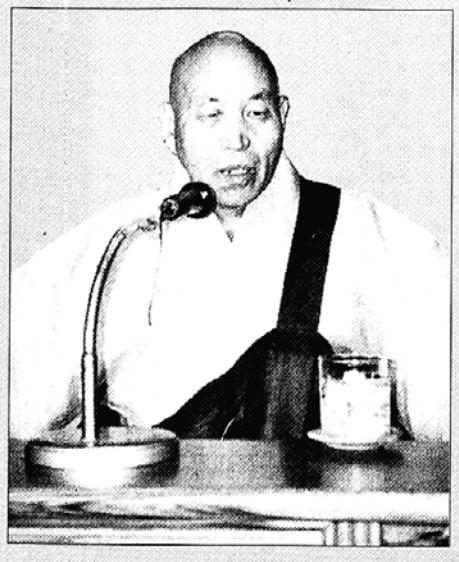
선학원 중앙선원 원장 삼장법사 윤성해 합장

一柱門 建立을 위한 一人 一燈 萬人 萬燈
佛事 接受中입니다.

千日기도 七百日大法會

제8회 한국불교전통선(禪)중흥영산대설법회상

三角山 普光寺 祖室 南山正日 大禪師



삼각산 보광사 조실 남산정일 대선사

한국불교 선종본찰 선학원 중앙선원 중흥불사 개요

1차
① 기와 개수공사 완료 ② 내부 페인트 공사 완료
③ 단청불사 (24년만의 불사) 완료 ④ 선학원 선방 및 시민선실 내부공사 완료
⑤ 가스배관공사 및 보일러실(5개를 하나로 하는) 공사 완료
⑥ 일주문 전통양식 건립불사
⑦ 선학원중앙선원 단청불사, 중흥불사 千日기도 三百日 전국선원장·조실·방장큰스님 특별초청 韓國佛敎傳統禪中興靈山大說法會上主催 제1회~제10회(매 백일간격으로)

2차
초청법사 · 제1회 황악산 직지사 조실 전관응 대선사 1997. 7. 4(양 8. 3) 성만
· 제2회 법수선원 조실 이성수 대선사 1997. 11. 13(양 12. 12) 성만
· 제3회 선학원 중앙선원 조실 이법행 대선사 1998. 2. 23(양 3. 21) 성만
· 제4회 승광사 조계총림 방장 법일보성 대선사 1998. 윤 5. 3(양 6. 26) 성만
· 제5회 회계사 조실 숭산행원 대선사 1998. 8. 13(양 10. 3) 성만
· 제6회 전 조계종 총정 송서암 대종사 1998. 11. 23(양 1. 10) 성만
· 제7회 팔공산 동화사 조실 진제 대선사 1999. 3. 3(양 4.18) 성만

⑧ 선학원 창건 사적비 세움 (3.1 운동주도 구국원찰)
⑨ 한국불교계 정화사 刊行 및 이時代佛敎聖地 宣布法會

◆화 주 단
황자현심 손진여심 오만덕화 박보리성 권지애심 이보현심 박덕순화 이 광 덕 이관음행
박선해일 김복덕성 윤보광심 민길상심 송 경 헌 신 옥 순 김도월행 김마하연 유정혜성
송법성심 정선덕행 정본각성 이범왕자 이지혜장 고만덕성 이보원심 운영위원 및 합창단원

◆신 도 회
명예회장 염무영원
고문 양보타원 이연화심 이 경 회 김명심행 엄공덕화 정본각성
회장 이관음행
부회장 이반야행 최 복 식 유정혜성 황자재심
총무 신성지행 이범왕자
재무 손진여심 신원명심
감사 박선혜월
감사 권법연화
1지역회장 이반야행
2지역회장 유정혜성
3지역회장 최 복 식
4지역회장 황자재심
운영위원일동
합창단장 유정혜성
총무 김진실행
108보리심회 회장 최 인 순
총무 박보리성
선정회 회장 배 경 주
부회장 박보리성
총무 이 상 은
총무 최 회 성
운영위원일동
청년회장 이 상 훈

약도
안국역에서 150m
선학원
3호선 안국역
경복궁 ← 안국동 로타리 → 창경궁
종로경찰서
종각

● 전철노선 : 3호선 안국역 하차
● 버스노선 : 안국동 종로경찰서 하차
(84, 8-1, 205, 543, 2, 8, 20, 153)

■재정운영 주마다 공개 ■자비의 쌀모으기 운동
■신도교육-신행등 강화 ■열린 문화강연회 마련

"조계사가 변하고 있다"

조계종의 수(首)사찰 조계사가 달라지고 있다. 수차례의 종단사태때마다 난투극과 투석·최루탄·화재 등으로 얼룩져 '한국불교 1번지'라는 수식어를 붙이기 조차 부끄러웠던 조계사가 불명예스런 이미지를 벗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계사(부주지 지홍)는 되돌아보기조차 민망한 종단사태후 반년만에 사찰운영과 수행, 복지, 문화, 환경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두드러진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런 모든 변화의 근저에는 조계사를 스님들 위주가 아닌, 신도들, 나아가 시민과 함께 하는 사찰로 만들겠다는 조계사 사부대중의 의지가 강하게 배여 있다.

변화된 모습은 우선 사찰운영 방식에서 눈에 띄게 두드러진다. 매주 신도회 임원회의를 열어 한 주간의 사찰 수·출입 현황을 공개하는 등 투명한 사찰운영의 기반을 확보했으며, 사찰의 현안을 결정할 때는 신도들의 의견을 수렴, 임원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 이같은 투명한 재정운영은 13일 임원총회에서 밝혀진대로 종단사태 이후 사찰수입이 줄었을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올 상반기 재정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가량 늘었다. 정재 누락이 없었다는 반증이다.

스님은 물론 신도들의 교육과 신행생활이 엄격해진 수행분위기도 달라진 것 중의 하나. 신도들은 3개월 기초교리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1박2일 출가 수련프로그램까지 이수해야한다.

지난 13일 북녘동포와 불우이웃돕기 등을 목적으로 한 '자비의 쌀' 모으기 운동 일환으로 대웅전 앞 홰나무 아래 설치한 3개의 쌀독은 조계사가 복지사업에 적극 뛰어들겠다는 상징물로 대변된다. '자비의 쌀독'에 모여진 쌀은 자양복지관의 무료급식과 결식청소년 돕기, 구로 '파랑새 나눔터' 등 복지사업에 쓰인다.

지난 4월부터 시작한 '열린 강연회'와 6월 시작된 '외국인 안내센터' 및 '외국인 불교 강의'도 한국불교를 널리 알리는 문화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격주로 실시되는 '열린 강연회'는 외부 강사를 초빙해 불교 외에도 일반 문화와 관련한 수준높은 강의로 신도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조계사에 몰려들게 하고 있다.

조계사를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사찰 소개와 함께 수행법 등을 안내하는 '외국인 안내센터'도 외국인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어불교강의도 진행되고 있다.

최근 조계사에는 곳곳에 나무벤치가 놓였다. 조계사에 들른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배려한 것. 현재 사찰조경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문화교육관 2층을 선방 및 학생법당으로 전환하기 위해 8월중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조계사는 경내에 '자비의 쌀독'을 상설하고 결식아동돕기에 사용하는등 복지사업을 강화한다.

뉴스 & 뉴스

동대 우수연구센터 선정

동국대(총장 송석구) 양자기능반도체연구센터(대표 강태원)와 밀리미터파신기술연구센터(대표 이진구)가 과학기술부로부터 올해 우수연구센터로 선정됐다.

양자기능반도체연구센터는 우수과학연구센터로, 밀리미터파 신기술연구센터는 우수공학연구센터로 선정돼 과기부로부터 연간 7~12억원 정도의 연구비를 지급받게 됐다. 강지연 기자

김소장 대책위 1차회의

지난 6월23일 25개 단체로 구성된 '김태복 소장 군법당 건립시주금 뇌물적용 재판 범불교도 대책위원회'는 14일 조계종 포교원 3층 회의실에서 제1차 공동위원장 회의를 열고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 판결문과 극방부 고등군사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 등을 검토한 후 253명의 불자 변호사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공동위원장들은 또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법등스님과,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고산스님 등과 면담을 갖고 종단차원에서 대대적인 항의시위를 전개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재경 기자

'승가대 학인들의 입장'

중앙승가대 총학생회(회장 대혜)는 9일 '중앙승가대 이전에 대한 학인들의 입장' 제하의 성명서를 내고 "풍림산업과 조계종 총무원의 공사비 견해 차이로 승가대 이전이 지연되고 있고, 낙하산식 인사로 학내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김포학사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 한다는 소문마저 들린다"면서 "승가대 이전불사를 방해하려는 어떤 세력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총학생회는 이어 총무원이 김포학사 공사비 지급에 대한 계획을 밝히고 즉각 이행할 것, 학교에 대한 독단적인 운영을 중단 할 것, 승가대 이전불사에 비협조적인 관계자들은 승가의 이름으로 각성할 것 등의 입장을 밝혔다. 김재경 기자

27일 조계종 성역화 공청회

지난 6월말 열릴 예정이었던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사업을 위한 공청회가 27일 총무원1층 불교회관에서 열린다. 공청회는 총무원장 고산스님의 법어와 성역화 사업의 필요성(재무부장 일철스님), 조계사 환경개선을 위한 제안(박언곤 한국건축역사학회 회장), 성역화사업을 위한 기본전제와 총무원청사 기본계획 제안(서상우 한국박물관건축학회 회장) 발표에 이어 자유토론으로 진행된다. 정성운 기자

도박관련 스님 11명 징계

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종걸)은 9일 24차 심판부를 열어 지난 해 8월 승려도박사건에 관련된 11명의 스님 가운데 지운스님 공권정지 2년, 10명에게는 문서견책의 판결을 내렸다.

정성운 기자

석남사앞 상가 허가취소 '가능성'

"전사법 위반 명백"…업주와 대토·매입안 논의

울주 석남사(주지 영운) 앞에 건설중인 집단상가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사찰환경보존위원회(위원장 성조)가 14일 총무원에 제출한 '석남사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석남사 일주문 앞 50m 거리에 짓고 있는 집단상가 건물에 대한 허가과정에서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과 조계종총무원장의 승인서를 받아야 하나,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1, 2항은 '경내지에서의 건조물의 신축·증축 개축 또는 폐지, 부동산의 대여 양도 또는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때 문화관광부 장관과 조계종 총무원장의 승인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석남사는 전통사찰이며, 집단상가 총면적 7천8백여평 가운데 6백82평이 석남사 소유 토지이다.

이에 따라 사찰환경위는 "전사법을 위반했으므로 허가의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울주군청의 허가 사항에 대한 행정과기 신청을 청구해야 한다"고 총무원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허가청인 울주군도 전사법 6조 1, 2항을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 석남사 주지 영운스님이 지난 4월 건축허가 이전에 파헤쳐진 땅을 복원하기 위한 토지사용승락서에 서명한 것을 마치 건축허가를 위한 동의인 것처럼 서명을 악용한 것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석남사는 건축주인 홍모씨에게 현 부지의 대토 및 매매를 사태해결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직지사 스님들과 신도들은 13일 일주문 앞 음식점 신축 예정부지에서 음식점 허가철회를 요구하는 궐기대회와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직지사도 상가건립반대 서명

조계종 제8교구 김천 직지사 일주문 앞 20m지점에 휴게음식점 신축이 허가되어 스님과 신도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천시(시장 박팔용)가 이 일대의 토지소유자 곽모씨에게 지상2층 연건평 3백평규모의 휴게음식점 신축을 지난3일 허가해주자 직지사스님과 신도등 1천여명은 13일 오전11시 신축예정부지에서 허가철회를 요구하는 궐기대회 및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이들은 "이번 허가는 지난76년 직지사를 청정도량으로 가꾸기 위해 사찰 앞 상가를 멀리 이전한것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사찰수행환경을 저해하는 음식점 신축허가를 철회해줄것"을 요구했다.

김천시는 일주문앞 음식점건립이 사찰환경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허가해주지 않았으나, 근거법령인 건축법 제8조4항이 정부의 규제완화조치로 지난2월 폐지됨에 따라 이번에 허가를 내주었다.

직지사 환경보존추진위원회(위원장 범초스님)는 앞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김천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등 허가철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이윤호 기자

수원시 전사법 무시
도로건설계획 확정

청련암 '수행권 비상'

수원시가 전통사찰보전법을 무시하고 도로개설을 확정해 전통사찰 청련암이 두동강날 위험에 처했다.

지난 14일 청련암이 밝힌 바에 따르면 시는 지난 95년 장안구 조원동과 한일타운에서 청련암을 통과해 경찰청과 연결되는 20m 도시계획도로를 문화관광부와 조계종 총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확정했으며, 2002년 월드컵대회 이전 완공을 목표로 연내 착공을 서두르고 있다. 청련암은 지난 68년 전통사찰에 등록됐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10일 총무원장 명의로 수원시에 공문을 보내 경내지를 통과하는 도로를 승인한 적이 없는만큼 청련암 경내지를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는 원인무효라며 도로계획 백지화를 요구했다. 한명우 기자

동화사 범불교대책위 13일 비대위 맞고발

동화사 종단안정과 불법폭력 잔존세력 척결을 위한 범불교대책위는 13일 동화사비상대책위원학스님등 5명을 절도 및 문서탈취, 허위사실 유포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대구지검에 맞고발했다. 동화사 범불교대책위는 고발장에서 "비대위 원학스님 등은 동화사를 불법점거하고 문화재관람료와 시주금 등 공금 1천여만원을 괴청년들의 접대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김원우 기자

또 성보도난

경산 환성사 복장유물 거창 가섭사지 석탑

조계종 제10교구 은해사 말사인 경산 환성사와 거창 위천초등학교에 각각 도둑이 침입, 복장유물과 삼층석탑을 훔쳐 달아나 여름철 성보문화재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환성사 주지 현관스님에 따르면 9일 새벽2시10분경 둔탁한 소리에 잠을 깨 법당으로 달려가자 복면괴한 3명이 쇠연장으로 석가모니불을 깨트리고 있었다는 것. 실랑이끝에 일당3명은 뒷산으로 도망쳤고 이 과정에서 스님은 허리에 타박상을 입었다. 범인들은 불상을 뒤로 제끼고 좌대밑부분에서 하복부까지 부순 뒤 복장유물을 털어갔다. 이 불상은 조선중엽에서 말기사이에 조성된 토불(土佛)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위천초등학교 김정오교사에 따르면 12일 오전 8시께 출근해 보니 교무실 앞 화단에 세워져 있던 삼층석탑이 없어졌다는 것. 도난당한 삼층석탑은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최근 문화재관리국 정밀조사 결과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명돼 문화재 지정을 신청중이다. 이 석탑은 원래 거창군 위천면 금원산내 가섭사지에 있었으나, 가섭사가 불에 타 버린 50여년전 위천초등학교로 옮겨졌다. 경찰은 문화재 전문 털이범이나 석탑 수집가들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펴고 있다.

이윤호·오종욱 기자 (yhlee@buddhapia.com)

'사부대중 공동체' 준비

지난해 조계종 사태때 결성됐던 '종단안정과 개혁을 위한 범불교연대회의'가 20일 조계사 교육회관에서 마지막 회의를 갖고 공식해산, '미래를 열어가는 사부대중 공동체'로 거듭난다. 이에 따라 '미래를 열어가는 사부대중 공동체' 창립준비위원회는 같은날 오후 7시 1차 준비위원회의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불교계의 현실진단과 대안의 길'을 주제로 현응스님이 발제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레이키 - 그날부터 氣능력자가 되는 법 전수

레이키 세상의 여늬 기공법과는 달리 누구나 그날부터 氣능력자로 만들어 주는 것이 레이키(Reiki)법입니다. 이미 일본, 미국, 영국, 독일, 오스트랄리아, 캐나다, 중남미 여러나라, 인도를 포함하는 동남아 여러 나라에서의 수백만명에 대한 전수 실적이 증명하고 있어서 의문을 가질 여지가 없습니다. 누구나 그날부터 氣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다만 한가지 제약조건은 있습니다. 확실한 자격과 높은 능력을 가진 레이키 마스터에게서 전수를 받아야 한다는 제약입니다. 확실한 자격과 높은 능력을 가진 레이키 마스터여야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능력을 전수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의 전수 방법을 전통적으로는 영수(靈授)라고 했고, 현재는 세계적으로 어튠먼트(Attunement)라고 하고 있는데 이 어튠먼트를 하는 능력에 레이키 마스터별로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높고 확실한 능력을 가진 좋은 마스터에게 전수를 받는 것은 여러분의 운이며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박희준)는 레이키 마스터로서 높고 폭넓은 능력을 갖기 위해 2년에 걸쳐서 도합 10여 차례나 일본을 내왕하면서 다양한 레이키 유파(현대화된 여러 갈래의 우스이식 레이키와 카루나식 레이키)의 레이키를 전수받았고 다른 나라로 전수되지 않은 극비의 전통적 레이키(眞傳靈氣라고 합니다)도 전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리어 일본인을 포함하는 외국인이 한국으로 레이키를 배우러 올 수 있게 하는 태세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레이키(氣)는 일본에서 태어나 (우스이 미카오씨가 창시) 서양에서 발전해 일본으로 역수입된 경위를 가지고 있는 세계인류의 「氣문화 자산」입니다.

레이키는 진정한 의미의 「우주생명 에너지」이며 「사랑의 힐링도구」입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사는 재미를 모르고 살던 많은 사람들을 활력과 행복감과 환희심이 넘치는 생활로 되돌려 주는 힐링(요법)의 도구입니다

정통적 의료와 힘을 합해 많은 난치병 환자에게 건강을 되찾아 주는 협진의 도구입니다.

1. 레이키법의 전수 절차

우리 「현대 생활 레이키 연구회」에서는 레이키 능력 전수단계를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전문 임상 응용단계」, 「제4단계」로 구분하여 점진적으로 능력을 전수하고 있으며, 별도로 「카루나 레이키」도 전수하고 있습니다.

※제1단계 : 2일
(1) 1시간의 레이키 주입 (2) 2회의 어튠먼트
(3) 발령법 학습 (4) 12포인트 자타치료법
(5) 오라크리닝법 (6) 차크라조정법
(7) 레이키호흡법 (8) 동식물치료법·에너지주입법

※제2단계 + 제3단계 : 2일
(1)2단계의 어튠먼트 3회, 3단계의 어튠먼트 3회와 각단계에 따르는 상징을 전수 (2)물질, 에너지 상품, 음식물, 환경 등에 대한 에너지 주입, 정화법 (3)원격 치료법, 본격적 레이키 시술법 (4)생활 각방면에서의 레이키활용법 (5)기감개발법, 합장행기법, 光명상법 (6)셀프어튠먼트법, 참나개발법, 단축레이키요법 등

※전문임상 응용단계 : 수일
(1)3개월에 걸쳐서 실시되는 4회이상의 어튠먼트
(2)우스이식 전통적 레이키요법, 완전한 레이키 요법
(3)250가지 이상의 질병에 대한 시간 단축 치료법 빌췌 실습
(4)염달치료법, 우스이식 전통적 음양 반응점 요법
(5)전문적 레이키요법가가 되는데 필요한 새로운 임상자료나 레이키관련 정보의 추가공급
(6)사이킥서저리(시미령수술)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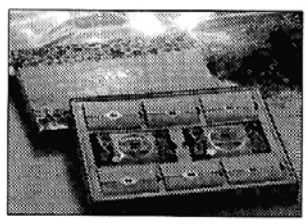
※카루나 레이키 : 1일
카루나레이키는 미국의 레이키마스터인 윌리암랜드씨가 1995년부터 개발해 보급하기 시작한 새로운 레이키법이며 사람의 심신을 치료하는데 8가지 종류의 치료용 氣를 우스이식 레이키 요법에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2. 지도자 : 박희준 (우스이레이키마스터·카루나 레이키마스터) 번역저술가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Reiki.co.kr ♣♣
☎ 문의 : **현대생활레이키 연구회** (구 한국레이키요법 연구학회)
전화 (02)720-5682, 725-2311, 핸드폰 019)392-2557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 피어선빌딩
※반드시 미리 전화하고 오셔야 하며 공휴일에도 개별 지도합니다.

"향기"로 아름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항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항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개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 영 희)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이 달 의 책



석가
— 불연 이기영 전집 제8권

부처님의 일대기를 다룬 책이 한둘은 아니다. 모두 다 나름대로의 가치는 있는 책들이다. 하지만 그만큼의 한계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책 또한 그러한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부처님의 생애에 반영된 신화적인 요소들과 후대에 가필 윤색된 요소들을 뚫 수 있는 대로 배제하고, 역사적 인물로서의 석존의 삶과 가르침을 보여 주는 데 있다 하겠다.

이기영 지음
A6신 314쪽
값 11,000원
한국불교연구원



지장 성지를 찾아서

지장 보살을 찾아나선 선진 스님의 발걸음이 무겁고도 크다. "모든 중생이 다 부처를 이룰 때까지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는 지장 보살의 본원 만큼이나. 스님은 관음 신앙을 '달'에, 지장 신앙을 '해'에 비유한다. 그래서, 앞으로의 불교가 시대의 해가 되기 위해서는 지장 신앙이 근본이 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입종 복지 시설이나 납골당의 확충 등 실천불교의 바탕에 지장보살의 원이 자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지장 도량을 소개하는 맛깔스런 글도 책읽는 즐거움을 두배로 늘려준다.

선진 작음
A6신 286쪽
값 7,000원
우리출판사



나를 다시 하는 동양학

지은이의 문제 제기는, 동양학의 범주를 동양철학에 한정하는 것을 관견으로 보는 데서 시작한다. 이를테면, 유학이나 도가 그리고 불가의 사상이 동양학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뿌리로서의 동양학을 만나자고 주창한다.

지은이의 배움 자세를 함축하고 있는 한 구절만 보자. "대상을 분석함으로써 자신을 바꾸고, 바뀐 자신의 입장에서 다시 대상을 분석함으로써, 마침내 대상과 내가 다같이 없는 곳을 찾아가는 삶의 방법론." 이 책의 급소다.

박한 지음
A6신 반양 양장 286쪽
값 10,000원
바다리

首楞嚴經 (수능엄경)

옮기고 해설한 일귀(一輝) 스님의 말씀 한 귀퉁이를 전하는 것만으로도 이 책의 소개로 충분할 것 같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평생을 교화하신 궁극의 뜻이 '우리들에게 수행을 통해 사회와 이웃에 회향하는 삶을 살라' 하신 것이라면 능엄경은 그러한 회향의 삶을 투철하게 해 주는 까닭에 특히 선종에서 중시했으며, 불제자라면 누구나 소중히 생각하는 경전이다."

본문 만큼 되는 꼼꼼하고도 자상한 주(註)가 책의 격을 한 층 더 높여 준다.

여천 무비 감수
일귀 역주
A6신 양장 784쪽
값 25,000원
불일출판사

절따라 전설따라
— 문화 유산으로 읽는 사찰 연기설화

아무런 내력도 간직하지 못한 암자나 거북, 우물터 따위는 생각만으로도 무미건조하고 삭막하다고 말하는 저자가 사찰연기가 희미해져가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펴낸 책이다.

불국사, 유정사, 상원사, 오어사, 동화사 등 흥미로운 얘깃거리가 많은 36개 사찰의 연기를 쉽게 읽히고 흥미를 촉발할 수 있도록 윤색하면서도 나름의 상상과 은색을 덧붙였다. 저자는 학문과는 별도로 이런 작업도 사찰연기의 대중화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펴냈다고 한다.

김승호 지음
A6신 368쪽
값 7,500원
대원정사



길 끝나는 곳에 암자가 있다

삶의 질서가 흐트러지고 힘들고 지칠 때 고향처럼 느껴지는 암자가 있다면 한번쯤 자신을 추스리고 참된 나를 만나는 '만행(卍行)의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암자를 찾아다닌 지 5년째인 저자가 그간의 암자 순례의 기록을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이 책에는 암자 순례기 뿐만 아니라 저자가 오래 전에 남표했던 명상 산문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암자 뜨락에서 읽을 만한 마음 이야기' 같아서라고 저자는 말한다.

정찬주 지음
A5 반양 344쪽
값 8,000원
해틀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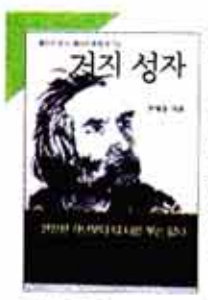


스님은 황금을 메고 어디로 갔을까?

동화 형식을 빌려 불교 예절과 상식을 자상하게 설명한 책이다. 다른 종교에 비해 조금은 까다롭고 복잡해 보이는 불교 예절을 어린이들에게 가르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 책은 재미난 이야기를 통하여 불교 예절과 기본 교리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다가간다.

책 끄트머리에 50가지의 문답으로 정리한 불교 상식은 불교에 갓 입문한 어머니에게도 도움을 줄 듯하다.

김영만 글 · 최민주 그림
A5신 220쪽
값 6,000원
다림



— 붓다의 생자, 제타와 함께 한 건
거지 성자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황석영의 추천의 글처럼 진정한 무소유의 삶을 통해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지 성자 제타 노이야르의 삶과 가르침을 담고 있는 책이다.

저자가 함들었던 독일 유학 시절 만나 정신적 삶의 위안이 되었던 제타 노이야르의 가르침은 현대 서구 문명에 대한 반성을 통해 우리 시대의 문명을 걱정하는 모든 이들에게 반성의 거울이 될 것이다.

전재성 지음
A6신 312쪽
값 7,500원
선재



무학대사 연구

무학대사는 아시나 설화 속에서는 일반인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지만 정작 그의 생애나 사상 등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책은 설화와 전설에 묻혀버린 무학대사의 생애와 사상을 추적하고, 이성계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 등을 자세히 다루었다.

또한 여말선초의 대격변기에 불교계의 흐름을 주도한 것이 태고 보우의 법통이 아니라 나옹 혜근에서 무학 자초로 이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어 여말선초의 불교계 연구에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황인규 지음
A6신 320쪽
값 13,000원
예문

스님들께서 찾아가기

선의 황금시대



오경웅 지음 · 류시화 옮김 / A6신 416쪽 / 값 10,000원 / 경서원

선(禪)이라 하면 이미 선이 아니라 했다. 하지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나면 후회스럽기 그지없으면서도 또 말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머리를 붙들고 늘어져 본다. 행여나, 말문이 탁 막힌 한 순간에, 그동안 주워담은 온갖 말들이 와 — 하고 빠져나갈까 싶어. 문득 말의 끝자락에서 만난 말 없음의 말을 만날까 싶어서.

한 권의 책으로 어찌 선의 오의(奧義)를 맛볼 수 있을까만, 그래도 선문(禪門)을 가리키는 손가락 하나 꼽으라면 이 책 『선의 황금시대』를 들고 싶다. 제대로 된 손가락이기 때문이다. 감히 제대로라는 수식어를 앞세운 까닭은, 선을 대하는 지은이의 태도 때문이다. 도통한 듯한 말투는 찾기 힘들다. 아는 만큼 말하고 본 만큼 드러낸다. 그래서일까? 이 책을 읽는 동안은 머리를 굴리지 않고도 '아, 맞아. 이게 그거였어.' 하는 말을 계속 되뇌이게 된다.

선사들의 이야기가 비록 문자로 전해온 것이긴 해도 그들의 치열한 삶이 피워올린 향기 같은 삶의 진실을, 마치 꿀벌이 꽃을 다치지 않고 꿀을 따 모으듯 엮어낸 이야기인 것이다.

사실 이 책에 대한 설명은 군더더기이기가 쉽다. 워낙 유명한(?) 까닭이다. 그러나 이 시답잖은 짧은 글이 누군가를 이 책과 닿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몇 마디 보탠다.

이 책은 원저의 제목 그대로, 선의 황금시대(The golden Age of Zen)를 살다간 중국 당나라 때(618~906)의 위대한 선사들의 이야기이다. 이야기이되, 보통 이야기가 아니다. 비록 문자로 전해온 것이긴 해도 그들의 치열한 삶이 피워올린 향기 같은 삶의 진실을, 마치 꿀벌이 꽃을 다치지 않고 꿀을 따 모으듯 엮어낸 이야기인 것이다.

또한 이 책은, 스스로 선의 달인인 양 하는 사람들의 알듯말듯한 횡설수설과는 차원을 달리하고 있다. 유려하고도 재미난 문장으로 감싸인 직관과 통찰은 온전히 읽는 이의 것이 된다. 혜능의 '머무름 없이 쓰는 마음'과 황벽의 '동동이질', 임제의 '고함소리' 그리고 조주의 '차 한잔'이 지금 이 순간의 일로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이다.

책의 끝부분에 붙은, 당대 이후의 선 문헌에서 가려 뽑아 엮은 글들도 두고두고 새겨봄직하고, 이 책에 바친 토마스 머튼 신부의 글도 선의 불꽃을 다시 피워올리는 소중한 부채질이다.

끝으로 사족 하나 단다.

나는 이 책을 읽을 때마다 두 가지 점에서 배가 아프다. 그 하나는, 영어권에서 읽힌 책이 우리에게로 역수입되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류시화 씨의 번역이 참으로 우리말 답다는 점이다. (배 아프긴 하지만) 고맙고도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윤제학 / 도서출판 여시아문 편집장 yunjh@buddhapia.co.kr

불교 출판계 소식

전국 불교 도서전 뒷얘기

불교계 출판사들은 불서의 중요성을 불자들에게 널리 인식시키고 불법 홍포를 위해 종종 책과 관련된 행사를 갖는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도서 전시회이다.

지난 6월12일부터 19일까지 불교출판협의회가 조계종 총무원 1층에서 개최한 전국 불교 도서전도 그 중에 하나. 특히 이 도서 전시회는 교계 출판사를 회원으로 하는 불교출판협의회가 '사찰에 도서관을 만들자'라는 주제를 내세워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행사 이후 여기저기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높다.

도서전에 참가했던 한 불자는 전국 도서전을 '바자회'라고까지 혹평했다. 대강경관 등 불교 출판의 루틴나 참가 출판사들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 주는 기획도 없었고 그나마 전시된 도서들마저 빈약했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그리고 전시장의 분위기와 각 출판사들의 부스 등의 시설적인 면도 바자회를 연상케 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명목만 있고 내용은 없다' '유통 질서를 어지럽혔다' '불출함이란 단체가 존재하는가' 등의 질책도 나왔다.

이번 전시회는 홍보와 출판사의 참여, 전시회장 설치, 독자 참여 유도 등 준비부터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내년에는 더 좋은 전시회를 개최하는 각오를 세우고 있다.

교계는 말만 들어도 동참하고 도와 주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일들이 많다. 포교, 잔법, 인재 양성 등. 하지만 이런 용어들이 하물좋은 장식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다. 경제적 불황 속에서도 어렵게 마련된 전국 도서 전시회의 본래의 취지가 더 이상 퇴색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잡만 독서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리처드 칼슨 지음
정영문 옮김 / A6신 228쪽
값 7,000원 / 창작시대

현대인들은 온갖 일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사소한 일도 마치 위급하고 대단한 일인 것처럼 느끼고 행동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 좌충우돌해보지만 실제로는 문제를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든다.

도로에서 누군가가 끼어들기를 하려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부터 하고 화를 낸다. 또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될 때, 이러한 사소한 일에 신경 쓰느라 정력을 낭비하고, 인생의 즐거움을 많은 부분 놓치고 살아간다.

이 책은 여러 가지 사소한 것들로부터 해방되도록 삶을 대하는 다른 방식을 일러 주는데, 삶을 보다 편안하고 쉽게 만들며 어려움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한다.

반드시 어떻게 되어야 한다거나 항상 무언가 부족하고 잘못되고 있다는

조화로운 삶의 두 가지 규칙을 배워라.
첫째,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말라.
둘째, 모든 것은 사소하다.

강박 관념에 빠진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금 그대로의 삶이 얼마나 괜찮은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준다.

자신들의 삶에 좀더 평온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 이 책은 끊임없는 스트레스 대인 관계, 업무, 일반적인 좌절감 등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글쓴이는 사소한 짜증으로부터 벗어나 조화로운 삶의 두 가지 규칙을 배우라고 말한다.

첫째,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말라. 둘째, 모든 것은 다 사소하다.

이러한 사실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킬 때, 선(禪)의 철학을 통해 깨달을 수 있듯이, 모든 불평과 불만에 가득찬 인생에 대항하는 대신 문제들을 '있는 그대로 그냥 지나가도록' 하는 법을 터득하면 삶은 평온하고 순조로워진다고 말한다.

이 책을 말한다



이전숙 풀이 옮김/ B6 배판/ 832쪽/ 값 24,000원/ 사공사

『 精選 아함경 』
부처님 가르침의 원형을 담고 있는 경전 『아함경』.

김종근 기자

불자들이 겪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경전을 공부하는 일이다. 불교의 교리 체계 자체가 심오하고 방대해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불자들이 신심은 돈독하나 경전 이해의 수준은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형편이다. 물론 불교가 경전에 대한 지식의 많고 적음에 의해 완성되는 종교는 아니다. 오히려 백 가지 이론보다 한 가지라도 실천궁행을 요하는 실천 종교다. 방대한 팔만대장경을 암송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경전의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의 급힘 없는 신심과 진지한 실천에는 미치지 못한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실천이 중요하긴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잘못 알거나 몰라서 하는 그릇된 행위는 아집과 독선에 빠지기 쉽다. 경전 공부는 이러한 잘못을 예방하고 종교적 행위의 목표와 동기를 부여해 준다.

"어떤 사람이 불이 활활 타오르는 난로를 보고도 그것이 뜨거운 것인 줄 모르고 손을 댔다면 화상을 입고 말 것이다." 부처님께서 경전 공부에 대한 중요성을 설한 예다. 부처님께서 강조한 것은 올바른 실천이란 올바른 지식과 이해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즉 교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을 때 바른 실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전 공부는 불자들에게 불교를 신행하는 이유를 밝혀 준다. 왜 부처님을 믿고 가르침을 실천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명백해질 때 불법이라는 진리의 바다에 들어갈 수 있다.

참된 불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불교가 어떤 종교인가 하는 것부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처님의 체취를 느낄 수 있는 경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바른 안목과 참된 믿음으로 흔들림 없는 불자의 자세를 구축하는 지름길일 것이다. 이에 적합한 경전으로 아함경이 있다. 아함경은 불법승 삼보에 대해 알게 해 주는 경전이다. 한 마디로 불교의 기본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함경은 사실 아함경이라는 이름으로 된 한 권의 경전이 아니다. 아함경은 이야기들의 모음집처럼, 길이도 내용도 가지가지의 여러 경들을 함께 모아 놓은 것이다. 사실은 아함부라는 이름으로 불려야 마땅하다. 아함부는 수록된 경전의 성격이나 길이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뉜다. 장아함·중아함·증일아함·잡아함이 바로 그것. 이 4아함에 실린 경전의 숫자는 약 2천 가지가 넘는다.

시공사에서 펴낸 『정선 아함경』은 이 4아함 2천여 가지의 경전들 가운데 불자들이 삶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경들을 부처님의 생애를 따라 새롭게 번역하고 해설한 책이다. 처음부터 읽어가면 부처님께서 탄생에서부터 깨달음을 얻고 다섯 비구를 비롯 여러 대중들과 수행자들에게 설법하면서 일어나는 사건들, 그리고 열반에 드실 때까지의 부처님 일생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물론 그 속에서 삼보에 대한 가르침을 비롯 사성제와 연기법 등의 기본적인 가르침도 얻을 수 있다.

아함경의 원문이 살려 있지 않아 역자의 시각으로만 읽어야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아함의 방대한 분량 때문에 가까이 대하지 못했던 불자들의 경우 불교 전체의 윤곽을 정리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정선 아함경』은 4아함 2천여 가지의 경전들 가운데 불자들이 삶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경들을 부처님의 생애를 따라 새롭게 번역하고 해설한 책이다. 처음부터 읽어가면 부처님께서 탄생에서부터 깨달음을 얻고 다섯 비구를 비롯, 여러 대중들과 수행자들에게 설법하면서 일어나는 사건들, 그리고 열반에 드실 때까지의 부처님 일생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여시아문 추천 불교양 도서

1. 염불의 의미와 공덕 — 편집부 엮음 / B6 128쪽 / 운주사 / 값 3,500원
2. 영가 천도 — 우룡 큰스님 지음 / B6 158쪽 / 효림 / 값 3,500원
3. 49재 공덕과 의미 — 편집부 엮음 / B6 168쪽 / 이바지 / 값 3,500원
4. 사십구재란 무엇인가? — 효림 지음 / B6 112쪽 / 행원 / 값 3,500원
5. 영가시어 — 월인 선해 지음 / A5신 158쪽 / 정우서적 / 값 3,500원
6. 극락세계1 — 공파 스님 번역 / A5신 198쪽 / 불광출판부 / 값 5,000원
7. 방생공덕 감로묘우 — 석도위 편저 / B6 180쪽 / 부다가야 / 값 4,000원
8. 환생을 위한 기도 — 현장 스님 지음 / B6 148쪽 / 솔과 학 / 값 5,000원
9. 행복의 문을 여는 이야기 — 구미래 엮음 / B6 188쪽 / 한세 / 값 4,500원
10. 마음을 열어주는 작은 이야기들 — 서문 성 엮음 / B6 230쪽 / 창 / 값 6,000원

여시아문 통신

현대불교신문의 불서 정보란 '여시아문'에 신간 소개를 원하는 출판사에서는 보도자료와 함께 신간을 보내 주십시오. 좋은 책이 독자 독자 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여시아문 편집부 —

통신판매 전화나 팩스로 주문하시면 전국 어느 곳이나 우송해 드립니다.
* 5,000원 이상은 우송료 무료

여시아문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732-1521
팩스: (02)737-0696

